사회적농업 공동 연수

공통 교육과정을 통해 사회적농장의 역량을 강화하여 사회적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수입니다.

대상 2020년 이후 선정된 농장 대표와 실무자 우선 / 희망농민

인원 회당 40명, 각 거점농장에 신청 (4월 8일까지)

날짜	주제	전체공통	주제공통	주제의 실제 워크숍	장소
		10:00~12:00	13:00~15:00	15:00~17:00	
04.21	정신장애와 사회적농업	안병은 (행복농장 이사장)	김정섭 박사 (농촌경제 연구원)	행복농장 좌장	대철회관 (daechoul.or.kr)
04.28	발달장애와 사회적농업	김정섭 박사	김태명 (하람사무국장)	콩세알 좌장	오송 CV센터 (kbiohealth.kr/cnv/) 중회의실
05.12	노인문제와 사회적농업	김정섭 박사	김영란 (목포대학교 교수)	여민동락 좌장	
05.19	청년문제와 사회적농업	김정섭 박사	정민철 박사 (협업농장)	청년마을 좌장	
05.26	아동문제와 사회적농업	김정섭 박사	조미형 박사 (함께하는 연구 협동조합)	여민동락 좌장	

강의 내용

전체공통

사회적농업의 역사, 개념, 전망

주제공통

각 주제를 사회적농업으로 실천할 때 고민 해야할 문제들

주제의 실제 워크숍

각 주제를 실천한 선진 농장 대표들과의 대화 중심 워크숍

참 가 비 무료

기 타 모든 농장은 1회 이상 참가 필수
중복 참가 가능

참가신청 제공양식(사회적농업 단체 카톡방)에 기입하여 4월 8일까지 각 거점농장에 제출

주 소 대철회관
대전광역시 동구 동서대로 1678길 61

오송 CV센터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로 123

주관 청년마을 주최 사단법인 한국사회적농업협회

목 차

1. 연수개요 003

2. 사회적농업이란 005
(김정섭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3. 노인문제와 사회적농업 041
(김영란 - 목포대학교 교수)

4. 노인문제와 사회적농업 실천 사례
1) 여민동락 사례 055
2) 횡성 언니네 텃밭 사례 065
3) 선거웰빙푸드영농조합법인 사례 077

5. 사단법인 한국사회적농업협회 소개 093

6. 한국사회적농업협회 가입신청서 101

7. 메모장 103

사회적농업 공통교육 과정

■ 사회적농업 전체 공통 교육 기초과정

<table>
<tr><th colspan="8">■ 사회적농업 전체 공통 교육 기초과정</th></tr>
<tr><td colspan="2">취지</td><td colspan="6">사회적 농업 농장의 역량을 강화하여 사회적농업 활성화</td></tr>
<tr><td colspan="2">목적</td><td colspan="6">* 다양한 사회적농업의 실천에 따른 공통된 사회적농업의 정체성 확보
* 사회적농업 공통교육과정 확보
* 당사자 조직으로서 사단법인 사회적농업협회 역량강화</td></tr>
<tr><td colspan="2">대상</td><td colspan="6">2020년 이후 선정된농장 대표와 실무자 우선, 희망농민</td></tr>
<tr><td colspan="2">인원 회당</td><td colspan="6">40명, 각 거점농장에 신청</td></tr>
<tr><td rowspan="7">교육
실제</td><td rowspan="2">날짜</td><td rowspan="2">주제</td><td>전체공통</td><td>주제공통</td><td>주제의 실제워크숍</td><td rowspan="2">장소</td></tr>
<tr><td>10시~12시</td><td>13시~15시</td><td>15시 ~ 17시</td></tr>
<tr><td>4.21</td><td>정신장애와
사회적농업</td><td>안병은
(행복농장이사장)</td><td>김정섭박사
(농촌경제연구원)</td><td>행복농장 좌장</td><td>대철회관
(daechoul.or.kr)</td></tr>
<tr><td>4.28</td><td>발달장애와
사회적농업</td><td>김정섭박사</td><td>김태명
(하람사무국장)</td><td>콩세알 좌장</td><td rowspan="4">오성 cv 센터
(kbiohealth.kr/cnv/) 중회의실</td></tr>
<tr><td>5.12</td><td>노인문제와
사회적농업</td><td>김정섭박사</td><td>김영란
(목포대교수)</td><td>여민동락 좌장</td></tr>
<tr><td>5.19</td><td>청년문제와
사회적농업</td><td>김정섭박사</td><td>정민철박사
(협업농장)</td><td>청년마을 좌장</td></tr>
<tr><td>5.26</td><td>아동문제와
사회적농업</td><td>김정섭박사</td><td>조미형박사
(함께하는 연구협동조합)</td><td>여민동락 좌장</td></tr>
<tr><td colspan="2">강의 내용</td><td colspan="6">*전체 공통 : 사회적농업,역사, 개념 , 전망, 강사- 김정섭박사
*주제 공통 : 각 주제를 사회적농업으로 실천할 때 고민해야할 문제들
*주제의 실제 : 각 주제를 실천한 선진 농장 대표들과의 대화중심 워크숍
주제공통 강의자+좌장농장에서 섭외한 전문가와 참가자 질의 응답방식</td></tr>
<tr><td colspan="2">참가비</td><td colspan="6">무료</td></tr>
<tr><td colspan="2">기타</td><td colspan="6">모든 농장은 1회이상 참가 필수 , 중복 참가가능</td></tr>
<tr><td colspan="2">주관</td><td colspan="6">주관: 청년마을 주최: 사단법인 한국사회적농업협회</td></tr>
<tr><td colspan="2" rowspan="2">장소</td><td colspan="6">대철회관(daechoul.or.kr) 대전 복합터미널 근처
대전광역시 동구 동서대로 1678길 61</td></tr>
<tr><td colspan="6">오송 C&V 센터(kbiohealth.kr/cnv/) 중회의실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로 123</td></tr>
<tr><td colspan="2">참가신청</td><td colspan="6">제공양식(사회적 농업 단톡)에 기입하여 4월8일까지 각 거점농장에 제출</td></tr>
</table>

■ **사회적농업 전체 공통 교육 심화과정**

주관 : 거점농장 및 선구농장
내용 : 주관농장에서 실천하고 있는 사회적농업 주제
형식 : 주제와 주관농장에 맞는 형식
횟수 : 3회 차 이상
참가자 : 사회적농업 실천하고 있는 농장이나 개인

사회적 농업의 기초 이해

김정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 배경

○ 정부는 2018년부터 '농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사회적 농업(social farming) 정책을 추진해왔다.
- 사회적 농업을 한국보다 앞서 개념화하고 정책 영역에 포함시킨 유럽연합에서, 사회적 농업이란 "계약에 기초한 노동을 수행할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가령, 지적·신체적 장애인, 출소자, 약물중독자, 소수자 이주민 등)의 노동통합을 지향하거나, 불리한 여건에 있는 사람들의 재활, 교육, 돌봄 등을 촉진하거나, 아동이나 노인 등 특정 집단에게 농촌 지역에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목적을 지닌 영농실천"(Iacovo and O'Cornor, 2009: 11)이라고 정의한다.
- 한국에서는 "사회적으로 배제된 이들을 사회 안으로 끌어안는 농업 실천을 사회적 농업이라고 정의할 때 노동통합, 돌봄, 직업교육훈련 등 세 가지 실천 유형의 맹아를 식별할 수 있다"(김정섭 외, 2017: 8-9)는 의견이 제출된 바 있다.
- 농림축산식품부가 주도하는 가운데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는 '사회적농장'과 사회적 농업 실천을 지식·정보 측면에서 지원하는 '거점 사회적농장'을 선정해 주로 경상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 그런데 사회적 농장 단독으로는 영농활동과 농장활동에 바탕을 둔 돌봄(care) 등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데 한계가 뒤따르며, 따라서 '사회적 농업 확산'을 꾀하는 데에는 또 다른 전략이 필요하다.

○ 농촌 지역사회(community)의 다양한 구성원이 협력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도움(돌봄, 교육 일자리 등)이 필요한 사람들을 사회적 농장을 매개로 포용하는 집단적 움직임'을 촉진하는 정책 수단이 필요하다.
- 그 같은 관점은 현행의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이 형성된 초기(2018년)에도 수용되었고, 사업지침에도 일부 반영되었으나 충분치 않다.
- 광역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사회적 농업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려는 농업인, 사회복지단체 등의 협력 연결망을 구축하려는 정책사업(충청남도 등)도 이제 시작되었지만, 아직은 초기 단계라 할 수 있다.

○ 국내에 알려진 외국의 사회적 농업 정책도 '지역사회'를 사회적 농업 실천의 주체이자 장

소로 간주하고 활용하는 방식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 **이탈리아**에서는 지역사회 구성원이 일자리나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함께 사회적 협동조합을 결성케 하고, 그 사회적 협동조합에 노동, 복지, 농업 분야의 공적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회적농업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 아일랜드의 케리 카운티(Kerry County)에서는 유럽연합의 지원하에 지역사회-기반 사회적농업 시범사업이 진행된 바 있다. 거주인구 15만 명 규모의 케리 카운티 지역에서 사회적농업을 실천하려는 농업인들이 모여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사회적 농장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으려는 발달장애인 등을 연결시켜 주며, 전체 활동을 조율하는 전담 코디네이터(coordinator)를 두어 사업을 관리하게 하였다. 이 같은 모든 활동을 지역사회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조직화하였고, 아주 긍정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었다(Crowley 외, 2017).
- 한편, 돌봄농업이 하나의 부문(sector)으로 인지되는 네덜란드에서는, 지역사회-기반이라기보다는 개별 영농단위(주로 농가)가 각기 치매노인 등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방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방식으로 제도화되어 있다.

○ 이탈리아, 아일렌드, 네덜란드의 관련 정책추진체계가 상당히 다른 모습이다. 이는 각국의 복지정책 추진체계가 다르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아일랜드의 상황이 한국과 가장 유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 가령, 네덜란드가 사회적 농장 단독 서비스 제공 방식이 가능한 것은 농가의 재정규모가 비교적 크고, 보건복지정책에서는 개인예산제(personal budget)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탈리아의 경우, 노동 및 복지 정책의 전달체계 자체가 사회적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왔다.

○ 한국에서는 최근들어 읍, 면, 동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지역의 현안 문제를 주민의 자발적 참여에 바탕을 두고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며(구자인 외, 2020), 그 같은 관점의 실천 사례가 소개되기도 하였다(김정섭 외, 2019).

- 지역사회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하는 농촌발전 정책은 2000년대 초반부터 본격화되었는데, 주로 행정리 수준의 지역사회를 전제로 하였으며, 사회적 농업을 비롯한 '복지 서비스 관련 영역'에서의 실천과 정책사업은 그리 많지 않았다. 2019년 들어서야 보건복지부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일명, 커뮤니티 케어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하면서 지역사회가 복지정책의 대상이자 주체로서 등장할 단서가 겨우 마련된 셈이다.
- 아주 최근 들어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부처들이 또한 읍, 면, 동과 같은 작은 지역사회 단위의 활동에 주목하여 정책사업들을 연계하고 협력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 '사회적 농업'이라는 표현에서 '사회'의 구체적인 실체는 '지역사회'를 의미하기도 하는 바, 사회적 농업 실천이 지역사회에 바탕을 두고 펼쳐질 수 있게 촉진하는 정책 노력과 제도적 기반이 아주 중요하다.

2. 지역사회-기반 사회적 농업의 의미와 필요성

2.1. 사회적 농업 실천의 성격

○ 사회적 농업, 돌봄농업(care farming), 혹은 치유농업 등 몇 가지 용어로 개념화되고 있는 일련의 새로운 농업 실천[1)]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함의와 관련된 정책 추진 방향 논의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대척 관계 또는 비교가능한 위치에 있는 관점 논의는 세 갈래다.

- 첫째, 사회적 농업은 농업활동인가, 사회복지 실천인가?
- 둘째, 사회적 농업은 전문화된 기능인가, 특정한 사회적 관계에 바탕을 둔 상호작용인가?
- 셋째, 사회적 농업을 촉진하려는 정책은 특정 부문(농업 또는 사회복지)의 하위 부문을 발전시키려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가, 지역정책(농촌발전정책)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가?

○ 사회적 농업을 농업활동이나 사회복지 실천 중 어떤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한가? 이 물음에 관해서는, 적어도 유럽의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모종의 합의가 형성되어 있는 듯하다. 그 답은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활동인 동시에 사회복지 실천이라는 점이다.

- 사회적 농업이 영농활동에 바탕을 둔다는 관점은, 장소만 농장이라는 점이 다를 뿐 사회복지 기관이나 여타의 직능 단체가 수행하는 수많은 형태의 사회복지 실천 가운데 한 종류일 뿐이라는 식의 개념 부여를 거부한다. 즉, 사회적 농업 실천의 기본 주체는 농업인이어야 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조건 중 하나다. 그래서 사회적 농업은 다기능 농업(multifunctional agriculture)의 범주 안에 속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 사회적 농업이라는 말보다는 돌봄농업이라는 용어가 더 우세하게 사용되고 제도상으로는 보건복지 서비스 체계와 가장 긴밀하게 접합되어 있는 네덜란드에서도, 사회적 농업은 다기능 농업의 확산이라는 배경 속에서 설명된다(Hassink, 2017: 25-26). 사회적 농업이라는 용어 자체가 기원한 이탈리아에서는 당연하게 다기능 농업이라는 개념이 전제되며, 이는 유럽연합의 관련 정책 당국이나 연구자들 사이에 합의가 형성된 부분인 것으로 보인다(Di Iacovo and O'Cornor, 2009: 21).
- 사회적 농업의 핵심 실천 주체는 농업인이다. 그리고 사회적 농업은 혼종성(hybridity)을 갖는 다기능 농업이다. 즉, 농업 생산단위가 농업활동을 수행하는 동시에 '다른 무엇이 될 수 있다'는 탈영토화(de-territorialization)의 가능성, 즉 농장이 농장이면서 동시에 돌봄의 장소가 되거나 농장이면서 동시에 교육의 장소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을 드러낸다(김정섭, 2018). 그런데 농업인 개인만의 행위로 그런 종류의 '-되기'가 실현되는 게 아니다. 사회적 농업은 농업인이 관계하는 농촌 지역사회의 다양한 행위자들로 구성된 사회연결망에 녹아든 실천이다.
- 그러므로, 칼로 두부를 자르듯 확연하게 구분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적어도 취약한 여건

1) 편의상, 문맥에 따라 여러 용어들을 구별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사회적 농업'이라고 통칭한다.

에 놓인 사람들을 수용한 시설 안에서 수행하는 여러 활동 중에 하나일 수 있는 '텃밭가꾸기 프로그램' 같은 것을 '사회적 농업'이라고 부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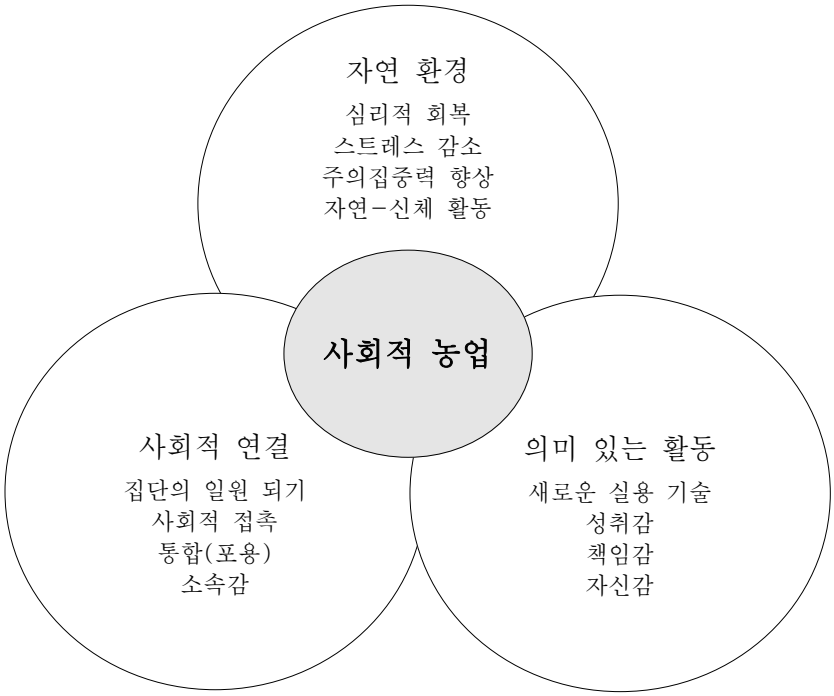
돌봄 농업은 서로 다른 두 영역, 즉 농업 영역과 보건 및 돌봄의 영역을 연결하는 과제에 도전하는 다기능 농업의 흥미로운 사례다. 전(前) 산업사회에서 농업과 보건·돌봄은 소규모 지역사회 안에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두 부문은 현대 사회의 출현과 더불어 각기 분리되었다. 그런데 1990년대 이후로 농업 부문은 보건·돌봄 및 사회 서비스를 다양한 집단에게 제공하는 일에 점점 더 많이 참여하게 되었다(Di Iacovo and O'Cornor, 2009). 게다가 보건·돌봄 분야 전문가나 조직이 정신질환자, 지적 장애인, 노인, 아동, 약물중독자, 장기 실업자 등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농업인이 제공케 하는 접근방법을 시도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돌봄 농업이 예전에는 과학적 관심을 거의 받지 못했던 다기능 농업의 한 사례가 되기에 이르렀다. 돌봄 농장은 농업 생산과 보건 및 사회 서비스를 결합한다. - Hassink(2017: 25-26).

○ 사회적 농업은 전문화된 기능인가, 사회적 관계에 바탕을 둔 상호작용인가? 이 쟁점에 관해서는 두 가지 시각에서 논의할 수 있다. 하나는 사회적 농업 실천이 가져다 주는 편익(또는 효능)이 무엇인가라는 시각이며, 다른 하나는 실천의 바탕이 되는 '관계의 성격'이 어떤 것이냐는 시각이다.

- 장애인, 노인, 아동 등 사회적 농장의 서비스로부터 무엇인가를 얻는 입장에 있는 이들에게[2] 전해지는 편익이 단지 '농장 안팎에 있는 동식물과의 교감' 또는 '자연환경과의 근친성' 같은 요인에서만 비롯하는 것이라면, 사회적 농업은 '농업자원을 활용해 특정한 치유의 기능을 발휘하는 전문영역'이라고만 이해해도 문제가 될 것은 없다. 그러나 편익은 그런 차원에서만 발생하지 않는다. 사회적 농업 활동의 참여자(이용자) 개인의 교육학적·심리학적 변화(새로운 실용기술 습득, 성취감, 책임감, 자신감)가 가장 중요한 결과인데, 그런 결과는 활동 과정에서 농민을 비롯한 지역사회의 여러 사람들과 새로운 관계망 안에 연결되는 과정에서 비롯된다(집단의 일원 되기, 사회적 접촉, 소속감, 포용). 그래서 사회적 농업 실천을 단지 프로그램화 된 치유서비스(healing service)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보는, 즉 '기능적(도구적) 관점'에서만 이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2) 이들만이 편익을 얻는 것은 아니다. 당연히 사회적 농장을 운영하고 농사짓는 농업인들도 큰 편익을 얻을 수 있다. 즉, 일방향의 편익 제공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다. 편의상, 여기에서 '무엇인가를 얻는 입장에 있다'고 썼을 뿐이다.

그림 1 사회적 농업의 세 가지 핵심 요소



자료: Social Farming Ireland(2018: 6)

- 사회적 농장을 방문하여 일련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용자들과 사회적 농장을 운영하는 농민의 관계 구도를 세 가지 유형으로 설정해 논의해볼 수 있다. 첫째는, 사회적 농장이 단순히 진기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서비스 공급자로서만 이해되는 경우로서, 그때 농민은 '서비스 판매자'가 되고 프로그램 참여자는 '구매자'가 된다. 이는 시장에서의 거래관계에 다름없다. 이런 관계 구도에서는 사회적 농업 실천에서 기대할 수 있는 편익이 아주 많이 제약된다. '사회적 연결'이라는 부분이 박약해지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구매력'이 있는가라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 둘째는 농민이 참여자의 생활 전반을 관리하는 입장에 서는 것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이때의 관계 구도는 '사회복지사-수급자'의 관계가 된다. 이런 관계 설정은 이론적으로 가능할 뿐, 통상적인 농민의 역량으로는 수행하기 어려운 역할을 부과하는 것이며, 농촌 지역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참여자와 맺을 수 있는 비공식적이면서도 일상적인 관계의 형성 가능성이 약화된다. 마지막으로는, 사회적 농장의 농민은 그저 지역사회의 주민이되 농장을 찾는 이(그 역시 주민이다)를 환대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의 돌봄, 교육, 일자리 등의 기회를 제공하는 일상적인 관계 구도다. 이런 구도에서 '사회적 연결'에서 비롯되는 편익이 최대화될 확률이 높다.

여느 농촌에도 알려지지 않았을 뿐, 유사한 사례는 생각보다 많을 것이다. 그럼에도 사회적 농업이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정 부문이 아니라 농촌 지역사회 안에서 인간관계를 기반으로 사회적 포용이라는 가치를 구현하는 실천이라고 이해할 때, 그 사회적 편익을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 충남 홍성군의 행복농장에서 유급종사자로 일하는 H씨의 사례와 경남 거창군의 한 농가에서 일하는 B씨의 사례를 들 수 있다.

H씨는 10년 넘게 정신장애인 요양시설에 거주했던 인물이다. 중증장애인으로 분류되기도 한 정신장애인이다. 협동조합 행복농장이 설립되고 사회적 농업 실천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시설에서 행복농장을 방문하여 농업 프로그램에 참여하다가, 나중에는 인턴십 과정을 거쳐 행복농장에서 급여를 받고 주3일 근무하는 종사자가 되었다. 우여곡절 끝에 정신장애인 요양시설을 아예 나와서 홍성읍에 임대주택을 마련해 거주하며 농장으로 출퇴근한다. 어느 방송국에서 취재하던 과정에서 H씨에게 '농장에서 이렇게 일하니까 좋은 점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유기농 허브 작물을 재배하기 때문에 심신에 도움이 된다는 식의 대답이 나오지는 않았다. H씨의 대답은 '자유로와서 좋다'는 것이었다. H씨의 자유는 시설 안에서 거주할 때의 온갖 관리상 지침과 통제를 따르지 않아도 되아서 좋다는 자유이지만, H씨는 여전히 정신과 진료를 받아야 하며 약품을 복용해야 한다. 즉, 스스로 정신건강을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을 때에만 가능한 자유다. 그리고 생계를 스스로의 힘으로 꾸려나가는 것이 가능할 때에만 누릴 수 있는 자유다. H씨의 자유를 가능케 했던 것은, 행복농장과 그 주변의 주민들이 보여준 환대와 관계 형성에 있다고 해도 다름아니다. H씨의 생일이 되면, 마을부엌에서 점심을 함께하는 마을 농민 등 10여 명이 어김없이 축하를 해주고, 농장과 마을이라는 열린 공간에서 접촉하게 되는 주민들과 함께 스스럼없이 농담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H씨가 누리는 자유의 바탕이다.

B씨는 거창군에 소재한 중증장애인 공동거주 시설, '월평빌라'에 살던 인물이다. 영농활동에 종사할 능력이 상당히 있는 B씨를 월평빌라에만 머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농가에 취직시켜 '장애인이 아닌 동네의 농민'으로서 생활할 수 있게 하려는 사회복지 분야 종사자들의 끈질긴 노력으로, 갖은 우여곡절을 거쳐, 지금은 수년 째 어느 농가의 상용직 근로자로 일하고 있다. 몇 년 전에는 아예 주거를 월평빌라를 나와, B씨가 근무하는 농장에 딸린 집에서 살고 있다. B씨 역시 지역사회에서 분리된 것이 아니라 동등한 주민으로서 그리고 농민으로서 생활하고 있다. B씨를 고용한 농민의 환대와 월평빌라의 사회복지사들이 보여준 끈질긴 노력이 한 사람을 지역사회에 통합시켜낼 수 있었다.

○ 이상의 논의를 이어간다면, 사회적 농업을 촉진하려는 정책은 특정 부문을 육성하려는 정책이라기보다는 농촌 지역사회를 더욱 '포용적인 사회'로 바꾸어내는 지역 정책의 일환이 되어야 함은 분명해 보인다. 유럽연합에서 사회적 농업의 개념을 규정하고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려던 초기 논의 단계에서, 사회적 농업이 '지역사회-기반 실천'인가, 아니면 특별히 전문화된 '직능 영역(부문)'인가를 따지는 논쟁이 있었다. 아직, 논쟁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지만, 사회적 농업은 '지역사회에 스며든 포용적 실천'이어야 한다는 점에 상당한 합의가 형성된 듯하다.

- 특히, 전문적인 사회복지 서비스 제도와 깊게 접합되지 않은 아일랜드와 사회복지 분야 정책 전달체계 자체가 '사회적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형성된 이탈리아에서 그런 관점이 강하게 주장되었다.

결론적으로, 개념 측면과 실천 측면 모두를 살펴본 우리는, 사회적 농업은 일종의 사회적 보호의 수단이라는 특징을 지닌다고 제안한다. 사회적 농업은 특별한 돌봄이 필요하거나, 그런 돌봄이 없을 경우 기본적인 서비스에 접근하는 것을 거부당할 수 있는 소외된 집단들의 사회적 지위와 권리를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회적 농업은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편견과 차별로부터 '통합'이라는 보호를 제공하며, 존엄하게 생활할 권리를 증진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특히, 사회적 농업은 사회적 보호를 지향하는 다부문적이고(multisectoral) 다차원적인 접근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사회적 농업을 통해 사람들은 먹거리 보장과 소득 보장 측면에서 보완적인 수단을 얻을 수 있고, 고용이 가능해지며, 사회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얻을 수 있으며, 돌봄과 살림살이 경제 영역에서 무급 또는 유급의 일자리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적 자원 측면의 투자가 가능해진다. 뿐만 아니라 서비스에 대한 접근으로부터 배제된 주변부의 인구 집단을 낙인찍기나 차별 같은 폐단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지적하기를, 사회적 농업은 서로 다른 여러 부문이나 분야들이 교차하는 곳에서 실천해야 하는 것이어서, 일종의 큰 도전을 직면한다. 그 도전은 농촌 발전 분야에서 여러 활동들이 부문별로 나뉘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이 같은 부문별 접근 방법에 도전함으로써, 사회적 보호 수단으로서 사회적 농업은 지역사회 안에서 복지, 사회적 포용, 지속가능성 등을 증진하려는 목표를 지닌 농촌 발전 정책의 패러다임을 방법론적으로 재검토할 기회를 제공한다.
- Di Iacovo *et al.*(2015: 327).

2.2. 지역사회-기반이어야 하는 현실적 이유

○ 사회적 농업이 지역사회에 바탕을 두고 실천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는, 앞에서 논의한 것처럼 '사회적 농업'의 지향이 사회통합 또는 사회적 포용에 있다는 점에서 우선 드러나지만, 현실적인 이유들도 있다.

○ 첫째, 사회적 농장 운영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제기되는 문제다. 네덜란드와 달리 사회적 농업 실천에 따르는 비용 혹은 서비스 제공에 따르는 대가를 공적 자금으로 지불해주는 제도적 장치가 확립되지 않은 한국에서, 가족농 단위의 일반적인 농가들이 프로그램을 실행하거나 누군가를 고용하는 데에는 농장경영상의 큰 제약이 동반된다. 한 농가가 여러 명의 참여자를 돌보거나 고용하거나 농업교육을 실시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개별 농업경영체가 부담할 수 있는 비용을 줄이려면, 지역사회 안에 여러 농가들이 사회적 농업 실천에 동참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진다.

- 가령, 잘 알려진 행복농장의 경우 유기농 허브를 재배하는데, 그 판로는 비교적 안정적이다. 그럼에도 250평 크기의 비닐하우스 4동에서 작물을 재배함으로써 얻는 매출액은 연간 5,0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 별도의 대가를 지불받지 않는 상태에서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농업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횟수에 비례하여, 그리고 프로그램 참여자의 수에 비례하여 농업생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2019년에 행복농장은 지역에 거주하는

10여 명의 정신장애인들이 매주 방문하여 농업활동에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12회차를 진행하였고, 약 일주일간 행복농장이 소재한 도산리에 4박5일 동안 정신장애인이 머물며 농업활동에 참여하는 '자연구시 프로그램'도 2회 진행하였다. 그밖에도 지역 내 초중등학교의 특수반(돌봄반)에 속한 발달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방과 후 프로그램도 상황에 따라 학기당 10회차 내외의 주기로 운영하였다. 그 시간만 해도 연간 수백 시간에 달한다. 행복농장에서 고용한 H씨의 급여 또한 순전히 경영적 관점에서 보자면 노동생산성에 비해 훨씬 많은 금액이 지불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정도가 행복농장이 경영수지 측면에서 감당할 수 있는 최대치에 근접하는 듯하다.

○ 둘째, 사회적 농업 활동 참여자들이 얻을 수 있는 심리적·사회적 효과 측면에서도 개별 농장으로서는 많은 수의 참여자를 응대하기 어려운 조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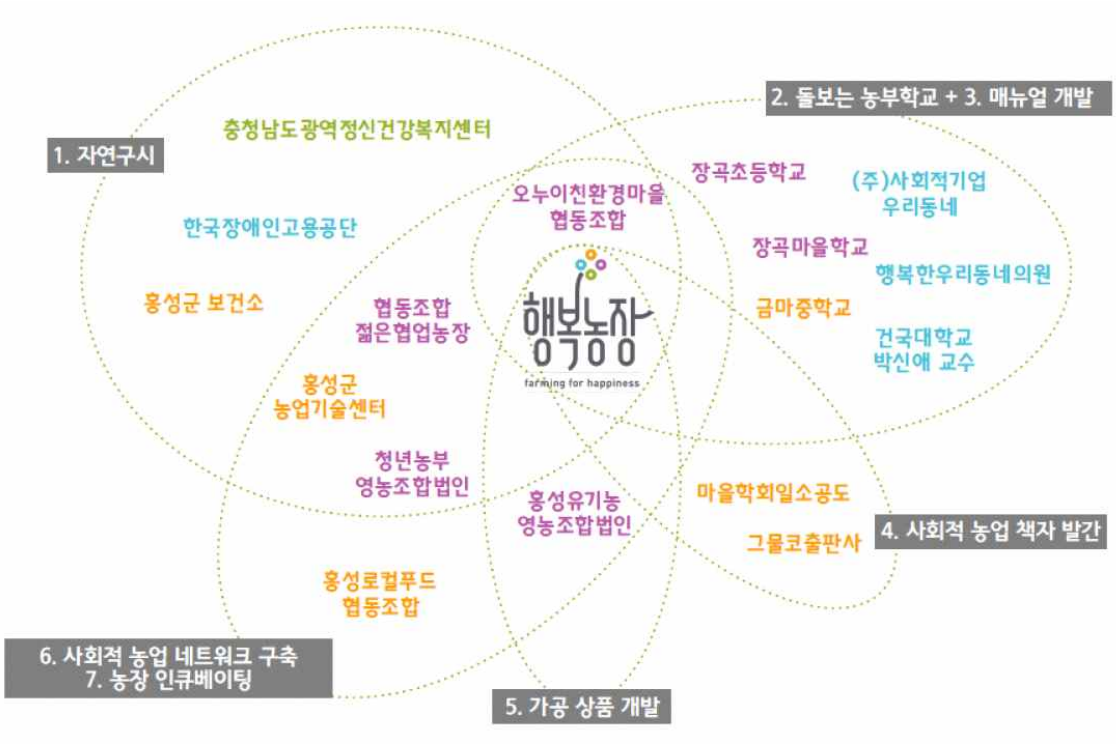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중증 발달장애인이나 정신장애인의 경우, 농장활동을 진행할 때에는 농민 1명이 1~3명의 장애인과 함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 통설이다. 그러나 대체로 적게는 5명에서 많게는 20명 가까이 집단적으로 농장활동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사회적 농장의 수가 적기 때문이다. 지역사회 안에서 근거리에 여러 사회적 농장이 존재한다면, 이들 참여자를 분산배치함으로써 편익을 증대시킬 수 있다.

○ 셋째, 사회적 농업 활동에 참여할 '사회적 약자'들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초기 단계의 접촉 과정에서 사회적 농장 단독으로는 수많은 애로를 경험하게 된다. 현재 활동하는 사회적 농장들 모두 지역에 있는 보건 또는 사회복지 기관들과의 접촉을 통해, '사회적 농업'이라는 활동이 있다는 것을 알릴 수 있었다. 농촌 주민들, 특히 농민들의 일상생활에서는 보건 및 복지 관련 기관과의 접촉 기회나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여러 직능기관과의 네트워킹이 필수적인 과제로 부각된다.

○ 넷째, 사회적 농장이 감당해야 할 구체적인 기능들을 소화할 인적 자원 소요는 다양하고 많지만, 사회적 농장은 그런 인적 자원을 상시적으로 고용하고 유지하기 어려운 조건이다. 지역사회 내에 여러 가지 분야에서 활동하는 행위자들과의 협력관계에서만 사회적 농장이 발전해 나갈 수 있다. 예를 들면, 지역사회 내부의 협동과 연대 관계에서 확보해야 할 기능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사회적 농업을 지역에 알리고 협조를 구하기 위한 홍보 및 출판물 간행
- 사회적 농업 활동 참여자들에 대한 모니터링(혹은, 사례관리)
- 현금, 현물, 노동력 등 다양한 형식의 후원
- 사회적 농장 활동 프로그램 기획 및 평가
- 사회적 농업과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 획득
- 사회적 농장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의 판로 확보
- 사회적 농장 활동 프로그램 운영상의 여러 기능(예: 기록, 촬영, 프로그램 진행 보조, 송영, 집단 상담 등 참여자 대상 비농업 프로그램, 강의장·숙박·식당 등의 시설, 식사 제공 등)

그림 2 협동조합 행복농장의 '사회적 농업 협력 연결망'



○ 다섯째, 사회적 농업 실천을 확산하려는 정책을 '부문 정책'이 아닌 '농촌발전 정책'의 범주 안에서 이해할 때, 사회적 농장은 지역사회 안에서 세 가지 측면의 역할을 수행하는 중심으로 기능해야 한다. 이때 지역사회 내 다양한 행위자들 간의 관계는 그런 기능들이 발휘되면서 지역사회를 더욱 '공동체스럽게' 변화시키는 매체가 된다.

– '사회적 포용'이라는 이념의 확산: 지역사회 안의 사회적 약자를 통합하고 포용하는 실천의 필요성과 효과를 보여주는 역할

– '사회 혁신' 사례의 창출: 과거에는 관계가 없던 행위자들이 '새롭게 관계를 맺고, 그 바탕 위에서 변화를 이루어내는 실천', 즉 부문 간의 칸막이를 해소하는 실천의 성공 가능성을 보여주는 역할

– '사회적 경제' 확장의 거점: 지역사회 안에서 여러 행위자들이 협동과 연대를 바탕으로 조직화되고 지역발전을 위한 새로운 시도들을 끊임없이 수행할 수 있는 구심점으로 기능

3. 지역사회-기반 관점에서 본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성과와 과제

○ 정부는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3]이라는 명칭의 보조금 정책사업을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의 목적은 두 가지로 서술되어 있다. 그 가운데 두 번째 목적에서 제시한 내용은, 이 사업이 처음부터 '지역사회-기반'이라는 원칙을 견지해왔음을 보여준다.

- 첫째, 농업활동을 통해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돌봄·교육·고용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농업의 확산을 도모한다.
- 둘째, 사회적 농업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 및 사회적 역할 수행을 돕고, 지역의 다양한 주체 간에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농촌 공동체를 활성화하도록 유도한다.

○ 이 사업의 예산 세목은 '지자체경상보조'이며, 개소당 연간 6,000만 원을 보조한다(국고 70%, 지방비 30%).

- 2018년에 9개소, 2019년에 9개소, 2020년에 12개소, 2022년 현재 80여 곳에서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 보조금 지원을 받으려면, '지역사회의 주민, 조직, 단체 등과 네트워크를 이루어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을 전제로 사업을 계획하게끔 지침에 명시해두었다.

- 실제로 현재 시행하고 있는 30개소의 사업 대상지 모두 '계획'에는 협력 네트워크에 포함시킬 지역 내 기관, 단체 등의 행위자를 명시하였다.
- 30개의 사회적 농장이 협력 관계를 형성하기로 계획한 대상 기관 또는 단체는 총 199개로, 평균 6.7개의 기관·단체와 협력하기로 한 것이다.[4]
- 협력 관계를 맺기로 한 기관 및 단체 중에 사회복지기관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따라서 장애인이나 노인 등을 대상으로 농업교육, 돌봄, 고용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세부 사업내용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 이 같은 네트워크 형성 양상은 현재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사회적 농장들이 우선은 농장활동 참여자를 확보해야 하는 필요성에서부터 출발해 지역 내 네트워킹을 시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지역사회 안에서의 협력 관계 형성과 관련하여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려는 농민이 비농업분야의 기관이나 단체와 만나기 시작했다는 점은, 중요한 한 고비를 넘기기 시작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사회-기반 사회적 농업 확산'을 목표한다면, 향후 추진해야

---

3) 정확하게는, '농업농촌 사회적 가치 확산 지원'이라는 명칭의 사업에 속한 '내역사업'이다.

4) 이것은 계획이고, 실제 협력관계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에 대해서는 실증 조사와 분석이 필요하다.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모임이나 만남이 대부분 중지되는 예외적인 상황이었다는 점도 돌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할 과제들이 남아 있는 것도 사실이다.

- 사회적 농장 한 곳과 여타의 기관들의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 내에 여러 사회적 농장들을 육성하고 네트워킹을 이루어야 한다.
- 그처럼 형성된(또는 형성될) 네트워크가 유동적이고 비공식적인 관계에서 진화하여 일정하게 견고한 틀을, 가령 상상하자면 '○○군 사회적 농업 협회' 혹은 '○○면 지역사회 돌봄 협의회' 같은 방식의 명칭을 지니고 그에 걸맞은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조직적 틀을 갖추어야 한다.
- 네트워킹, 즉 협력관계 형성에는 상당한 밀도의 교섭과 의사소통 노력이 필요하다. 그 모든 작업을 사회적 농장이 단독으로 진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연결 작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교섭을 안내할 지역 내 조력기관을 사회적 농업의 영역으로 포섭해야 한다.

그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지역발전을 위해 조력 활동을 하는 기관(마을만들기지원센터,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한 사회적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연합 조직, 농업회의소, 여성농업인센터, 주민자치회 등)이 사회적 농업에 관심을 갖고 활동할 경우에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학습이라는 두 측면에서 상당한 효과를 거둘 가능성이 엿보인다.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예를 들 수 있다.

강원도 횡성군의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시행 주체는 '횡성언니네텃밭 영농조합법인'이다. 이 영농조합법인은 '횡성군 여성농업인 종합지원센터'와 긴밀한 연대 관계에 있었고, 그 관계를 바탕으로 지역에서 인문학 운동을 전개하는 '사회적협동조합 행인서원'이나 로컬푸드 실천을 전개하는 '횡성사회적경제네트워크 협동조합'과 연결될 수 있었다. 그것을 배경으로, 창의적인 사회적 농업 실천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었다.

강원도 원주시의 '농업회사법인 원주생명농업'의 네트워킹을 지원한 곳은 조례에 의해 사회적 경제 활동을 돕도록 규정되고 설치된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를 통해 돌봄사업과 관련된 여러 단체들과 접촉하고 협력할 수 있었다.

전라북도 무주군에서는 정책사업에 참여하던 초기부터 무주군이 설치한 중간지원조직 '무주군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조력을 받았다. 이 센터는 프로그램 개발 및 기획, 관내의 교육기관이나 사회복지 관련 단체들과 사회적 농장을 연결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전라북도 완주군의 '사회적협동조합 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는 그 회원 조직만 40개가 넘는 전국적으로 규모가 큰 사회적 경제 연합조직이면서 완주군의 농촌정책에 공식·비공식 조력 활동을 다양하게 펼치는 지자체와 파트너 관계에 있으면서 중간지원조직 역할을 톡톡히 해내는 곳이다.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처음에 기획할 때부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고, 비농업 부분의 발달장애인 지원 기관이나 청년 농민 단체의 협력 네트뭐크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전라북도 익산시에서는, 보조금 사업을 신청하기 전부터 '익산시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자체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 사회적 농업 실천에 참여하도록 5개의 농업경영체를 설득하고, 관내 장애인복지시설 및 학교 등의 기관과 연결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특히, 사업 신청 전에 5개 농업경영체들과 함께 6개월 동안 여러 차례의 학습모임을 열어, 사회적 농업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도모하는 등 조력자로서의 모범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경남 거창군에서는 2020년 들어 거창군마을만들기센터가 사회적 농장인 수승대 발효마을과 더불어 지역 내의 농업인, 지역자활센터, 사회복지기관 등 여러 행위자들과 네트워킹하고 학습하는 일에 착수하였다. 이 연결망에는 거창군농업회소도 긴밀하게 관여하고 있는데, 거창군농업회의소 안에는 '사회적 농업 분과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농장명	활동유형	활동내용(2020년초 사업계획서 기준)			네트워크
		대상유형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내용	기관단체명(협력 분야)
농업회사법인 청년마을(주)	교육 돌봄 고용	청년	청년농부 프로그램	▪ 연간 농장 일정을 수립하고 하루 4시간 실습을 통해 전통농법을 익히고 먹거리 자급 학습 프로그램 개발 ▪ 주 3회, 하루 4시간 공유지에서 농사실습	▪ 농촌공동체연구소(네트워크와 사업운영 노하우) ▪ 제천간디학교(농사 작업장과 농업 교육 마을 연계 프로그램) ▪ 누리꿈터덕산 지역아동센터(월 2회 농사 체험 프로그램) ▪ 참좋은곳간(청년농촌정착 프로그램 위탁, 직판장, 쇼핑몰 공유) ▪ 먹거리나눔협동조합 파릇(생산물 판매 및 협동조합 참여) ▪ 덕산초중등학교(초/중/유치원생 농사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 월악산 힐링푸드(6차 산업과 농산물 가공 실습 교육) ▪ 교통대 디자인과(디자인 작업장 참여와 지도) ▪ 건국대 링크플러스사업단(농도상생청년 교류)
			간디학교 농사작업장 프로그램	▪ 제천 간디학교 6명을 대상으로 작업장 농사 및 농산가공품, 농사체험 기록, 마을활동 체험 교육을 통해 농사와 마을에 대한 이해도와 친밀성 제고	
			마을 배움터	▪ 자기주도적 배움을 통해 스스로 성장하고 청년이 희망하는 것을 찾아 자신을 일로 만들어 작업장으로 연계(16교실 각각 6강좌) ▪ 영상, 독서, 영어수다, 그리기, 목공	
			진로작업장 운영	▪ 청년의 관심사를 발전시켜 전문가로 성장하고 사회적 경제 기업을 창업하여 농촌에 정착 목표로 함 ▪ 영상미디어센터, 그림교실, 로컬푸드 음식 작업장, 디자인 등	
		지역아동	지역아동 농사체험 프로그램	▪ 지역 취약계층 아동 10명을 대상으로 들판 백일장, 그림 그리기 등 농사교육 활동을 통해 정서적 안정, 체험활동, 지역에 대한 긍정적 추억 제공	
횡성언니네텃밭 영농조합법인	교육 고용 기타(힐링)	귀농귀촌여성	귀촌여성농업인 정착지원	▪ 2개 지역 언니네 텃밭 협업농장 운영 ▪ 귀농귀촌 희망 여성 대상 시기별 농업활동 체험 및 농사법 전수 ▪ -귀촌여성,다문화여성에게 농사기술전수 및 소득활동 지원 ▪ -귀농희망 여성 농업경영체등록 지원	▪ 횡성여성농업인 종합지원센터(기획 및 농업, 식생활 교육) ▪ 영농조합법인 텃밭(농산물가공및토종농산물(콩)구매) ▪ 사회적협동조합 행인서원(농업연계인문학교실,힐링센터) ▪ 횡성사회적경제네트워크 협동조합(사회적 경제 장터 참여를 위한 교육 등)
		고령농업인 (여성)	언니네 밥상 프로그램 운영	▪ 제출꾸러미 농산물로 만든 반찬을 만들어 고령여성농업인 건강관리 및 말벗 활동 실시 ▪ -다양한 연령층의 여성농업인 공동체 복원 ▪ -농촌형 여성 친화 마을 조성 ▪ -고령여성농업인 지키미 활동 등 ▪ -전통음식스토리텔링 및 푸드심리테라피 작업	
		여성농업인	제철농산물즉석가공교육	▪ 언니네 텃밭 참여하는 젊은 여성농업인이 사회적 농업 활동과 강사훈련을 통해 역량을 키우고 소득사업 지원 ▪ -제철 농산물 활용 음식 판매 식당 운영 ▪ -힐링푸드만들기, 푸드심리테라피, 무인판매대 운영 등	
농업회사법인 원주생명농업	돌봄	고령자, 귀농희망자	지역조사 및 인식개선 활동	▪ 지역자원 조사, 고령자 경제활동 수요 및 돌봄 수요 조사 ▪ 사회적 농업 인식 개선 교육	▪ 원주협동사회경제 네트워크(돌봄사업 수행단체 사업연계, 연수 프로그램 등) ▪ 원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건강관리연계 운영) ▪ 원주노인소비자생활협동조합(고령자 대상 영농 실습 및 기술 훈련 대상 자연계) ▪ 성공회원주 나눔의집(건강증진 프로그램 연계) ▪ 갈거리사회적협동조합(고령자 대상 영농 실습 및 기술 훈련 대상자 연계 및 생활 자립 상담) ▪ 플라워럼프(원예치료프로그램 등) ▪ 원주생협(협업농장 물품 판매 역할)
			협업농장 시범 운영	▪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 대상 영농 실습 및 기술 훈련 ▪ 지역 내 복지사업 단체 연계	
			농촌지역고령자 및 협업농장참여자돌봄프로그램	▪ 원예치료 프로그램(6회) ▪ 건강관리 프로그램 실시(2회) ▪ 건강증진 프로그램 실시(6회) ▪ 생활자립상담 프로그램(3회)	
			지역 네트워크 구축	▪ 연계단체 기획회의(3회) ▪ 사회적 활동 세미나(1회)	
			사례 연수 및 교육	▪ 국내 사회적 농업 사례 연수 ▪ 국외 사회적 농업 선진 사례 연수	
농업회사법인 성원농장	교육 돌봄 고용 기타(힐링)	발달장애인, 치매노인, 장애청소년	맞춤형 농업돌봄 및 교육훈련	▪ 발달장애인은 체험(단기)반, 심화반 인턴반으로 편성 ▪ 단순 체험부터 네트워크농장 실습까지 구분하여 농업교육 ▪ -단기프로그램(5~10명) 2박 3일간 연 9회 운영 ▪ -심화프로그램(2~5명) 주 3회 28주간 운영 ▪ -인턴프로그램(1~3명) 1년 간 12주 운영	▪ 보은군노인/장애인복지관(대상발굴, 직업평가, 사례관리 등) ▪ 보은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지역복지기관 또는 사회단체와 연계 지원) ▪ 보은군농업기술센터(영농생산 기술 보급 및 강사 지원) ▪ 귀농귀촌단체협의회(농업자문지원 및 농업행사 지원)

농장명	활동유형	활동내용(2020년초 사업계획서 기준)			네트워크
		대상유형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내용	기관단체명(협력 분야)
				▪ 치매노인반은 주간돌봄으로 맞춤형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운영	▪ 보은군농업인협회(농작물판매 및 교육지원) ▪ 여성농업인회(농작물판매 및 교육지원) ▪ 보은농업경영인단체(농작물 판매 및 교육지원) ▪ 보은군보건소(체지방, 골격근정도 측정, 관리방안 자문) ▪ 보은군정신건강증진센터(우울감 측정 지원 및 사례관리 지원, 자문) ▪ 가람회농장, 틔움종장, 소풍농장(농업체험 및 훈련지도 등) ▪ 보은군영농후계자연합회(축산관련체험, 실습, 농장체험 등) ▪ 보은군산림조합(보은산나물, 산약초체험, 실습등)
			신체건강 증진 프로그램	▪ 농장에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신체기능 재활 및 정서안정 ▪ -공동체프로그램(과수, 원예, 식용작물수확체험) ▪ -개별프로그램(개별 텃밭 이용 다양한 작물체험) ▪ -자유프로그램(농장걷기 등) ▪ -보건소연계(건강관리, 검진, 건강체조/운동프로그램)	
			정서안정 증진 프로그램	▪ 힐링 농장에서 다양한 활동을 통한 우울감 감소 등 정서기능 향상(정원 만들기 등)	
			여가문화 기회 확대	▪ 외부활동 및 여가선용의 기회 제공 ▪ -여가문화반(도자기공예, 꽃차만들기, 원예등) ▪ -가족공동텃밭(장애가족 대상 공동 텃밭 조성, 가족유대증진) ▪ -힐링가든 프로그램(치유정원, 텃밭정원, 미니정원) ▪ -장애 아동청소년 농장 체험반(장애아동청소년대상수확체험및놀이기회제공) ▪ -농업 체험반(보은군내오이, 사과, 딸기 등 대표 작목반 체험)	
농업회사법인 닥나무와종이	돌봄	치매고령자, 아동·청소년	치매노인 프로그램	▪ 초기치매 노인 추억여행 프로그램(1기수) ▪ 초기치매 노인 기억개선 프로그램(2기수, 신규)	▪ 행복한 요양원(치매환자 이동, 대상자 선정, 요양사 지원 등) ▪ 상당구치매센터(치매노인프로그램자문, 개선사항 공유) ▪ 청주시토종씨앗연구회(농장체험, 전문강사제공, 청소년 프로그램 강의 자문) ▪ 문의초중학교(농사교육 및 체험연계, 농사교육 장소 제공) ▪ 백민구절초연구소(체험, 축제, 장소제공, 재료거래 등) ▪ 교육청Wee센터(청소년 대상 발굴, 프로그램 추진 계획 공유 등) ▪ 문의면사무소(주민자치 프로그램, 전시장소 제공)
			아동/청소년 창의농업 프로그램	▪ 자연과 친해지는 시간 ▪ 절기별 재료 인식 및 수집 ▪ 공예품 만들기 등	
			청년 농부활동가 양성	▪ 귀농귀촌 희망 청년 또는 활동 희망 청년 모집 ▪ 다양한 수업 및 지역문화 축제 참여, 상시교육 진행	
			마을 활동가 양성 프로그램	▪ 문의소재 지역주민 대상 참여자 모집 ▪ 억새, 녹조 등 활용수업 진행, 공예품 만들기 등	
진여울 영농조합법인	교육	장애학생	세종누리학교 농업인반	▪ 학생들이 공동으로 영농에 참여, 텃밭 조성 ▪ 작물재배 요령, 농업 관련 교육 체험 프로그램	▪ 세종누리학교(장애학생 교육, 이동 지원) ▪ 성남고등학교(봉사동아리활동, 이동 지원) ▪ 연기어린이집(참여 아동연계 및 안전관리 인력) ▪ 눌왕리마을회(주민참여) ▪ 세종장애인복지관(프로그램 공유 및 강사 지원) ▪ 세종충남가톨릭사회복지회 ▪ 씨앗도서관협의회세종지회 ▪ 세종로컬푸드(농산물출하 및 판매) ▪ 세종자원봉사센터(자원봉사지원)
		아동, 청소년, 고령자, 장애인	연기 어린이집 영농활동	▪ 계절별 농업활동, 정서교육, 자연학습 기회 제공	
		장애학생, 비장애 학생	장애학생+비장애학생 커뮤니티	▪ 세종누리학교 학생 + 성남고등학교 학생 어울려 도움을 주고받으며 또래 간의 교감, 인성교육	
		주민, 장애학생, 아동	장애학생 사회성 향상	▪ 농촌 어르신과 어울리며 농촌 현실과 정시 체감 기회 제공	
		장애가족	장애가족 텃밭운영	▪ 장애아와 가족이 텃밭 운영, 공동체 형성	
목인동 영농조합법인	교육	장애인	세종요나의 집 활동	▪ 텃밭 정원, 맞춤형 체험 ▪ 월별 프로그램 진행	▪ 세종 누리학교(특수학급 학생 대상 텃밭 매개체로 힐링/치유 프로그램) ▪ 세종요나의집(돌봄, 케어, 힐링프로그램 연계) ▪ 세종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다문화가족연계)

농장명	활동유형	활동내용(2020년초 사업계획서 기준)			네트워크
		대상유형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내용	기관단체명(협력 분야)
		장애학생	세종 누리학교 특수학급	▪ 텃밭 정원 직접 관리하며 정서함양 ▪ 식용화초 활용 식생활 프로그램 ▪ 황토놀이터 및 숲길 걷기 심리적 안정 기여	
		다문화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힐링 치유 프로그램	▪ 세종시 다문화 가족 대상 힐링 치유의 밤 행사 개최 ▪ 전의초등학교 다문화 가족 대상 경험	
여민동락 영농조합법인	교육 고용	고령노인	노업활동 유지교육 및 돌봄연계 체계화	▪ 노인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일거리 개발 ▪ 마을공동체 활성화 도모 ▪ 참여 노인의 일상적 관리 및 건강/정서 파악 ▪ 고령인 노동 능력에 적합한 작목과 농법 보급 등	▪ 여민동락 공동체(사회복지사 인력 지원, 프로그램 및 사례관리 협력 등) ▪ 의료기관(영광종합병원, 묘량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등) ▪ 깨움마을학교 ▪ 묘량중앙초,송학중,성지고(프로그램 연계) ▪ 야생화영농조합, 태청골야생화, 영광이레농장(협력농장) ▪ 목포대(인력교류 및 실습, 프로그램 개발 협력)
		아동/청소년	돌보는 농부학교	▪ 어린이농부(초): 교육과정 연계 생태교육 ▪ 꿈꾸는농부(중): 노작교육 ▪ 미래농부(고): 영농 활동 동행	
		청년/귀농인	청년/귀농인 이주돌봄	▪ 귀농귀촌 희망자 마을살이, 농업활동 등 이론/실습 교육 제공 ▪ 도시청년대상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공유, 정착지원	
반햇소 영농조합법인	교육 돌봄	장애청소년	무주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인 농업활동	▪ 취업에 취약한 장애인 대상 다양한 농업교육 경험 및 직업경험 ▪ 반햇소농업활동(텃밭작물재배, 가공물생산직업교육등) ▪ 해밀캠핑장농업활동(자연및농업활동, 수확및요리) ▪ 반디농장, 딸기농장, 진원 반디길 등 협력농장 농업활동 등	▪ 무주군마을공동체지원센터(프로그램 개발, 기획, 관리 지원 등) ▪ 무주교육지원청(특수교육지원센터, 일반/장애학생/전문가연계) ▪ 한국원예치료복지협회전북지부(농가교육 및 전문가 자문) ▪ 무주교육공동체(사회적 농업 홍보 및 프로그램 참여) ▪ 무주군사회복지협의회(대상자발굴, 전문가연계 등) ▪ 무주종합복지관(성인 장애인 참여 및 관리 등)
선거웰빙푸드 영농조합법인	교육 돌봄 고용	독거노인	독거노인 농업활동	▪ 농업활동 안전교육 및 원예작물 재배 일거리 나눔	▪ 여성쉼터,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정/성폭력 피해자 대상 및 차량 지원 등) ▪ 임실시니어클럽(독거노인연계, 건강 체크 관리 등) ▪ 임실마을가꾸기협의회(산양목작 연계추진)
		범죄피해자	범죄피해자 농업활동	▪ 농업활동 안전교육 및 원예작물 재배 일거리 나눔	
		노인, 범죄피해자	원예치료	▪ 원예치료사자격증 교육 및 지역노인정 순회 교육	
		독거노인	치매 및 정서지원 문해교육	▪ 지역독거노인 대상 문해교육 및 치매예방/정서지원	
		청년	청년 공동활동	▪ 마을입구 꽃밭 가꾸기 활동, 원예치료 및 보존화, 공동수확	
야호해남 영농조합법인	교육 고용	귀농인, 해외이주민	농사활동 협업, 농가방문 (체험, 수확, 요리) 농업활동 및 카페, 화원, 제빵 등 다양한 경험		▪ 해남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 해남교육지원청 ▪ 해남사회적기업협동조합 ▪ 해남자활 ▪ 해남신활력사업추진단
		귀농인, 해외이주민	체험지도자 양성		
		해외이주민, 아동/청소년	공유 놀이터 프로그램	▪ 푸드트럭 활용, 요리와 인문학 콘서트 등	
		–	사회적 농업 콘테스트	▪ 돌봄과 자립 활동 인력 발굴	
완주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교육 돌봄 고용	성인장애인, 지체장애인	장애인프로그램	▪ 은혜의 동산, 완주군 평생교육 아카데미와 협력 ▪ 치유(원예,요리), 농작물 재배활동	▪ 평치두레농장(고령농과 귀농인 협력 로컬푸드 농산물 재배) ▪ 소양인덕두레농장(고령농과 귀농입 협력 로컬푸드 농산물 재배) ▪ 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 ▪ 이랑협동조합(발달지연 아동치료사업, 다문화, 장애학생 문화교육 사업) ▪ 청년협업농장(청년 공동농업 활동) ▪ 온누리살이사회적협동조합(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교육) ▪ 고산풀뿌리교육네트워크(지역교육 프로그램 실현)
		독거노인	독거노인 돌봄, 치유	▪ 지역내 독거노인 대상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 실시 (완주군 독거노인생활관리사 24명 협력)	
		귀농귀촌가족	초보(가족)농 프로그램	▪ 귀농귀촌자, 초보농, 가족농 대상 농업기술 전수, 지역사회 이해 증진	
		아동, 가족	어린이 농부교실	▪ 가족과 함께하는 텃밭 가꾸기 등	

농장명	활동유형	활동내용(2020년초 사업계획서 기준)			네트워크
		대상유형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내용	기관단체명(협력 분야)
					▪ 씨앗받는농부, 경천오복두레농장, 세상을 바꾸는 밥상 등
화탑 영농조합법인	교육 고용	고령자, 지적장애학생	허브테라피 강사 양성 교육	▪ 허브가든 중심 허브원예치료, 허브상품만들기, 허브아로마테라피 등 허브 상품을 만들어 보고 반복적 훈련을 통해 강사 양성	▪ 전라남도 장애인종합복지관(복지관 소속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 진행) ▪ 세지면부녀회(지역주민 참여유도, 홍보활동 등) ▪ 나주시로컬푸드직매장(생산제품 판매 지원) ▪ 세지면보건소(프로그램 홍보 및 정보 제공, 참여자 안전 관리) ▪ 장애아동학교(덕수, 이화) ▪ 아뜰리에이화(소외계층 고용 및 일자리 제공, 프로그램 진행 시 제품 구매)
		고령자, 지적장애학생	가든플래너 양성 교육	▪ 전문적 식물 재배관리, 식물 식재 및 설계, 식물 종 다양성 관리 등	
		고령자, 장애인	허브치유가든 선물가게 부스운영 및 진로교육		
		전체	사회적농업 팜파티		
항꾸네협동조합	교육	귀농희망청년	농사 및 생태환경	▪ 농사 교육 이론, 실습, 농자재 교육 및 숲 탐방 등	▪ 곡성뚝방마켓, 구례콩장, 순천숲틈시장, 장흥마실장 ▪ 항꾸네협동조합꾸러미회원 ▪ 전국귀농운동본부
			농촌생활기술 워크숍	▪ 농막짓기, 용접/난로만들기 등 농촌생활 기술 실습	
키울협동조합	교육	발달장애아동	돌봄, 치유농장 운영	▪ 발달장애이 가족 주말 치유농장(노인멘토) ▪ 공동체놀이, 원예 치유 만들기 프로그램(이랑협동조합협력) ▪ 사회적 농장 식재료 이용 요리 교실	▪ 비봉 평치 두레농장(발달장애아 가족 농장 운영) ▪ 이랑협동조합(치유 대상자 선정 및 연계) ▪ 씨앗문화협동조합(지역자원, 지역살이 탐방) ▪ 지역아동센터, 보건소 등 다수
		장애인 가족, 지역주민 등	장애인 가족 네트워크 구축	▪ 장애인-비장애인 인식 개선 ▪ 프로그램진행 및 어울림, 역량강화	
농업회사법인 우리들의 정원	교육 고용	장애인	생산/가공/판매 장기 프로젝트	▪ 장애인 대상 허브 및 고구마 재배, 가공 학습, 기술 및 체험교육	▪ 장애인 복지시설(훈훈한 집, 맑은 집, 꿈마루 협동조합, 밝은 집 등) ▪ 초/중학교 특수반(부송중, 금마초, 오산초, 중앙초) ▪ 원광대 원예학과, 농수산대, 전북대 ▪ 지역농가(낭산다례원, 미륵사지자연학교, 옥수도예, 미륵사지야생화, 염소농장)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대상 원예치료	▪ 장애인 복지시설과 협력, 원예프로그램 진행	
		영유아 장애아동	영유아 장애아동 고구마 관련 프로그램	▪ 고구마 심고 수확 체험 및 재배과정 습득	
		청소년 장애아동	가족 텃밭만들기 프로그램 진행	▪ 가족 텃밭 만들기 프로그램 진행	
		청년 장애인	허브 프로그램 진행	▪ 다년생 라벤더 파종 및 재배, 수확/가공 방법 습득	
		청년, 장애인	허브 테마 농업프로그램 진행	▪ 허브 제품 만들기 등 진행, 정원 가꾸기, 플리마켓 등	
농업회사법인 옐로우창농	교육 돌봄 고용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농업현장 프로그램 활동	▪ 장성군 청소년 상담센터 청소년 대상 ▪ 과수, 채소, 식량작물 협력농장 재배 활동 실시, 팜파티	▪ 장성청소년상담센터(청소년 관리 및 지도) ▪ 아이소라체험놀이교육원(농장 프로그램 실습 및 개발) ▪ 퍼니팜스(농촌 자원 활용 전문가 육성) ▪ 행복을팜농장(농산물 가공 및 판매 방법)
청송해뜨는농장 농업회사법인 (주)	교육 고용	귀농희망청년	청춘상상랩 수익모델 활성화	▪ 수익모델 및 공동체 활성화 모델 구체화, 상품 브랜딩 등	▪ 경북대 영농창업특성화사업단 ▪ 창양리새마을회, 현동면보육센터, 가원마을 경로당 ▪ 청송군교육지원청, 문화센터보건소 등
		귀농희망청년	슬기로운 농장생활	▪ 과수원 실습, 농촌일상 체험 등	
금곡 영농조합법인	돌봄	정신장애인	성인장애인 대상 농업 및 노작활동	▪ 텃밭 활동, 직업재활 및 외부활동 등 ▪ 지역 정신장애인 고용(농장보조활동)	▪ 주간장애인보호시설(한우리, 햇살), 장애인 거주시설(우리집) ▪ 울산농업기술센터 ▪ 울주군장애인복지관,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고령노인	영농 및 노작, 고용활동	▪ 마을어르신 영농 및 고용활동 ▪ 텃밭 및 농장관리, 체험방문객 보조 활동가	
수승대발효마을 영농조합법인	교육 돌봄 고용 기타	발달장애인	발달장애인 농업활동	▪ 농장내 시설 이용한 원예 및 감성치유 프로그램	▪ 거창군 지역자활센터(차장위계층 대상 프로그램 연계) ▪ 귀농학교(발효학교 운영 지원) ▪ 청소년지원센터(커리큘럼공동발굴 및 지원) ▪ 해월복지관, 엘림, 효주간보호센터 ▪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청소년	방과후 청소년 농업활동	▪ 청소년과 함께하는 자연생태 체험 운영 ▪ 청소년 및 가족과 함께하는 가족건강 회복 프로그램	
		주간보호센터 노인	비건베이커리 프로그램	▪ 주간보호센터 어르신 대상 건강유지 프로그램	

농장명	활동유형	활동내용(2020년초 사업계획서 기준)			네트워크
		대상유형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내용	기관단체명(협력 분야)
		주간보호센터 노인	텃밭요리프로그램	▪ 주간보호센터 어르신 대상 건강유지 프로그램	
		귀농(희망)자	귀농장학교 프로그램	▪ 거창, 부산 귀농학교 장학교 프로그램	
		지역자활센터	장학교	▪ 거창지역자활센터 대상 장학교	
영농조합법인 바람햇살농장	교육 고용 돌봄	발달장애인	발달장애인 대상 농업관련 직업 재활	▪ 작물재배활동(재배, 수확, 가공, 판매)농업관련 창업 및 자립생활 등	▪ 경산 및 대구지역 발달장애인관련기관, 대구청소년자립센터, ▪ 경산지역양로원원, 보건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경산중앙병원, 대구가톨릭대학교
		청소년자립 생활관	청소년 대상 농업관련 직업 자립 생활	▪ 작물재배활동(재배, 수확, 판매)농업관련 창업 및 자립생활 등	
		경증치매환자	농장형 웰니스	▪ 농작물을 이용한 다양한 테라피 프로그램(4종)	
		코로나19로 인하여 정신적 치유가 필요한 경산시민 및 직장인 (코로나로 인하여 어르신치매경증환자 프로그램 진행이 어려 울 경우 진행 함)	농장형 웰니스	▪ 농작물을 이용한 각종 테라피(4종)	
호미랑 농업회사법인	돌봄 기타	장애인	장애인 재활 프로그램	▪ 함양군 장애인센터, 시설노인 단체와 원예농업활동 프로그램 ▪ 사회적 기능을 돕거나 강화하는 농업 프로그램으로구성 ▪ 직거래 장터 운영 등	▪ 함양군 지역아동센터, 함양군 장애인센터, ▪ 함양군교육지원청, ▪ 함양군자활센터, 함양군노인회, 함양군지곡면개평마을노모회, 함양군지곡면노인회
		노인, 장애인	장애인센터, 노인요양시설 농업 활동	▪ 협약단체 참여 식물재배 및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	
농업회사법인 밥상살림 '담을밭'	교육	지역농업인	농장조성 및 전문가 양성과정	▪ 친환경 농업 실천 농민 중심 사회적 농업 촉진자 그룹 형성	▪ 제주동부종합사회복지관(지역 아동, 주민 교육 프로그램) ▪ 제주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치유프로그램 및 시설활용 등) ▪ 한 살림생협(생산물 공급 및 도시민연대사업) ▪ 제주생태유아공동체 ▪ 제주어린이집연합회 ▪ 비자림유스호스텔/비자숲 ▪ 제주동부기술센터
		귀농귀촌 희망자	교육 및 연대망 구축	▪ 한살림조합원 대상 제주 귀농귀촌 희망자 모집 ▪ 영농실습, 시범 프로그램 운영 등 정착 지원	
협동조합 행복농장	고용	정신장애인 (성인만성)	(성인)자연구시/4박5일	▪ 충남 및 서울 만성정신질환자 대상 농부학교 프로그램 운영 ▪ 숙박교육, 일상농업활동, 농촌마을 이해	▪ 충남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참가자 모집/선정, 돌봄 프로그램 실행) ▪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참가자모집/선정, 돌봄프로그램 실행) ▪ 협동조합젊은협업농장(프로그램 공동진행) ▪ 오누이친환경마을협동조합(공간제공 및 행정지원) ▪ 장곡초등학교, 금마중학교, 행복한우리동네의원, 홍성유기농영농조합 등
		정신장애인 (성인만성)	(성인)일일자연구시	▪ 홍성군내 만성정신질환자 대상 농부학교 프로그램 운영 ▪ 계절별 농업활동, 시내버스 이용 등 일상생활 연계	
		성인발달장애인 및 정신장애인	(성인)커뮤니티케어	▪ 마을내 성인 발달장애 및 정신장애 대상 마을돌봄 프로그램 운영, 약물관리 등 일상돌봄, 요리활동 등	
자연과 함께하는 농장	교육 돌봄 고용	정신장애인/ 아동/청소년	사회적 치유 농업 실천 프로그램, 농예일치프로그램, 찾아가는농촌체험, 도시농업프로그램	1. 원예/동물 치유, 녹색 돌봄, 자연생태체험, 가족건강회복 등 2. 정신장애인돌봄, 교육, 고용, 직업 재활 프로그램 운영 3. 화성시 관내 초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농촌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	▪ 함께하는정신건강의학과의원(참가자 모집 및 선정/돌봄 프로그램 실행/교육프로그램지원/시설 업무 지원/사례관리) ▪ 수원여대식품영양학과(교육프로그램지원) ▪ 화성시토종씨앗도서관(프로그램지원)

농장명	활동유형	활동내용(2020년초 사업계획서 기준)			네트워크
		대상유형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내용	기관단체명(협력 분야)
			함께마을만들기	4. 건강한 농촌 공동체를 위한 어르신 뇌 건강 프로그램 운영 등	▪ 화성시로컬푸드(생산품판매지원) ▪ 자연누리협동조합(교육프로그램지원) ▪ 마음샘정신재활센터(참가자모집) ▪ 신구대원예학과(교육프로그램지원) ▪ 을지대학교산학협력단(자원봉사지원) ▪ 한일농업농촌문화연구소한국측대표현의송(농촌복지자문위원) ▪ 화성시정신건강복지센터봉담지소,이음과배움,성문밖학교등
농업회사법인㈜ 콩세알	교육	정신장애인	콩세알 농사학교	▪ 강화군내 정신장애인 대상 농업활동체험 및 사회생활 경험 ▪ 일부 농장 직접 고용 목표(22년부터)	▪ 강화군 정신건강복지센터(장애인 활동 진행, 출퇴근, 사례관리 등) ▪ 강화지역자활센터, 강화교육지원청
		장애/비장애 가족	콩세알 가족농장	▪ 강화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연계 텃밭농사, 벼농사, 고구마 농사 프로그램 운영	
		고령인, 귀농귀촌인	고령농업인 및 귀농귀촌인 농업 활동	▪ 농기계 작업 지원 등	
㈜손수레	교육 고용	발달장애인	발달장애인 대상 농업 활동	▪ 한국자폐인사랑협회 직거래 및 체험용 다양한 작물 재배 활동	▪ 한국자폐인사랑협회 대전지부(발달장애인 연계, 농업활동 진행) ▪ 벧엘의집(노숙인대상자활농장운영지도) ▪ 관저종합사회복지관 ▪ 인터플레이, 숲엔생태놀이연구소, 추자나무목공협동조합, 녹색리듬
		고령자, 아동	고령자 대상 농업 활동	▪ 사회복지관 고령인과 아동 1:1 매칭, 텃밭 가꾸기 프로그램	
		일반인 등	농장 치유프로그램 운영	▪ 농업활동 포함 다양한 활동으로 치유농장 운영	
농업회사법인 공주 아띠	교육 고용 기타	발달장애인, 부모	발달장애인 대상 농업활동	▪ 복지관 소속 장애인 및 부모 대상 작물 체험, 가공 체험 등	▪ 공주 장애인 복지관(소속 장애인 연계, 출퇴근, 사례관리 등) ▪ 대전교구카톨릭발달장애인부모회(심리 상담 교육 및 농업 활동 연계) ▪ 공주장애인복지관부모회(심리 상담 교육 및 농업 활동 연계) ▪ 세종장애인복지관, 공주대 특수교육 및 사회복지학과, 대전장애인성폭력상담소 등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치유 활동	▪ 농작물 재배활동 통한 심신 안정, 심리상담 전문가 프로그램 운영 등	
		다문화 가족	다문화 가족 농업 및 치유	▪ 다문화 가정 이주여성 및 자녀 지역사회 편견 해소 교육, 정원 치유 프로그램	
농업회사법인 청양푸드	교육	발달장애인	발달 장애인 대상 농업활동	▪ 청양군 발달장애인 부모회와 연계 토종작물 재배 및 절기별 작물 파종, 모종 만들어 심기, 음식 만들기	▪ 충남서부장애인복지관(장애인 농업활동 연계, 출퇴근 및 보조, 사례관리) ▪ 농촌문화체험연구회(청양군 발달 장애인 대상 농업 활동 연계)

4. 외국의 지역사회-기반 사회적 농업 사례

4.1. 아일랜드의 사회적 농업 지원 체계와 지역사회-기반 사회적 농업 사례(케리 카운티)

○ 아일랜드는 유럽 국가들 중에서 사회적 농업의 중간 주자에 속한다.[5] 하지만 사회적 농업의 '사회적' 측면, 특히 지역사회의 사회자본을 중시하는 스타일로 사회적 농업 실천을 전개하고 있으며, 민간부문의 조력기구(LDC)들이 정부와 긴밀한 파트너십 하에 사회적 농업 실천에 조력하고 있어 눈에 띈다.

○ 아일랜드에서 사회적 농장은 대체로 전문화된 농장도 치료농장treatment farm도 아니다(독일이나 네덜란드 같은 곳에서는 전문화된 치료농장이나 사회복지시설(주간보호센터, 보호작업장)의 형태로 사회적 농장들이 형성된 경우도 있다).

- 아일랜드의 사회적 농장들은 의학적 치료 환경이라고는 볼 수 없는 평범한 환경에서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전형적인 '일하는 농장'이다.
- 대부분 중소 규모의 가족농이며 복합영농을 하는데, 날이 갈수로 다양한 유형의 농장들이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아주 작은 규모의 원예 농장에서부터 십만 평이 넘는 면적의 농경지를 지닌 대형 농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승마, 채소원예, 화훼, 산림경영에 이르기까지 각기 다양하게 전문화된 농장들도 일부 있다.

○ 그런 배경에서, 아일랜드의 사회적 농업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농장에 배치하여 특별히 초점을 맞춘 성과를 얻을 수 있게 지원한다. 이때 지역의 사람들, 장소, 이러저러한 활동들, 지역사회 등 자연적으로 형성된 지역 자산을 활용하여 사회적 농업 참여자 스스로 선택한 목표들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돕는다. 농장이 지닌 자연 환경 안에서 참여자가 농민과 그 농가 구성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활동에 기초하는데, 두 가지 다른 핵심 요소를 지니고 있다. 하나는 소중하고 의미있는 활동을 수행한다는 점이며, 다른 하나는 사회적 연결과 관계를 발전시킨다는 점이다.

○ 그만큼 아일랜드에서 사회적 농업은 상대적으로 새로운 개념이자 실천이다. 그러나 사회적 농장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다양해지고 있다. 국가 및 광역지역 수준의 관계자 네트워크도 확장되고 공고해지고 있다.

---

5) 유럽의 맥락에서 보자면 사회적 농업은 돌봄농업care farming, 건강을 위한 농업farming for health, 녹색돌봄green care 등 여러 종류의 명칭으로 알려지기도 했는데, 지난 수십 년 동안 진행된 유럽 국가들마다 그 발전 수준은 상당히 차이가 난다. 네덜란드, 노르웨이, 이탈리아 등은 사회적 농업 발전 상위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간주된다. 프랑스, 핀란드, 독일, 영국 같은 나라들이 중위 수준이며, 아일랜드는 초기 단계와 중위 수준의 중간쯤에 위치한 것으로 평가된다.

사회적 농업-아일랜드(Social Farming Ireland, SoFI)

SoFI는 아일랜드 정부가 지정한 '국가 사회적 농업 사무국'이다. 농식품해양부(Department of Agriculture Food and the Marine, DAFM)로부터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 동안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기로 계약하여 일하고 있다. CEDRA[6](Commission for the Economic Development of Rural Affairs)의 '혁신발전기금'으로 운영되며, 국가 수준에서 사회적 농업을 발전시키는 임무를 수행한다. '레이트림통합발전회사(Leitrim Integrated Development Company, LIDC)'에 토대를 두고 있으며, 국가 수준의 사회적 농업 네트워크 발전과 지역개발담당 관료들이 속한 지역의 파트너조직들과 함께 근거-기반 연구 과제를 지원한다.

SoFI는 국가 수준에서 사회적 농업의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와 사업들을 제공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사회적 농업에 관한 정보 확산, 사회적 농업을 실천할 농업인 교육훈련 및 육성, 보건·사회적 돌봄·기타 서비스 기관들과 협력하여 사회적 농장 활동을 활성화하기, 근거-기반 연구 활동, 정책 개발 등.

SoFI의 활동과 진화에는 두 개의 핵심 위원회가 관여한다. 하나는 '국가조정위원회'인데, SoFI 지원 사무국팀의 국가 프로젝트 관리자, 국가 프로젝트 코디네이터, 파트너십을 형성한 지역발전회사 대표자, 각 지역의 지역개발 담당 관료, 학계 인사 등으로 구성된다. 이 위원회는 격월로 모여 포럼을 운영한다. 두번째 위원회는 '국가자문위원회'다. 이 위원회는 연 2회 소집되며 보다 광범위한 전문적 정보를 수집하고 논의한다. LIDC, 더블린 대학, 파트너십을 형성한 지역발전회사, 서비스 공급자, 참여자, 사회적 농장의 농업인, 구제 수준의 사회적 농업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 아일랜드에서 사회적 농업 실천이 최근 들어 발전하게 된 것은 '사회통합(Social Inclusion, SI) 정책'과 '지역사회/농촌 발전(Community/Rural Development, CD) 정책' 분야에서 활동하는 지역발전회사Local Develpment Companies[7]의 직원들 다수가 사회적 농업 정책을 준비하는 측으로부터의 요청에 충실하게 응답했기 때문이다. 사회통합에 대한 강조는 과거의 사회통합 정책 프로그램(특히, 지역발전사회통합프로그램(Local Development Social Inclusion Programme, LDSIP))에서 비롯된 것인데, 그 정책에서는 중소 농가들이 공식적인 대상이었다.

○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루어진 아일랜드 사회적 농업의 특별한 발전과 관심 증대 이면에는, 여러 개의 정부 정책과 제도 들이 서로 연계되면서 변화한 것이 동력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그런 정책 및 제도 변화는 보건, 사회적 돌봄, 사회통합 등의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실천을 더욱 촉진하는 방향을 흐르는 것이었다. 그런 방향 변화의 예로는 장애인 사회복지 모델의 등장, 정신보건 정책 및 지역사회 안에서의 회복을 위한 실천에 대한 강조, 정신적 웰빙에 관한 보다 총체적인 접근방법에 대한 강조, 대부분의 사회통합 정책에서 개인의 욕구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는 접근방법을 채택하는 경우의 증가 등을 들 수 있다.

6) 아일랜드의 환경·지역사회·지방정부부 장관이 주관하는 위원회다. 아일랜드 농촌에서 고용 창출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기 위해 창설한 위원회다.
7) 일종의 사회적 기업으로서 한국의 마을만들기지원센터 같은 중간지원조직들이 수행하는 것과 비슷한 기능을 한다.

사회통합 및 지역사회 활성화 프로그램(SICAP)

SICAP(2018-2022)은 불리한 여건에 있는 개인들, 지역사회 조직, 공공기관 등의 주체들이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지방 수준에서 서로 관여하는 구조를 갖춤으로써 빈곤과 사회적 배제에 대응하도록 자금을 지원한다. 아일랜드 정부가 농촌·지역사회발전부(Departiment of Rural and Community Development, DRCD)를 통해 유럽연합의 사회기금으로 운영되는 '고용·통합·학습 프로그램'의 자금을 지원받아 수행한다. 지방에서 활동하는 33개의 로컬지역사회발전위원회(Local Community Development Committees, LCDCs)가 SICAP을 감독한다. SICAP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실행 기관이라고도 하는 지역발전회사LDC들을 통해 추진된다. LDC들은 주변화된 지역사회들과 함께 일하며, 다양한 목표 집단 및 서비스 제공자들과 함께 일하는데, 이때 사람들의 생활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사회개발 접근방법을 취한다. SICAP을 불리한 여건에 있는 지역사회 및 개인을 지원한다. 불리한 여건에 있는 개인이라 함은 실업자, 한계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자애인, 한부모 가정, 저소득층 등을 말한다.

사회적 농업과 관련해서는, SICAP의 '목표 2'가 깊은 연관을 지닌다. 이 목표는 '평생학습 및 노동시장 지원을 통해 불리한 여건에 있는 개인들을 지원하여 삶의 질을 향상한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거나 직업기술을 향상시키도록 돕은 일련의 지원 프로그램이 전형적이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추진된 제1차 SICAP에서는 약 11만 명의 개인들을 대상으로 일대일 기반 지원 활동을 실행하였다. SICAP 안에는 여러 개의 주제 영역이 있는데, 사회적 농업은 2차 SICAP에서 새로운 고객을 대상으로 긍정적인 결과물을 낳을 것으로 기대된다.

○ 현장에서는, 특히 아일랜드 공화국의 접경 지대에서 주로, 사회적 농업 활동이 최근 2년 동안 급속하게 늘어났다. SFI를 통해 전국 11개의 카운티들에서 활동하는 28개 농장에서 120명의 참여자, 총 1,700일 동안의 참여가 있었다. 2018년에는 22개 카운티, 약 300명의 참여자, 2,600일의 기록을 남길 것으로 예상된다.

- 현재 활동적인 사회적 농업 실천 주체가 되려고 여러 단계의 학습 과정을 밟으면서 훈련 프로그램을 받는 농민이 약 60명이며, 훈련을 받고 실제로 활동하는 농민도 거의 60명에 달한다. 아일랜드의 카운티는 모두 26개인데, 그중 25개의 카운티에 SFI를 통해 훈련을 받은 사회적 농업인이 1명 이상 있으며, 서비스 측면에서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활용 가능한 농장을 늘리려는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 사회적 농업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일하는 사회서비스 기관 또는 단체의 수가 늘고 그 범위도 확대되고 있다. 현재는 각종 자선단체나 재활돌봄 기관, 지역의 지적장애인 지원 기관, 정신보건 관련 기관, 캠프힐 공동체, 보건복지부 장애인 담당 부서, 아일랜드 다운증후군 단체, 지역발전회사, 사회통합 및 지역사회 활성화 프로그램(Social Inclusion and Community Activation Programme, SICAP) 수행 기관 등이 관계를 맺고 있다.
- SFI의 활동과 노력을 통해 약 7만 5,000유로의 자금이 조성되었고, 여기에 다양한 기관들이 대응투자(matching)를 하고 있다. 그리고 아일랜드 보건기금으로부터 4만 유로의 자금이 지원되었고, SICAP 프로그램으로부터 7,000 유로의 자금이 사회적 농장에 직접 전달되었다.

○ 아일랜드에서 발전해 온 사회적 농업 모델은 여러 개의 핵심 가치에 바탕을 둔다. 근본적으로는 개인-중심적이고 개별화된 사회적 농업을 지향한다. 이는 참여자들이 평범한 가종농 농장에서 시간을 보냄으로써 자신의 목표를 충족시킬 수 있는 혁신적이고 새로운 기회와 선택지를 제공하는 데 크게 중점을 둔다.

- 참여자들에게 생활을 향상시키는 긍정적 결과를 다양하게 달성하는 것에 목표를 둔다는 점에서 진보적인 사회적 농업을 지향한다. 타인 및 자연환경과의 자연스러운 연결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에 초점을 맞춘다.
- 아일랜드의 모든 카운티에서 사회적 농업이 발전하면서, 지금은 분산된 전문기관이나 의료기관 환경이 아니라 지역사회 안에서 사회통합의 접근가능한 실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 높은 수준의 지지를 보장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중요하다. SoFI가 제공하는 사회적 농업 실천의 바탕에는 엄격한 거버넌스 체계와 과정이 있어서 참여자, 옹호자, 사회서비스 당국, 법정 관리 당국 등에게 일정한 보증을 제공한다. 그것은 사회적 농장에 참여자가 배치되어 경험하는 것들이 소중하고, 즐겁고, 안전하다는 점이다.

<지역사회 기반 사회적 농업 시범 프로젝트 _Kerry Social Farming>

○ 아일랜드의 케리 카운티 인구는 약 15만 명이다. 2013년에 장애인 가족, 농업인, 복지서비스 제공자, 지역사회 개발 조직(community development organization), 그리고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케리 사회적 농업 시범 프로젝트'를 기획할 작업반을 구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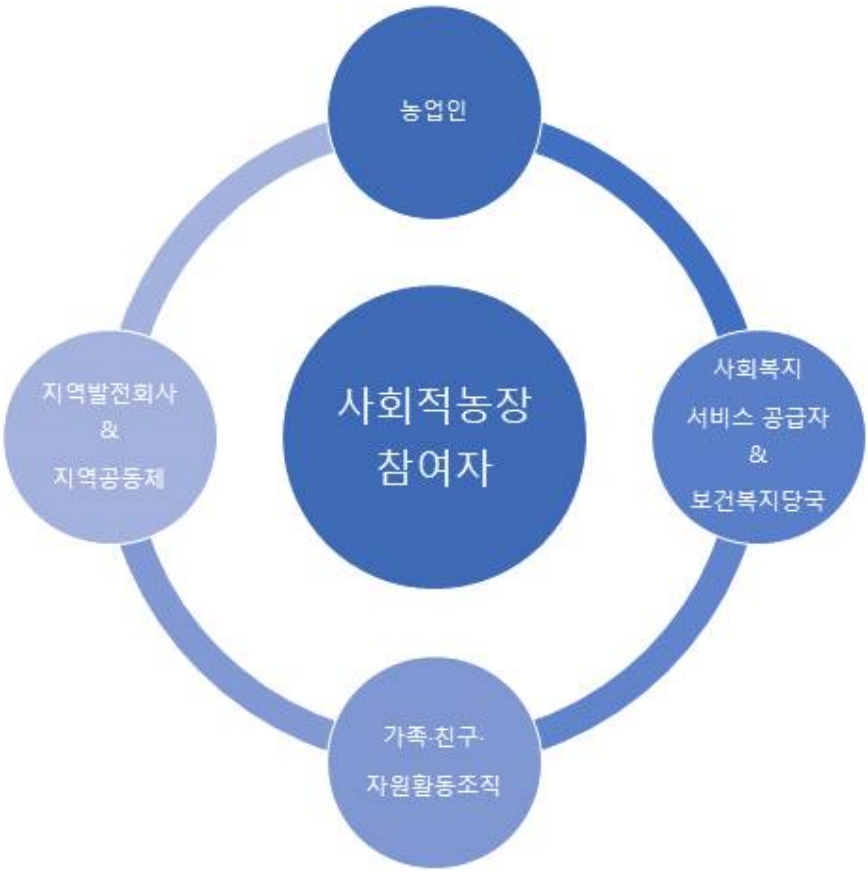
- 6개월 동안 계획을 수립하면서, 작업반 구성원들은 유럽연합이 주관하여 타 지역에서 열리는 사회적 농업 사업 대상지를 방문해 컨퍼런스에 참여하고, 사회적 농장들을 찾아가 여러 종류의 모델을 학습했다. 케리 카운티의 상황에 적합한 스타일을 계획하기 위한 작업이었다.

○ 케리 사회적 농업은 자원봉사에 기초하며 지역사회에 바탕을 둔 서비스로서,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영농활동에 참여하고 사회적 포용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한다.

- 비전: 장애인과 함께 지역사회 안에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보다 더 큰 포용을 이루며, 삶의 질을 향상한다.
- 미션: 지역사회 안에 돌봄 서비스 제공자, 장애인, 지역사회 주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동하는 조직(중간지원조직), 중앙 및 지방정부, 사업체들, 농민 조직, 농가들 등이 협업하여 케리 카운티에서 사회적 농업을 발전시키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 이 같은 계획하에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그 내용은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의 일상적인 환경에서 보통 사람들(농민)의 실제 삶에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같은 활동을 돕기 위한 외곽의 지원 네트워크를 아래의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구성하였다.

그림 3 케리 사회적 농업 프로젝트의 외곽 지원 네트워크 구조



○ 카운티 내에서 30여 명의 성인 발달장애인들이 사회적 농업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했고(participants), 이들을 맞이하여 영농활동을 함께할 농가 11가구가 자원하였다(host farmer).

- 참여자 개인의 욕구나 상황에 따라, 각자 매칭된 농가에 주 1~5회 방문하여 농업을 배우고, 농작업에 가능한 한 참여하였다. 즉, 농가마다 1~3명의 장애인이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셈이다.
- 프로젝트를 시작한 지 3년차인 2017년에는 아일랜드 정부로부터 지원금(인건비)을 받아 상임 사회적 농업 퍼실리테이터를 고용하였다.
- 참여자가 사회적 농장에 처음 올 때에는 사회복지 기관의 지원 활동가가 동반한다. 지원활동가는 참여자와 농업인 곁에서 돌봄 전문가로서 농업인에게 돌봄 활동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 등을 일러준다. 가령,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들과 함께 작업하고 의사소통하는 방법에 관해 조언한다. 참여자가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학습 경험에 잘 적응할 수 있게 돕는다.
- 참여자들은 대부분 지원활동가의 도움 없이 사회적 농장을 방문하지만, 직무(농작업)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한 도움이 필요하다.

○ 케리 사회적 농업 시범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아일랜드 정부의 국고 보조를 받은 연구진이 3년 간에 걸쳐 면밀하게 관찰하고 조사하고 분석하는 평가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평가보고서에서 제안하는 주요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참여자에 대한 투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더욱더 참여자 개인의 욕구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가령, 참여자가 어느 사회적 농장으로 갈 것인지 또는 가지 않을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런 결정의 배경에는 참여자 개인의 계획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정부가 사회복지 부문의 자금 지원을 개인예산제 형태로 전환한다면, 개인의 욕구를 더욱 배려하는 방식의 접근방법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사회적 농장의 농업인과 참여자 모두에게 교육훈련의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해야 한다. 농업인과 참여자 모두가 요청한 사항이다. 농업인들은 대체로 처음부터 네덜란드나 노르웨이 같은 곳에 견학을 가서 학습한 경험이 있는 상태이기는 했지만, 더 많은 학습욕구를 지니고 있었다. 시범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동안 SKDP(남부 케리 카운티 마을만들기 지원센터)가 주관하는 교육훈련과 안내를 받았고, 지원 활동가들이 도움을 주기도 하였다. 그러나 농업인들은 실행학습(learning by doing)이 아주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 모니터링과 평가 과정을 개선해야 한다. 참여자가 농장에서 수행한 활동과 이룬 성취와 진보를 기록으로 남기는 임무는 농업인의 몫이다. 농업인들은 그런 기록을 유지하는 것이 이 프로젝트가 지지받고 계속 수행되게 하는 데 아주 중요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농업인들은 보다 개선된 방식의 농장활동 기록 양식이 필요하다고 요청하였다.
- 참여자의 활동 내용과 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농작업뿐만 아니라 장보러 가기, 로컬푸드 매장에서 일하기 등의 활동이 제안되었다. 이런 방식으로 사회적 농업 활동은 지역사회 내부로 조금 더 알려지고 확산될 수 있다.
-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과 농장활동 참여의 규칙을 명료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 참여자와 사회적 농장의 농업인에 대한 급여 지급 방도를 찾아야 한다. 이로써 자원봉사 모델에 기초한 케리 사회적 농업 프로젝트가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 지역사회가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구조를 유지해야 한다. 지역발전회사(LDC)의 핵심 역할이 확인되었다. 사회적 농업과 지역사회 그리고 농촌발전 사이의 긍정적 연관을 전제로, 사회적 농업을 촉진하고 지역사회에서 계속 실행되게 하려면 LDC의 역할이 계속 보장되어야 한다고 제안되었다.
- 추가적이고 지속가능한 자금 지원을 보장해야 하며, 과도한 규제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 SFI와 지방의회로부터의 지지를 확보해야 한다.
- 케리 사회적 농업 퍼실리테이터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 프로젝트에 상근하는 퍼실리테이터의 핵심 역할이 부각되었다. 퍼실리테이터는 2017년 초에 새롭게 고용된 인물이고, 새로운 지위였다. 사회적 농장의 농업인들이 특히 숙련되고 문제해결 능력이 있는 퍼실리테이터가 여러 문제들을 신속하게 처리해줄 수 있어서 소중한 존재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이 직위의 고용은 12개월 주기로 계약되는 형식이어서, 직무의 안정성이 약화되어 있으며, 퍼실리테이터 자신이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개선안이나 발전 방안을 고민할 유인이 되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3.2. 사회적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하는 이탈리아의 지역사회-기반 사회적 농업

○ 사회통합과 지역발전의 수단으로서 사회적 농업이 중요하게 인식되는 가운데 성장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가 이탈리아다. 이탈리아에서 사회적 농업은 1970년대에 기원했다.
- 이른바 '68혁명'과 여타의 지역사회 기반 운동에 토대를 두고 시작되었다.
- 특히, 1960년대와 1970년대를 관통하면서 이탈리아 여러 지역에서 진행된 정신질환자 수용시설 폐쇄 운동이 이탈리아에서 사회적 농업이 출현하는 과정과 깊은 관계가 있다. 정신과 의사 프랑코 바잘리아(F. Bagsalia)가 주도했던 정신질환자 수용시설 폐쇄 사례들에서는 의료계 인사들과 지역 주민들이 힘을 합쳐 시설을 나온 정신질환자들의 생업, 주간활동, 사회활동 등을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시작했는데, 영농을 주로 하는 사회적 협동조합들이 만들어졌다. 이것이 이탈리아에서 사회적 농업의 기원이라 할 수 있다.

○ 현재 이탈리아에서 사회적 농업은 신뢰받는 사회적 돌봄 체계의 일종으로 간주된다. 주로 사회적 협동조합 형태의 조직들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 개별 농업인이 사회적 농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 사회적 농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양하지만, 크게 두 종류의 하위 분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 고용을 지향하는 사회적 농업
- 아동 돌봄 및 교육훈련을 지향하는 사회적 농업

○ 고용을 지향하는 사회적 농업은 다양한 문제나 장애(예: 중증이 아닌 신체장애, 정신건강상의 어려움, 학습장애,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는 사람 등)를 지닌 특정한 사람들 또는 취약계층(예: 장기 실업자, 출소자, 약물중독자 등)을 대상으로 농장에서 노동통합과 사회적 포용을 추구한다.
- 이들은 원예, 포도 및 올리브 재배, 가축 사육, 농식품 가공, 농산물 직판, 농장 레스토랑 등의 일터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에 종사한다. 이런 식으로 취약한 상태에 있는 이들이 자신의 역량과 기술을 향상하고, 사회적 일상생활을 개선하며 사회와 노동시장으로 재통합될 수 있는 대안적 실천을 경험하게 된다.

○ 아동 돌봄 및 교육훈련을 지향하는 사회적 농업에는 아동이나 학생이 농장 활동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영양을 얻고 환경 교육을 받게 하는 목적의 교육이나 유연한 돌봄 활동이 포함된다.
- 이탈리아에서, 이른바 이들 '교육농장'은 최근 수년 사이에 상당히 늘어났으며 사회복지 체계에도 유의미하게 기여를 하고 있다.

○ 이탈리아에는 서비스 제공자와 수요자가 함께 모이는 사회적 농업 네트워크가 지역사회 기반으로 강력하게 형성되어 있다. 이 네트워크는 마케팅의 핵심 요소인데, 농장이 자신의 특별한 실천을 소개하는 플랫폼으로 기능하기 때문이다.

- 그리고 국가 수준에서도 사회적 농업 포럼이 있어 2011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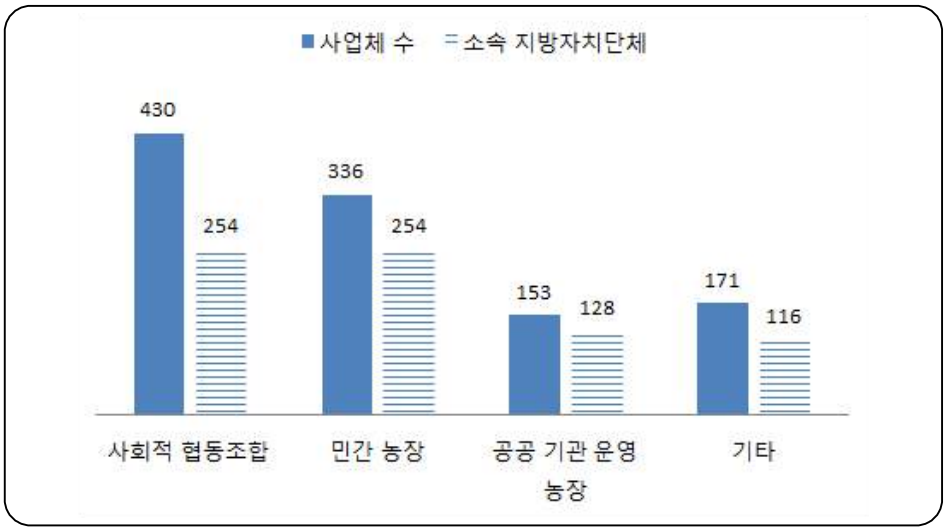
○ 1990년대 들어 이탈리아 정부는 전통적인 복지국가 개념을 탈피하고,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는 방식으로 공공 서비스 제공의 기본 방향을 전환하였다.

- 1978년 이후부터 이미 많은 지역사회 조직이 주 정부, 꼬뮤네 등의 지역 공공 기관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대다수가 협동조합 형태였다.
- 정부는 기존의 민관 협력 관계를 체계적으로 재편하고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조직의 지위와 활동을 법적으로 보장하려고 1991년에 '사회적 협동조합 법'을 제정하였다. 이때부터 많은 지역사회 조직이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등록하고, 지역 공공 기관과 공식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다.

○ 이탈리아의 '사회적 협동조합 법'에서는 사회적 협동조합을 두 유형으로 구분한다.

- 돌봄과 교육 서비스(재가 복지, 주간보호센터, 요양 시설, 아동 돌봄 시설 등)를 제공하는 A유형과 농업·제조업·상업·서비스업 등의 각종 사업을 하면서 취약 계층을 고용하고 이들의 노동 통합을 지원하는 B유형이 있다.
- B유형은 경관 및 공공시설 관리 등의 공공 일자리 분야에도 우선권을 가지고 참여한다. 사회적 협동조합 A유형의 조합원은 돌봄 및 교육 전문가 직원, 자원 봉사자, 서비스 수혜자로 구성된다. 사회적 협동조합 B 유형은 일반 직원, 취약 계층 직원, 자원봉사자, 이용자 등으로 구성된다. 법적으로 B유형은 전체 조합원의 30% 이상이 취약 계층이어야 하며, 자원 봉사자가 50%를 넘어서는 안 된다.
- A유형과 B유형이 혼합된 사회적 협동조합도 많으며, 지역사회 내에서 2~3개의 사회적 협동조합이 협력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용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한다.

이탈리아의 운영 조직 유형별 사회적 농장 현황(2015년 기준)



○ 사회적 농업의 실천 유형을 운영 주체와 활동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 첫 번째는 사회적 협동조합 A유형이 지역 공공 기관과 계약을 맺고 기관에서 관리하는 돌봄 서비스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다. 주로 주간보호센터와 요양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농업 자원을 활용하여 재활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직접 농장을 운영하거나 지역의 다른 농장과 협력한다.
- 두 번째는 사회적 협동조합 B유형 또는 민간 농장이 직업 재활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형태다. 지역 공공 기관에서 지정한 직업 재활 치료 대상자가 사회적 협동조합 B유형의 농장이나 민간 농장에 자원하여 프로그램에 참여해 일한다.
- 세 번째는 사회적 협동조합 B유형 또는 민간 농장이 직업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형태다. 이는 유럽연합에서 지원하는 정책 사업이다. 지역 공공 기관에서 지정한 대상자를 교육생으로 받는다. 교육생은 최대 2년 동안 농업 직업 교육훈련을 받는다. 돌봄 서비스, 직업 재활 치료, 직업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역 공공 기관에서 직접 농장을 운영하면서 제공하기도 한다.
- 네 번째는 사회적 협동조합 B유형 또는 민간 농장이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을 고용하여 노동 통합을 추구하는 형태다. 지역 공공 기관과 협의하여 특별 고용 계약을 맺고 임금을 지원받는다.
- 다섯 번째는 사회적 협동조합 B유형 또는 민간 농장이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는 농촌관광 사업을 하거나 농장의 일상, 건강한 먹거리, 자연 등을 주제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형태다. 주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 여섯 번째는 사회적 협동조합 A유형이 지역 공공 기관과 계약을 맺고 농업 활동을 매개로 아동 돌봄 시설을 운영하거나 재소자, 약물 중독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다.

○ 2015년 기준으로 이탈리아에서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는 사례는 1,090 개로 추정되며, 이중 사회적 협동조합이 약 40%, 민간 농장이 31%이다. 또한, CREA[8]에서 수행한 사회적 농업

실태 조사[9]에 따르면 고용을 목적으로 실천하는 사례가 7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2010년과 2015년 사이에 시작한 사례가 30%로 최근 사회적 농업 실천이 민간 농장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례: 이탈리아 사회적 협동조합: 아그리꼴뚜라 카포다르코(Agricoltura Capodarco)

사례 농장은 로마 근교에 있다. 1978년에 지역 내 장애인 복지 기관의 장애인들을 농업 활동에 고용하려는 목적으로 설립하였다. 지금은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등록하였으며 A, B 유형이 혼합된 형태다. 지역사회에서 불리한 여건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고용하고, 원예 재활 치료 프로그램 등의 돌봄 서비스도 제공한다.

직원은 농업인, 사회복지사, 정신과 의사, 원예 치료사, 요리사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며 전체 직원 수는 약 50명이다. 상주 직원이 10명이고 조합원은 38명이다. 발달 장애인, 정신질환자, 약물 중독자 등의 취약 계층도 조합원으로 등록되어 있다.

취약 계층은 농사 경험이 있거나 관련 기술이 있으면 바로 직원으로 채용되어 조합원이 된다. 그렇지 않으면 최대 2년까지 직업 연수 교육을 받아야 하며 연수생 신분으로 고용된다. 약 30명의 지역 내 청년 자원 봉사자들도 협동조합의 농업 활동과 각종 프로그램 운영을 보조한다. 농장 부지의 대부분은 국유지를 임차한 것이다. 일부 건물 및 토지는 지역의 수녀원에서 기부하였다.

농장은 채소와 과일을 주로 생산한다. 가공 시설을 갖추고 있어 와인, 올리브 오일, 꿀 등을 생산하여 판매한다. 로마 시내와 농장에 레스토랑과 식료품 가게를 직접 운영하여 소비자와 직거래가 언제든지 가능하다. 와인, 올리브 오일 등의 상품은 전문 중개인을 통해 유럽 전역으로 판매한다.

고용된 약물 중독자, 발달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의 취약 계층은 보통 농업 활동을 보조한다. 노동 역량이 부족하거나 농업 활동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레스토랑의 일을 돕는다. 지역의 다른 사회적 협동조합과 협력하여 3개의 고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조합원이 고용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다른 협동조합에 고용되어 일할 수 있다. 2008년부터는 지역 공공 기관과 계약을 맺고 원예 재활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원예, 미술, 음악, 동영상 제작 등의 활동을 제공한다. 기관에서 관리하는 발달 장애인, 약물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 12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조합원인 정신과 의사 2명과 원예 치료사 1명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자료: 2017년 2월 이탈리아 출장에서 방문한 사회적 협동조합의 경영자와의 인터뷰 결과를 정리하고, 웹사이트(www.agricolturacapodarco.it)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8) 이탈리아 중앙 정부 출연의 농업·농촌 분야 연구 기관
9) 300개의 사회적 농업 실천 사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실제 조사에 208개 사례가 응답하였다.

<이탈리아의 사회적 농업 정책 추진체계>

○ 이탈리아에서는 사회적 협동조합 관련 법제의 틀 안에서 사회적 농업을 지원한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지방정부, 지역 공공 기관 등과 협력하여 농업 활동에 취약 계층을 고용하거나 농업 자원을 활용하여 돌봄 및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제공 대가는 국가로부터 지급받고, 취약 계층 고용 시 각종 지원 및 혜택을 받기 때문에 국가의 보건복지, 고용, 교육 제도 안에서 정책 지원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 이탈리아 사회적 농업 지원 정책의 추진 체계를 이해하려면 보건복지 제도 및 정책을 먼저 살펴봐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국가 보건복지 제도의 기본 원칙과 목표를 제시한다. 자치권을 가지는 21개 지방정부가 이를 반영하여 각자의 지역 여건에 맞게 보건복지 기본 계획을 수립한다. 지역 보건 기관(ASLs: Local Health Authorities)[10]은 지방 정부의 보건복지 계획을 반영하여 보건복지 서비스 공급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시행계획에는 구체적으로 관할 구역의 보건복지 수요를 어떻게 충족할 것인가에 관한 내용이 담긴다.

○ 돌봄 서비스를 예로 들면, 지역 보건 기관은 관할 구역에서 장애인, 정신질환자,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발굴하고 관리한다. 이들의 상태나 여건을 고려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지역의 사회적 협동조합과 협의하여 돌봄 서비스 제공 계약을 체결한다. 지방 정부는 시행계획의 전반적인 내용과 예산을 지역 보건 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지방 정부로부터 보건복지 예산을 받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 사회적 협동조합에 서비스 제공 대가를 지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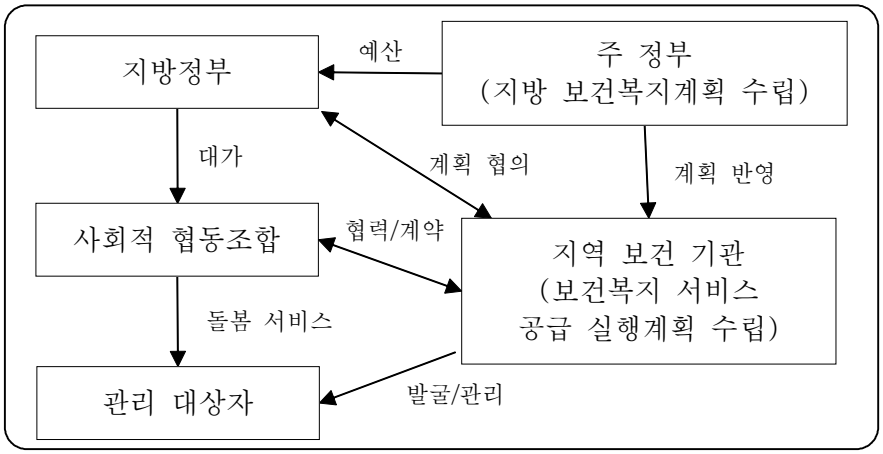
○ 사회적 농업 실천 유형별로 정책 지원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뉜다. 사회적 협동조합 A유형은 지역 보건 기관과 계약을 맺고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지방정부에서 서비스 제공 대가를 지급한다. 대가는 1인 1일 기준으로 30~70유로 수준이다. 돌봄 서비스 대상자의 상태나 서비스 이용 시간에 따라 금액에 차이가 난다. 아동 돌봄 서비스, 재소자 및 약물 중독자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관련 지역 공공 기관과 계약을 맺고 대가를 지급받는다. 사회적 협동조합 B유형과 민간 농장은 노동 통합을 목적으로 지역 보건 기관의 관리 대상자를 고용하거나 이들을 대상으로 직업 교육 및 직업 재활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취약 계층을 고용할 경우 특별 고용 계약을 맺고, 임금의 일부를 지방정부가 지원한다. 직업 재활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관리 대상자에게는 지방정부가 임금 성격의 보조금을 1달에 200유로 지급한다. 직업 교육 프로그램은 유럽 연합에서 지원하는 프로젝트이다.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민간 농장은 교육 운영 예산을 지원받으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관리 대상자는 임금 성격의 보조금을 1달에 400유로정도 받는다. 사회적 협동조합 B유형은 세제 혜택을

10) 지역에서 주민들의 보건복지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지리학적인 특성과 인구를 반영하여 설치되는 공공 행정 기관이다. 관할 구역의 보건복지 서비스 공급을 계획하고 관리한다. 2012년 기준으로 이탈리아 전역에 143개의 지역 보건 기관이 있고 그 아래에 826개 지구 사무소가 있다. 여러 지방정부를 포함하기도 하며, 1개 지구가 담당하는 주민의 인구는 평균 60,000명이다(Ferre 외, 2016).

받고 경관 및 공공시설 관리 등의 공공 일자리 분야에서도 우선 참여권을 보장받는다.

○ 사회적 농업에 대한 지원을 직접적으로 명시하는 법과 조례도 제정되었다. 21개 중 13개 주가 조례에 사회적 농업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였다. 이에 따라 주 정부에서 수립하는 보건복지 계획이나 농촌 발전 계획에 사회적 농업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시킬 수 있게 되었다. 2015년 8월에는 주 정부마다 지원 내용이 다르게 되어 있는 것을 통일하고 관련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하려고 '사회적 농업 법'을 제정하였다. 법은 사회적 농업의 정의와 범위를 제시한다. 노동 통합, 고용, 치유, 재활, 교육을 목적으로 개인, 단체, 사회적 협동조합이 수행하는 농업 활동을 사회적 농업이라고 정의하였다. 농업 관련 매출액이 30% 이상 되어야 한다. 또한 국유지 사용 우선권, 공공 조달 우선권 등의 지원 방침을 제시하며, 사회적 농업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지원 조직을 설립하여 사회적 농업 경영체 인정, 기술 지원, 교육 과정 개설, 점검·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할 것을 명시하였다.

이탈리아 사회적 협동조합과 지역 보건기관의 협력 관계



자료: Iacovo & Peroni(2006)을 참고하여 작성한 것임.

4. 시사점: 지역사회를 바탕으로, 사회적 농업 확산하기

4.1. 개요

○ 국내에서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곳들의 경험과 아일랜드 케리 카운티 시범 프로젝트의 내용을 토대로, 지역사회에 바탕을 둔 사회적 농업 추진 방안의 기초적인 윤곽을 구상할 수 있다.[11] 현재로서는 일련의 '원칙들'에 가까운 것이지만, 구체적인 내용들을 더 부가해서 완성할 뼈대가 될 수 있겠다. 그것들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1) 읍·면 혹은 시·군 단위에서 사회적 농업을 함께 실천할 여러 명의 농업인 그룹을 형성해야 한다.

(2) 이들 농업인과 사회복지기관이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같은 보건복지 분야 기관 및 단체, 그리고 참여자가 될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아동 등의 가족이나 당사자 조직, 그리고 사회적 농업 실천에 조력할 기관·단체(마을만들기지원센터, 사회적 경제 연합조직, 여성농업인센터, 주민자치회 등)이 작업반을 형성해 사회적 농업의 지역사회-기반 추진 계획을 수립한다. 계획 수립 과정에는 당연히 이들 작업반 구성원들의 '사회적 농업 학습과 교육훈련'이 동반되어야 한다.

(3) 작업반을 중심으로 관계자들 각자의 역할이 명확하게 분담된 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을 실행한다. 실행 과정에서도 사회적 농업 실천농장의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꾸준하고 실질적인 학습과 교육훈련이 필요하다. 그것에 관해서는 광역 단위의 거점농장이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주관하는 전문가 집단의 지원이 필요하다.

(4) 전국 또는 지역의의 사회적 농업 실천농장들이 함께 경험을 공유하고 학습할 수 있는 모임을 꾸준히 개최하며, 조력기관 종사자들에게도 사회적 농업에 관해 정보와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한다.

4.2. 지역사회-기반 사회적 농업의 모델

○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사회적 농업을 추진한다고 할 때 그 양상은 크게 두 종류로 전개될 수 있다. 따라서 두 종류의 모델을 제안할 수 있다.

- 지역사회 안에서 여러 사회적 농장들과 비농업 부문 행위자들이 협력 연결망을 구성한 토

---

11) 이탈리아와 같은 사회적 협동조합 모델도 실험해 볼 필요가 있으며, 그런 사례가 없지 않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정책이 이탈리아와는 매우 다르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바탕을 둔 사회적 협동조합 모델을 한국에서 사회적 농업의 주류로 자리매김하기까지는 상당한 실험과 변형과 기간이 필요할 듯하다.

대 위에서 사회적 농업을 실천한다[아일랜드 케리카운티 사례 참고].

- 농업인을 포함한 여러 분야 행위자들이 협동조직(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등)을 구성해 사회적 농장을 운영하면서 실천한다[이탈리아 사회적 협동조합 사례 참고].

○ 사회적 농업 실천 주체로서 연결망 구조

- 5개 내외의 사회적 농장(실천농장), 사회적 농장 활동 참여자 및 당사자 조직, 보건복지교육 등의 서비스 제공기관(사회복지기관, 보건의료기관, 학교 등), 상근 퍼실리테이터,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혹은 사회적경제 조직 연합체 등의 조력 기관

* 이 같은 연결망 구조 그 자체로는 행정적 또는 재정적 책임이 부여되는 단위(예: 법인)가 되기 어려우므로 참여자 중 역량이 가장 높고 리더십을 갖춘 사회적 농장 한 곳이 대표를 맡는다.

○ 협력 연결망 모델의 사회적 농업 실천 유형별 장단점

- 돌봄: 여러 사회적 농장에 참여자들이 분산 배치되는 방식이어서 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다. 지역사회 안에 거주하는 장애인, 노인, 아동 등이 정기적으로 사회적 농장을 방문하여 농장 활동에 참여한다. 그러나 농장활동 프로그램 수준을 뛰어넘는 돌봄이나 고용을 제공하는 데에는 한계가 뒤따른다.
- 고용: 경우에 따라서는 간단한 일용 농업노동의 형식으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 분산 배치의 경우 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을 살리는 모델인 만큼, 한 사회적 농장에서 장기적인 상근 농업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 농업교육: 지역사회 내에 직업훈련으로서 농업 교육을 귀농 청년, 발달장애인 등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훈련의 기능만을 수행할 수 있다. 직접 농작업의 전체 주기 모든 활동을 경험하면서 일정한 수입까지 거두는 방식의 집중적인 농업교육을 실행하기는 어려운 구조다.

○ (인적 자원 운용) 사회적 농업 실천과 관련한 전담 인력으로 상임 퍼실리테이터를 둔다. 퍼실리테이터의 역할이 결정적으로 중요할 수 있다. 퍼실리테이터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 조율: 읍/면 또는 시/군 수준에서 형성된 사회적 농업 협력 연결망 구성원들의 활동을 조율한다. 가령, 여러 유형의 장애인이나 경증치매노인을 각기 어느 사회적 농장에 배치할 것인지, 또는 배치를 어떻게 변경할 것인지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을 진행할 실무 책임을 맡는다.

▸ 참여자 관리: 여러 사회적 농장에 참여하는 장애인, 노인, 아동 등의 개인 상황을 수시로 체크하고 면담하며 관찰한다. 가령, 발달장애 청년 A씨가 사회적 농장 '갑'에 주 2회 방문하여 농장활동을 하던 중 집에서 농장 '갑'까지의 거리가 멀어 불편하다는 사실을 확인하면, 가까운 다른 사회적 농장에 연계하거나 교통수단을 마련한다.

▸ 지역사회 내에서 네트워킹 촉진: 지역사회 내 농업인, 보건복지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의 연락 창구 역할을 수행한다.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새로운 기획과 실천을 제안한다. 가령, H군 J면 소재 사회적 농장들이 의논한 수 H군의 치매안심센터와 J면 사회보장협의회 임원단을 접촉하여 J면에 거주하는 경증치매노인의 인지개선을 위한 사회적 농장 활동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수행할 수 있다.

▸ 사회적 농업 실천 확산: 지역사회 내에서 사회적 농업에 관심을 갖는 농업인을 초대해 지역에서 진행되는 사회적 농업 현황을 설명하고, '거점농장'에 연결하여 교육, 학습, 컨설팅이 이루어질 수 있게 안내한다.

○ (농업인의 역할) 지역사회 내외에 거주하는 '사회적으로 불리한 여건에 있는' 사람을 초대하여 농장활동을 매개로 돌봄, 교육, 일자리 등을 제공한다. 가령, 발달장애 초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원예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또는 경증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주간활동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보호시설에 거주하는 정신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농업 분야 인턴십 고용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도 있다. 고령 소농 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 이른바 '학교 밖 청소년'에게 주간활동프로그램이나 농업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청년 귀농인들에게 영농을 가르칠 수 있다.

○ 물적 자원 운용

- 하나의 조직이 아닌 연결망 형태의 단위이기 때문에 사회적 농업 활동과 관련된 금전적 수입과 지출의 흐름을 단일하게 유지하기 어렵다. 연결망 구성원들의 내부 논의를 거쳐, 경상비용의 부담 및 외부로부터 오는 보조금 등의 경상비 지원금 분배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 단, 상임 퍼실리테이터의 임금은 연결망 구성원들이 갹출해서 부담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거의 불가능하며, 공공부문의 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합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보건복지 서비스 등의 제공기관이 지닌 주간활동 프로그램 예산을 사회적 농장에 지불할 수도 있는데(예: 주간활동 프로그램 위탁 시행), 이때 해당 제공기관이 참여자가 방문하는 사회적 농장에 직접 지불한다. 그러나 전체 네트워크 구성원들 사이에 합의와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 (협동조합 방식) 여러 명의 농업인, 사회적 농장 활동 참여자 및 당사자 조직, 보건복지교육 등의 서비스 제공기관(사회복지기관, 보건의료기관, 학교 등), 기타 다양한 지역사회 내부의 조직 등이 출자하여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한다. 사회적 협동조합이 조직 형식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 이유는, 법률적으로 '비영리법인'의 자격을 인정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드시 사회적 협동조합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 경우에 따라서는, 조합원이 농업인들로만 구성될 경우에는 영농조합법인 등의 농업법인을 설립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그러나 가급적 비농업 부문의 행위자도 참여하는 조직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일반)협동조합이나 사회적 협동조합이 농업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농지 소유 혹은 임차 측면에서 제도적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수 있다. 이는 농업법인에 관한 중요한 법령 개정을 통해서만 완전히 해소할 수 있으므로 중장기 과제로 남게 된다. 단기적으로는 영농조합법인에 비농업행위자들이 준조합원으로 참여하거나, 비농업행위자들도 참여할 수 있는 농업회사법인으로 사회적 농업 협동조직을 구성하는 방안을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농업회사법인의 상법상 법인 형식은 주식회사보다는 유한회사의 형태로 하고 정관에 '1인1표의 원칙'을 두어 협동조합과 유사하게 민주적 운영의 원리를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이 협동조직은 구성원들이 민주적으로 의사결정한다는 원칙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혹은 정관상에 민주적 의사결정 원칙을 명시하여 조정한 농업회사법인 등이 유력한 조직 형식이 된다.

○ 지역 내의 보건복지 및 교육 관련 기관,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등의 조력 기관이 조합원으로 참여하지 않더라도 이 협동조직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

○ 협동조합 방식의 장단점

– (장점) 상대적으로 많은 인적물적 자원을 결집해 하나의 조직 단위에서 운영할 수 있으므로 효율적 관리와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해진다. 비교적 큰 규모의 사회적 농장을 갖추기에 유리하기 때문에, 고용이나 장기간의 집중적인 돌봄 서비스 제공에 유리하다. 법인격을 지니는 하나의 조직 단위여서, 외부 기관이나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공식적인 계약협약재정지원 등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 유리하다.

– (단점) 협동 조직을 설립하는 데에는 출자자들의 부담이 적지 않을 것이어서, 초기 설립 과정이 쉽게 진행되기 어렵다.

○ 인적·물적 자원 운용

– 농업활동이 여러 농업경영체가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협동 조직이 보유한 농장에서 이

루어진다는 점이 '협력 연결망 모델'과 다른 점이다.

- 물적 자원 운용 측면에서는 자산, 경상비용, 수입 등의 모든 흐름이 하나의 조직 내부에서 완결되는 구조를 갖추게 된다.

4.3. 추진 전략

○ (농촌 현장에서 사회적 농업 협력 연결망 구성을 촉진하는 포럼) 정부 지원사업만을 유일한 인센티브로 삼아 사회적 협력 연결망 구성을 촉진할 수는 없다. 농촌 현장에서 형성되어 확장되고 있는 지역사회의 자발적 결사와 다양한 협동조직 활동의 흐름과 연결하여, 민간 차원에서의 자발적인 사회적 농업 확산을 촉진하는 전략이 우선되어야 한다. 즉, 정부 지원사업을 받기 위한 서류상의 협력 연결망이 아니라, 실질적인 협력 연결망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별도의 노력이 필요하다.

▸ 기초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활동하는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사회적경제 조직 연합, 거점농장 등 조력 기관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농업인, 비농업 부문 보건·복지·교육 분야 기관, 사회적 농업 참여자 당사자 조직 및 가족 등과 간략한 '지역사회 사회적 농업 계획'을 준비하는 포럼을 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약간의 비용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 '계획'에는 사회적 농업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농업인, 농장활동 참여자, 보건복지 및 교육 서비스 제공기관 등이 분담해야 할 역할, 활동의 규모, 일정 등이 포함되게 한다.

▸ 이 '계획'을 바탕으로 정부 지원사업을 신청할 경우, 우선 선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 바람직하게는, 그 '계획'에 따라 사회적 농업 실천 프로그램을 소규모로 운영하는 파일럿 프로젝트를 실험해볼 수 있다.

▸ 예를 들어, 무주군 안성면 공동체지원센터는 사회적 농업 지원사업을 신청할 농업경영체들과 사회복지기관 등을 사전에 조직하는 활동을 수행한 바 있으며, 익산시 마을만들기지원센터도 3개의 농업경영체를 별도로 네트워킹하여 농식품부 지원사업 신청 전에 자발적인 학습 모임을 운영한 바 있다.

▸ 예를 들어, 거창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원주생명농업, 임실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강원사회적경제네트워크 등은 사회적 농장, 사회적 농업에 관심 있는 농업인, 사회복지기관 등이 모여 사회적 농업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의견을 모으는 토론회나 연속 세미나 등을 개최하였다.

▸ 타 부처가 농촌에서 추진하는 정책이나 농림축산식품부의 타 정책사업과 연계하여 사회적 농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지역에 홍보하고 권장한다. 이때, 연대해야 할 중요한 조직이나 단체가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사회적경제 조직 연합체, 주민자치회, 농업회의소 등이다.

○ (기초 수준의 역량강화 및 지식·정보 확산) 사회적 농업을 준비하는 행위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과정에 '지역사회 기반'의 관점을 강화하여 반영한다.

▸ 현재는 농정원이 위탁 공모제 형식으로 진행하는 사회적 농업 집체교육, 농식품공무원연수원에서 기획 진행하는 집체교육, 귀농귀촌종합센터에서 진행하는 사회적 농업 소개교육 정도가 있으나 교육내용 편성이 프로그램 운영 기관이나 개별 강사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별도의 '지역사회 기반 사회적 농업' 교육 과정을 마련해 운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 앞에서 언급한 '지역사회 사회적 농업' 준비 과정에서 이수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적절한 단위(거점 농장이나 사회적 농업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가 높은 마을만들기지원센터나 사회적경제 연합 조직 등)를 통해 운영케 한다.

○ 사회적 농업 실천 농업인 등의 직무역량 강화

▸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 등 당사자들(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선정자)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 교육과정을 정형화하여 제공한다. 거점농장들과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교육과정을 개발한다. 이때 교육내용상 강조되어야 할 것은 '지역사회 기반'이라는 관점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면할 때 견지해야 할 관점 및 스킬'이다.

▸ 사회적 농업 거점농장의 교육훈련, 컨설팅 등의 활동을 점검하고 '거점농장 직무역량 강화' 과정을 개설 운영한다. 이 과정은 교육훈련 활동을 담당할 행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높은 수준의 학습이 요청되므로, 전문연구자와 거점농장 담당자들이 밀도 높은 세미나를 여러 차례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각종 교육과정에서 활용할 컨텐츠(도서, 텍스트 자료, 영상 등)를 개발하고 배포할 종합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실시한다. 현재로서는 거점농장과 한국농어촌공사 공동체팀의 몫으로 남겨져 있는 듯하지만,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노인문제와 사회적농업

“No人에서 선배시민으로”

김영란 목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 글은 한국사회적농업협회의 요청에 의해 사회적농업 공동연수의 강의목적으로 씌여졌다. 나는 노인복지 전공자가 아니므로 노인 혹은 노인문제에 대해 일반적이거나 사적인 의견 정도 밖에 가진 것이 없다. 사회적농업에 대해서도 별반 다르지 않지만 노인복지에 비하면 더 많이, 더 자주, 더 심각하게, 그리고 더 재밌게 공부를 했고, 급기야 농촌복지의 대안이 사회적농업일 수 있다는 입장을 가지게 되었다. 지금은 내게 주어진 주제인 ‘노인’에 집중하면서, 노인과 사회적농업을 실천할 때 고려해야 할 점에 대해 미력하게나마 설명해 보겠다. 먼저 노인에 대해서는, 누가 노인인지, 노인의 특징은 어떠한지, 노인을 둘러싼 담론을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특히 노인을 둘러싼 담론은 사회복지(학)계의 ‘동지’인 두 저자가 출판한 최근의 저서 『선배시민: 시민으로 당당하게 늙어가기』의 핵심 부분을 정리하였다(노인과 함께 사회적농업을 실천하는 농장의 활동가들께서는 이 책을 꼭 읽어보시길 바란다). 나는 사회적으로 불리한 여건에 있는 사람들 혹은 사회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 하는 사회적농장이 담당해야 할 과업은 참여하는 사람들의 개인 상황을 전보다 좋게 만드는 것에서부터 그 사람이 세상 안에서, 사람들 속에서, ‘한 명’의 사람으로서 제 몫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 나아가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살도록 돕는 것까지라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 사회적농장의 활동가들은 ‘한 명의 사람으로서 제몫을 가지고 제삶을 사는 것’이 도대체 어떤 모습일지, 지금 자신들과 함께 일하고 있는 이 사람이 여러 해가 지나고 나면 바로 그런 모습을 갖게 될지, 어떻게 하면 그가 그런 모습이 되도록 농장의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운영할지를 고민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이 글에 담고 싶었다. 또한 실천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도 보태고 싶었다. 그래서 지난 해 여민동락에서 나온 ‘사회적농업 활동 매뉴얼 -어르신편-’에서 조미형 박사와 내가 작성했던 부분을 다시 정리해 보았다.

누가 노인인가?

한글사전에서 노인은 “나이가 많이 들어 늙은 사람”이라고 정의된다. 얼마나 나이가 들어야 늙은 사람이라고 할까? 우리는 흔히 65세[1] 이상이면 노인으로 보고, 사회복지분야에서도 대체로 그렇게 적용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회복지 관련 법률 어디를 찾아봐도, 특히 노인복지에 관한 기본법적 지위에 있는 <노인복지법>에도 노인에 대한 정의가 누락되어 있고, 그러다보니 ‘노인은 65세 이상인 자’라고 하는 조항이 없다. 다만 동법 제1조의2(정의) 제5호에서

1) 노인의 연령 기준을 65세로 정한 것은 독일 제국의 비스마르크 재상이 1889년 노령연금 제도를 도입하면서 노인의 연령 기준을 65세로 채택한 것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880년대 독일의 기대수명은 남성 41세, 여성 43세였지만 노령연금 수혜 시기를 65세부터로 한 것은 노인복지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의도였을 것으로 본다. 그런데 국제연합이 결성되면서 이 연령 기준을 수용함으로써 세계적으로 65세가 노인 연령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도 이 기준을 사용하게 되었다(이상이, 2020).

“‘노인학대 관련 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노인학대”라는 규정이 나온 것이나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2조(정의) 제1호에서 “‘노인 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정의하고 있어서(이상이, 2020) 65세가 노인에 포함된다는(65세부터 노인이라는 말은 아님)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1985년 68.9세에서 2017년 82.7세로 증가했고, 2019년 OECD 평균과 비교하면 2년이 더 길다(보건복지부, 2019). 반면, 합계출산율[2)]은 1985년에는 OECD가 삼은 저출산 기준선인 1.7 아래였고, 2002년에는 OECD ‘초저출산 기준선’인 1.3 아래로 떨어져서 18년 동안 지속되다가 2018년에는 급기야 0.98, 2019년 0.92를 기록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기대수명이 증가하고, 거기에 세계 최저의 합계출산율이 가세하여 다른 나라에서 유래를 찾기 어려울 만큼의 속도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국가가 되었다[3)](이상이, 2020).

이상에서 나타난 인구구조의 특성상 생산연령인구(16~64세)가 급격히 줄어들어 경제성장률 감소를 초래하는 동시에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노년부양비가 복지 수요와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증가하는 상황이 사회적으로 문제시된다. 실제로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노년부양비는 2019년 20.4%에서 2030년 38.2%로 약 10년 만에 거의 2배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이상이 2020). 따라서 일각에서는 노인연령 기준을 현재의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하고 생산연령인구를 16세에서 69세로 한다면, 노년부양비 급증 추세가 완화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4)] 특히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인 이상이 교수(2020)는 노인연령 기준을 단계적으로 5년 상향 조정하면 노인이 더 길게 일할 수 있어서 노인의 건강증진 효과도 있고, 노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 인식도 개선할 수 있으며, 노인복지를 위한 정부의 재정부담 증가 추세를 완화하는 동시에 장수시대에 맞게 노인복지를 재조정하여 내실을 확충할 수 있다는 이유를 대면서 노인연령 기준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2018년 서울시 노인실태조사에서 65세 이상 노인 대상으로 “귀하는 몇 세부터 노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한 질문의 응답 결과가 평균 72.5세인 것으로 밝혀져 노인들도 노인의 연령 기준을 65세보다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정황을 반영하여 나는 70대 이상을 노인으로 생각하면서 이 글을 이어 가겠다.

---

2) 합계출산율은 한 여성이 가임기간(15세~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하는데, 한 나라의 전체 인구수가 그대로 유지되려면 합계출산율이 2.1이라야 한다.

3) 이상이(2020)는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를 거쳐 초고령사회에 도달하는 데 프랑스 154년, 미국 94년, 독일 77년, 일본 36년이 걸렸고, 우리나라는 25년이 걸릴 것이라고 썼다.

4) 2015년 박근혜 정부시기에 대한노인회 정기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노인 연령을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통과되었고, 그 방법(4년마다 1세씩 혹은 2년마다 1세씩 늘리는 것)은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겠다고 하였다. 당시 시민사회에서는 노인연령 상향으로 복지의 총량이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대한노인회가 이런 제안을 한 것은 복지비용을 감축하려는 보수 정권에 손을 들어준 결정이라고 반발하였고, 정치사회적으로 공론화되지 못했다. 2019년 문재인 정부시기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다시 노인연령 기준을 70세로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이상이, 2020). 그러나 사회보장 확대를 국정 방향으로 제시한 정부였으므로 이 논의가 공론으로 확장되지는 못했다.

노인은 문제인가?

통계수치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도시에 비해 고령화가 급속한 농촌 마을에서는 주민 대부분이 (고령)노인으로, 70대 정도는 '젊은이' 축에 든다. 이들은 농사를 짓고, 농산물을 팔고, 마을일에 참여하면서 실질적으로 가정과 마을을 운영한다. 80세 이상의 나이가 되더라도 움직일 수 있다면 농사를 짓고, 농산물을 자식에게 보내고, 마을일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고 있고, 참견한다. 내가 살고 있는 반농반어 마을의 노인들을 보건데, 그들은 수십 년 동안 자신들에게 주어진 일(양파농사, 낙지잡이, 굴캐기, 선착장 걷기, 경로당에서 놀기, 이웃집 마실가기 등)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낼 뿐 그다지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

다소 오래된 연구이지만 2015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조미형 박사는 농촌고령자의 생활 및 경제활동 실태를 파악해서 노인을 4개의 집단으로 구분했다: ① 허약한 노인, ② 빈곤한/무료한 노인, ③ 건강한 저소득 가구주 노인, ④ 배우자 간병/손자녀 양육 노인. 해지난 연구를 들추는 것은 이 연구가 문헌조사, 2차 자료 분석, 농촌고령자와 사회복지사 인터뷰, 농장과 마을, 그리고 수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현장방문 조사를 포함하여 농촌 노인의 일상을 다차원적으로 다루었기 때문이다. 또한 이전의 연구나 논의들이 농촌고령자를 경제활동 및 소득지원 욕구를 가진 집단과 복지서비스 수요 집단으로만 구분했다면, 이 연구에서는 두 집단의 교차점을 찾아 세분화해서 정책 제안을 구체화시켰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2016년 여민동락에서 개최된 KREI현장토론회('마을에서 행복한 노인의 삶')에서 요약적으로 발표되었고, 이 글을 위해 당시의 자료집 원고를 바탕으로 각 집단별 특징과 필요 정책을 다음의 표로 정리해 보았다.

농촌노인의 특징과 필요한 정책

구분	특징	필요 정책
① 허약한 노인	• 기초연금 이외에 현금수입 없음 • 건강이 좋지 않아서 일하지 못함	• 현금 지출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복지서비스로 해결하도록 지원 • 마을 단위 공동식사, 공동주거, 의료비/교통비 지원
② 빈곤한/무료한 노인	• 하루 몇천 원밖에 벌지 못하는 부업을 하면서 생활을 꾸려감 • 복지관 급식이나 밑반찬배달로 끼니를 해결하고 공과금/난방비/의료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 노동함 • 재산, 공적연금 없고, 자녀들로 받는 경제적 지원 불충분함 • 주눅이 들어 경로당에 가지 않음 • 경제적 문제는 없지만 더 이상 농사를 짓지 않고 무료하게 시간을 보냄	• 마을 단위 복지사업 제공 • 사회적 일자리 마련
③ 건강한 저소득 가구주 노인	•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음 • 주로 70세 미만으로 스스로 노인이라고 인식하지 않음 • 대부분 젊은 시절 농지를 임대하여 농사를 짓거나 일용직 등의 일자리를 통해 근로 소득에 의존해서 살아왔음	• 도시처럼 경비, 청소 등의 일자리가 없는 농촌에서 이 집단이 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④ 배우자 간병/손자녀 양육 노인	• 농촌노인의 정서상 돌봄당사자는 타인의 손에 돌봄을 받는 것을 불편해 하고, 배우자를 남에게 맡기고 싶어지 않음 • 조손가정 노인은 경제적 문제부터 손자녀 양육문제까지 다각적인 문제가 발생함 • 손자녀와의 의사소통에서 세대차이 발생함	• 의료비 지원 • 돌봄 서비스 제공 • 심리적/정서적 지원

표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농촌 고령자들의 실상은 각각이 처한 형편에 따라 다른 특징을 보였고, 필요한 정책들도 차이가 났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대부분의 노인들은 다양한 만성질환에 시달린다. 그러다보니 외래 이용이 많고, 폐렴 등의 급성 감염성 질환, 뇌졸중 등 심뇌혈관 질환이 악화되면 입원치료 기간이 늘어난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 입원은 2013년 148만 명에서 2018년 199만 명으로 증가했다고 한다. 또한 노인입원 진료비는 65세 미만에 비해 6.3배가 많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배지영 외, 2020). 한편, 2020년 노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인의 56.6%가 거동이 불편해도 재가서비스를 받으며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살기를 희망했다. 그런데, 독거나 부부로 이루어진 노인 단독가구는 2008년 66.8%에서 2020년 78.2%로 증가했고, 자녀와의 동거를 희망하는 비율은 2008년 32.5%, 2017년 15.2%, 2020년 12.8%으로 감소하고 있다. 그렇다면, 노인들의 겪는 노화로 인한 질병을 누가 돌봐야 하는가? 노인들이 원한다고 하는 재가서비스는 어디로부터 제공받는다는 것인가? 농촌 마을에서는 읍지역의 보건(지)소도 멀고, 간단한 상점도 없고, 복지관은 더더욱 없다. 농촌에 복지와 의료 인프라가 얼마나 부족한지에 대해서는 일일이 근거를 대지 않아도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현실이라고 본다. 만일 저 표에서 제안한 필요 정책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서 죽을 때까지 계속 살고 싶다는 노인들의 바람은 이루어지고, 노화는 자연스런 현상이자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일상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그렇다면, 노인문제는 '노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나이든 국민이 걱정없이 노후를 지내도록 하지 못하는 정부 혹은 사회의 문제'다.

노인에 대한 기존의 세 가지 담론

왜 국가는, 사회는 노인이 걱정없이 노후를 지내도록 하지 못하는 것일까? 유범상과 유해숙 저자가 제시한 노인에 대한 담론 세 가지는 같은 노인이라도 어떤 시각으로 노인을 보느냐에 따라 노인에 대한 사회의 태도가 달라지고, 노인을 대상으로 한 정책·서비스·프로그램이 다르게 만들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담고 있다. 여기에서는 세 가지 담론이 가지고 있는 특징과 한계를 요약함으로써 노인에 대한 사회적농장 활동가의 생각과 노인을 대하는 태도를 성찰해 볼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늙은이 담론(No人: 늙은이는 사람도 아니다 & 늙으면 죽어야지)

늙은이 담론은 몸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노인은 추레, 냄새)과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 생각, 태도(고리타분함, 불통, 이기심), 불필요한 잉여 인력이라는 사회적 인식(돌봄 대상), 유아같은 존재(elderspeak[5])로 대우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분리이론(disengagement

theory)에 근거하는데, 분리이론에서는 노인이 되면 경제적·사회적·신체적·심리적 측면에서 분리가 일어난다고 설명한다. 다시 말해 나이가 들면 늙은 몸 때문에 경제적으로 무능해지고 삶의 현장에서 벗어난 존재로 사회와 노인 간에 간극이 커져서 사회적으로 분리된다는 것이다. 이런 분리는 노인을 심리적으로 위축시킨다. 분리이론 관점에서 보면, 노인들의 활동과 역할은 축소되어 수동적인 생활을 하게 되고, 사회적 관계도 소원해져서 체념, 비관, 순응을 내면화하여 자기만의 삶에 몰두하게 된다. 또한 노인의 이런 상태 때문에 노인은 서비스 대상으로 여겨지고, 특정한 활동을 통해 '생산'을 하지 않으면서도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드는 존재로 여겨진다. 그러므로 늙은이 담론을 가지게 되면 노인복지를 쓰임 없이 비용만 많이 들어가는 정책으로 인식할 수 있다. 또한 노인 스스로도 쓸모도 없는 자신이 정부지원을 받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감추고 싶을 만큼 부끄러운 일로 여길 수 있다. 나이 들어 수치심을 느끼는 삶은 얼마나 비참한가!

노인 담론(Know人: 어르신은 도서관이다)

노인 담론은 노인을 오랜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가 있어서 공동체를 안전하게 이끄는, 세상에 대해 잘 아는 사람으로 설명한다. 이런 시각에서 노인은 '어르신'으로 불리워진다. 여기에는 어르신은 현자여야 하고, 참아야 하고, 현명한 판단을 해야하며,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사실상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정보화시대에 수십 년 묵은 과거의 지식과 경험이 더 이상 노인이 가진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없을 수도 있다. 또한 이 담론대로라면 노인을 존재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선량한 편견에 사로잡혀 노인은 욕망도 없고, 선호도 없고, 선택지도 없는 존재로 인식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선량한 편견에 부합되지 않는 노인은 비인간 혹은 부적격 인간으로 여겨질 수 있다.

액티브 시니어 담론

'늙은이'는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체념적인 삶의 태도를 지닌 잉여인간으로 사회적 부담(고정관념이 작동)이 되고, '어르신'은 늘 옳은 판단만 내리며, 공동체의 방향을 제시하고, 자애롭고 자비로우며, 체면과 체통을 지켜서 젊은이들의 귀감이 되는 것은 개인적 부담(선량한 편견 작동)이 된다. 그래서 새로운 노인, 즉 '나이든 보통사람'으로 액티브 시니어 담론이 나왔다. 이 담론에서 노인은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생산활동을 하면서 자신의 개성과 감정, 욕구를 숨기지 않는다. 액티브 시니어의 나이듦은 노년을 활기차고 행복하게 하는 활동적 노화(active aging)와 노년을 경제적 능력과 기여로 노동시장에서 생산력을 발휘하는 생산적 노화(productive aging)[6]로 특징지워진다. 그러나 이 담론으로 인해 성공적 노화를 이룬 노인은 사회에 기여하는 일등시민이고, 그렇지 못한 노인들은 사회에 불필요한 이등시민으로 인식될 수 있다. 또한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노인이 실제 행복한지를 반문하게 만든다. 노인택배, 희망근로, 경비원 등 저임금의 장시간 노동이 성공적 노화일 수 있을까? 성공적인 노인이든 성공적이지는 못해도 생산적인 노인이든 이런 노인들이 우리 사회의 '보통 사람'이 아닌

5) 어린 아기들이 쓰는 말 혹은 아기에게 말을 할 때 쓰는 어투를 baby talk라고 하는 것처럼 elderspeak('어르신 언어')은 의사나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노인에게 말할 때 아기에게 말하는 듯 고음과 느린 속도로 또렷하고 쉬운 단어와 문장을 구사하는 말투이다.

6) 노인을 인적자원관리 차원에서 '고령자 적합 직종 채용 및 권고', '노인 일자리 사업',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고령친화산업진흥법>등이 도입되었다.

것은 분명하다. 이렇듯 이 담론은 소수의 성공 사례에 기대어 노인의 삶에 대한 책임을 개인에게 돌리는 입장을 합리화함으로써 공적 책임을 약화시킬 수 있다. 액티브 시니어들의 성향도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 액티브 시니어는 개인적인 필요에 집중하여서, 예컨대 복지관을 이용해도 취미, 여가, 자기계발 등 자신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원하고, 자신과 가족만 중시하는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하다. 이 담론의 내용을 보면, 노인복지관은 액티브 노인을 이상적인 노년기의 모습으로 상정하고 그런 노인이 원하는 혹은 그런 노인을 만드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듯하다.

위 세 가지 담론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세 가지 노인 담론과 특징

호칭	늙은이	어르신	액티브 시니어
의미	No人	Know人	성공한 노인
이미지	체념, 빈곤, 노망	지혜, 존경, 현자	경제력, 인생 이모작
문제점	이등국민이라는 인식	신비화된 존재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소수의 노인

출처: 유범상, 이현숙, 2021

자료: 유범상, 유해숙, 2022, p.41

새로운 노인상을 찾아서: 선배시민 담론

저자들은 노인에 대한 위의 세 가지 담론에서 나타난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새로운 노인상으로 선배시민 담론을 제시했다. 이 담론의 바탕에는 노인이 어느 날 갑자기 나이든 것이 아니라 유아/청소년기를 지나 청년기를 거쳐서 장년기, 그리고 노년기가 되는 과정에서 개개인의 개성이 내재화되어 노인되고 그 모습은 매우 다양하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총체성의 관점을 취한다. 총체성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첫째 노인의 능력이나 특징은 사람 수만큼 다르다는 태도를 취하게 된다. 둘째, 노인을 그들 세대의 맥락 속에서 이해하려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표적으로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독재정부을 포함해서) 노인들이 살아왔고, 살고 있고, 살아갈 정치적 관계, 제도와 구조, 시대와 환경은 다른 세대와 다르다. 이렇게 총체성의 관점은 노인을 분리(No人)되거나 신비로운 존재(Know人)가 아니라 보통사람에 그저 늙음이라는 특징이 더해진 존재, 즉 '나이 든 보통사람'으로 이해하도록 만든다.

노인이 보통사람이기는 하지만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신체의 쇠퇴, 소득 결핍, 사회관계의 축소 등 어느 하나 혹은 이 모든 특징을 안게됨을 의미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또한 나이듦으로 인한 특징이 모든 노인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도 아니다. 즉 개인, 계급, 국가에 따라 다른 특징을 갖게 된다. 그러나 UN의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인간에게는 천부의 존엄성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평등한 권리가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국가에게 이를 보장하는 책임을 다하라고 권고했다. 특히 생존권을 보장하는 사회권을 명시했다. 노인 역시 모든 인간 중 한 부류로(No人이 아니므로) <세계인권선언>의 대상이다. 뿐만 아니라 <노인권리선언>, <비엔나 국제고령화행동계획>, <노인을 위한 UN원칙>, <마드리드 국제고령화행동계획> 등에

서는 노인만을 대상으로 해서 사회권, 노동권, 참여권, 존엄권을 보장하도록 주장했다. 이 중 <노인을 위한 UN원칙>을 예로 들어보면, 여기에서는 독립, 참여, 돌봄, 자아실현, 존엄의 다섯 가지 원칙을 제안했다. 제안된 각각의 원칙은 다음과 같은 실천으로 지켜질 수 있다.

<노인을 위한 UN원칙>과 실천 방법

원칙	실천 방법
독립	• 식량, 물, 주거, 의복 및 건강 보호에 접근 •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에 접근 • 적절한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에 접근
참여	• 정책의 형성과 이행에 적극적으로 참여 • 지역사회 봉사를 위한 기회를 찾고 개발 • 노인들을 위한 사회운동과 단체를 형성
돌봄	• 가족과 지역사회의 보실핌과 보호는 물론 사회적/법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자아실현	• 사회적/문화적/정신적 그리고 여가에 관한 지원에 접근
존엄	• 나이, 성별, 인종이나 민족적 배경, 장애나 기타 지위에 상관없이 공정하게 대우받아야 하며, 그들의 경제적인 기여와 관계없이 평가되어야

선배시민론이 강조하는 것은 '노인의 고유한 상황과 노인들의 특수한 환경에 대한 인식 및 노인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노인들이 자신들의 소리를 효과적으로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점이다. 즉 선배시민은 시민권을 주장하고 국가와 지역 일에 주체로서 참여하는 노인이다. 말하자면, 노인 당사자들이 <노인을 위한 UN원칙>이 생존권을 포함한 사회권으로서 보장받아야 함을 주장하고, 또한 사회의 다른 어떤 부류가 이러한 권리를 갖지 못한다면, 그들에게 그것이 부당함을 설명하고, 부당함을 바로 잡도록 함께 실천하며, 이를 위해 소통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여기서의 핵심은, 노인은 공동체 속의 존재(공동체 밖으로 배제된 존재가 아니라)로서 시민이며, 따라서 시민으로서의 권리적 존재인 동시에 나이들어 삶을 더 살아온 선배로,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후배와 소통하고 연대하는 사람이라는 점이다. 이쯤에서 앞서 설명했던 노인에 대한 담론들을 하나로 정리한 표를 소개하면서 마무리하겠다.

젊은이, 어르신, 액티브 시니어, 선배시민 담론의 비교 분석

담론요소	늙은이	어르신	액티브 시니어	선배시민
정체성	돌봄의 대상	존경의 대상	자신을 관리하는 노인 독립적이고 생산적인 노인	공동체를 돌보는 노인 변화를 만드는 노인
인식	늘 그런이	현자	나를 묻는 노인	본질을 묻는 노인
태도	체념과 숙명	자애와 지혜	기회와 노력, 자기계발	비판, 관계와 구조의 변화
위험의 원인	개인	개인	개인	국가와 사회
실천	순응	해결책 제시	개인의 변화와 자선	관계와 구조의 변화
제도	잔여적 복지	잔여적 복지	잔여적 복지	제도적 복지
집의 유형	연민의 집	가족의 집	가족의 집	시민의 집

관련 이론	분리이론	역할이론	신노년, 성공적 노화, 활동적 노화, 생산적 노화	비판적 노년학, 진보적 노년학, 시민권 이론

출처: 유범상, 이현숙, 2021

자료: 유범상, 유해숙, 2022, p.89

사회적농업과 노인

얼마 전 한국사회적농업협회 소속 사회적농장 운영자들과 사회적농업에 관심있는 연구자들이 모여 사회적 농업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했다. 이런 자리가 있었다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사회적농업을 시작할 때도, 그리고 수십 개의 사회적농장이 운영되고 있고, 여전히 그보다 더 많은 기관이나 단체에서 사회적농장을 운영하려고 준비하고 있음에도 해당 부처나 농장, 연구자들이 사회적농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혹은 명확한 설명이 과연 필요한지 아닌지 대해서도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방증한다. 내게 사회적농업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사회적'이라는 표현에 집중할 것이다. 사회적농장은 다양한 내용과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겠지만(그러므로 사회적농업의 개념이 애매모호할지 모르지만) 사회적농장이 공통적으로 지향해서, 그 정체성을 확보해야 하는 지점은 바로 '사회적'이라는 표현에 있다. 그래서 사회적농업을 '사회적인 문제를 사회적으로 해결해서 사회가 좋게 되는 농업실천'이라고 거칠게나마 생각해 봤다.

노인을 비참하게, 불행하게, 이기적이게 만드는 사회의 문제를 농업활동으로 해결해보자는 취지의 강의를 한국사회적농업협회의 회원 농장의 공동연수에서 한다는 입장에서, 2018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사회적농업 시범사업을 시작했을 당시의 사회적농업 개념을 들춰보겠다. 이때 사회적농업은 "급여를 받는 노동을 수행할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 가령 지적·신체적 장애인, 재소자, 약물중독자, 소수자, 이주민 등의 통합을 지향하거나, 불리한 여건에 있는 사람들의 재활·교육·돌봄을 촉진하거나, 아동 및 노인 등 특정 집단에게 농촌 지역에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목적을 지닌 농업 실천"이라는 이아코보Iacobo (2009: 11)의 개념을 기반으로 했고, 시범사업에 관여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김정섭 박사가 "사회적으로 배제된excluded 이들을 사회 안으로 끌어안는 농업 실천"(김정섭 외, 2017: 9)이라고 넓게 정의하였다. 이아코보는 노인을 "특정 집단"에 포함했지만, 우리나라에서 노인은 'No人'으로 간주되어서 사회적으로 배제되거나 '액티브 노인'이 아니어서 사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김정섭 박사가 말한 바로 그 '사회적으로 배제된 이' 중 한 부류이다. 현실적으로, 일본강점기와 한국전쟁 등 격동의 역사를 거쳐 불균형적인 산업 개발과 경쟁적 신자유주의 체제하에서 쇠퇴되고 있는 농업에 종사했던 농촌 노인은 사회적으로 불리한 처지에 놓여 생존권을 보장하는 사회권에서도 배제된 경우가 허다하다. 예를 들어 조미형 박사가 구분한 ① 허약한 노인과 ② 빈곤한 노인이 그럴 것이다.

여민동락 사회적농장 매뉴얼을 만들기 위해 농장활동의 직접 경험, 관련 문서와 자료, 활동가 대상 인터뷰 내용에 근거로 할 때, 그곳의 노인들은 조미형 박사가 구분한 집단 중 ② 빈곤한/무료한 노인과 ③ 건강한 저소득 가구주 노인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농장의 활동은 다음의 표처럼 <노인을 위한 UN원칙>이 정한 실천에 가까웠다. 이는 일반적인 노인복지관 사업들과 비교될 만큼 역동적이었고, 복지적이며 인권적이었다.

<노인을 위한 UN원칙> 실천 방법과 사회적 농업 실천 사례

원칙	실천 방법	실천 여부	실천 사례 (여민동락의 경우)
독립	• 식량, 물, 주거, 의복 및 건강 보호에 접근 •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에 접근 • 적절한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에 접근	√	• 일한 만큼의 소득 • 건강 등 교육
참여	• 정책의 형성과 이행에 적극적으로 참여 • 지역사회 봉사를 위한 기회를 찾고 개발 • 노인들을 위한 사회운동과 단체를 형성	√	• 농장일에 의견 제시
돌봄	• 가족과 지역사회의 보실핌과 보호는 물론 사회적/법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	• 노인에 대한 농장활동가의 관심과 돌봄
자아실현	• 사회적/문화적/정신적 그리고 여가에 관한 지원에 접근	√	• 나들이 등 진행
존엄	• 나이, 성별, 인종이나 민족적 배경, 장애나 기타 지위에 상관없이 공정하게 대우받아야 하며, 그들의 경제적인 기여와 관계없이 평가되어야	√	• 자기 형편에 맞는 참여

그러나 이들이 사회 안으로 통합되었는가? 노인들에게 몇 가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노인들이 사회에 통합되는 것이 가능한가? 도대체 노인들이 사회에 통합된다는 것은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가? 사회적농업의 궁극적인 목표가 사회통합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은 사회적농장 관련자들에게 중요하다. 앞서 언급한 '선배시민'과 연결하자면, 사회적농장에 참여하는 노인들은 활동적인 노화를 이룬 노인(액티브 시니어)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사회 안으로 들어와서 다른 이들과 함께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드는 노인이 되어야 한다. 사회 안에서 자신의 몫, 즉 주권자로서의 몫과 타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연대하는 이웃으로서의 몫을 가진 선배시민이 되어야 전적으로 사회에 통합되었고 성공적(개인의 경제적 욕구나 경제 외 욕구 차원이 아니라)으로 노인기를 완수했다고 말할 수 있다.

노인과 함께하는 사회적농업

여기의 내용은, 여민동락 사회적농업 매뉴얼에서의 설명을 가져와 일부를 수정한 것으로, 노인과 함께하는 사회적농업의 장점을 거론하면서 사회적농장 활동가에게 활동의 고민거리와 아이디어를 제공하려고 한다.

노인이 주체적으로 활동한다

농촌에서 줄곧 농사를 지어왔던 노인들은 대부분 자기만의 방식을 가진 농업전문가다. 그야말로 'Know人'이다. 그들은 한평생 해온 농사일에서 체득한 자신만의 기술과 지식을 가지고 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노동할 수 있는 신체와 정신이 미력해졌어도 이미 '몸'이 알고 있는 방식대로 저절로 농사일을 할 수 있다. 치매에 걸렸다고 해도 다르지 않다. 치매노인을 포함한 고령노인은 처음 해보는 활동을 숙지해서 진행하기는 어렵지만 평생 해 왔던 농사일의 경

우는 다르다. 구부정한 허리를 하고 지팡이에 의지해서 겨우 걷는 어른도 밭에만 들어가면 호미를 잡고 익숙하게 밭을 매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이때야말로 자신이 가장 잘 하는 일과 가장 익숙한 공간에서 일평생 동안 지니고 살았던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시간이 된다. 이로써 노인은 자기 삶의 주체가 되고, 자연과 교감하는 우주적 존재가 된다. 또한 누군가에게 '가르쳐줄 것이 있는 사람'이 된다. 자신이 잘 알고 잘 하는 농사일을 그렇지 못한 사람들(예를 들어 사회복지사)에게 가르쳐주면서 자부심과 삶의 보람을 가질 수 있다. 그럼으로써 노인들은 농장활동의 '수혜자'(수동적인)라기 보다는 '주체자'(능동적인)로서 활동할 수 있다. 이러할 때 사회적농장에서의 농사는 노인들의 생계유지 수단 이상의 의미, 즉 인간 존재의 의미를 담게 된다.

- 농장 활동가들은 참여노인들을 Know人으로 존중하는가?
- 그들의 농사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배우려하는가?
- 그들이 농장에서 주체적 존재가 되도록 하는가? 그리고 주체적 존재로 대우하는가?

노인의 속도에 맞춘다

노화에 따른 상실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능력에 적합한 활동을 선택하고 보유한 기술을 최적화해서 상실한 것을 보상받을 때 성공적인 노화에 이를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사회적농업은 농촌 노인의 노년기 적응적 행동에 유익하다. 사회적농업의 목표가 수익창출에 있지는 않기 때문에(사회적농장의 수익이 경제시장 수준과 방식의 수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사회적농장에서는 비록 몸놀림이 더디더라도 그 속도에 맞추어 노동할 수 있다. 또한 앞서 말한 것처럼, 농사는 노인들이 젊어서부터 익혀온 노동이기 때문에 다른 생산활동에 비하면 이미 숙련된 기본기를 갖추고 있어서 오히려 다른 일(생소한 일)을 하는 노인에 비해 농사를 하는 노인들의 생산력이 더 높을 수 있다. 자신의 신체가 쇠잔해감에 따라 농토 규모와 일의 양을 줄여가면서도 젊어서부터 익혀온 삶의 패턴을 유지하고, 경제적 측면의 보상이 크지 않지만 자신이 가꾸는 작물들이 자라는 과정 자체에 초점을 맞추면 즐거움과 보람을 느낄 수 있다. 이로써 액티브 시니어, 즉 생산적이며 성공적인 노화가 가능하다.

- 농장 활동가는 참여노인의 신체에 적합한 농업활동을 기획하는가?
- 농업은 그들 개인의 몸과 정신의 상태에 맞는 다양한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 사회적농장은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가?

노인의 외로움과 잡념을 덜어낸다

농촌의 고령노인들의 대부분은 혼자 살거나 배우자와 둘이 산다. 이미 고령이 된 노인들에게 도시에서 사는 자녀들은 자신의 일 때문이거나 자녀들의 학업 때문에 명절이나 되어야 방문한다. 그래서 농촌의 고령노인들은 대부분 경로당이나 자기 집에서 무료하게 하루를 보내게 된다. 집 밖으로 나가도 농촌의 마을에서는 딱히 할 일이 없다. 소일 삼아 들(밭)에 나가 시간을 보낸다지만 그것도 혼자인 경우가 많다. 특히, 남성에 비해 수명이 길어진 여성 노인들은 배

우자 없이 혼자 살게 되면서 줄어든 가사를 비롯해서 별로 할 일 없는 단촐한 일상을 보내게 된다. 이러다 보면 외로움은 커지고 잡념도 많아진다. 농장은 이런 어르신들이 다른 사람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하도록 도울 수 있다. 농장에서 노인들은 이미 몸에 체득된 농사활동을 하기 때문에 일을 하면서도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같은 연배끼리 서로 어울려 살아왔던 지난 날의 회상을 나누면서 혹은 태어나면서부터 봐왔던 서로의 자식들에 대한 지금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외로움을 덜어내고 잡념을 정리할 수 있다. 이렇게 노인들은 사회적 농장에서 함께 일하면서 서로 어루만져주고, 이로써 자신을 가장 잘 이해해 주는 생애 친구를 갖게 된다. 물론 이야기가 화근이 되어 서로 다투는 경우도 생기겠지만 화해하는 경험은 사회적 관계 맺기에 유용하다.

- 농장 활동은 참여노인들이 서로 교류할 수 있을 정도로 느슨한가?
- 농장 활동가는 참여노인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 혹은 접점을 만드는가?
- 농장 활동가는 참여노인들 사이에 다툼이 생기면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가?

인생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일지 모를 여가를 즐긴다

노인복지관도 문화센터도 없는 농촌에서 사회적농장은 노인들의 놀이터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넓지 않은 생활 반경에서 대중교통의 제약까지 겪고 있는 노인들을 모시고 먼 곳으로 관광을 간다든지, 평생 농사일에 묶여서 해보지 못했던, 그러나 인생을 마감하기 전에 꼭 해보고 싶었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주선한다든지, 혹은 한글에서부터 핸드폰 사용법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술을 알려준다든지 한다면 노인들은 새삼 사는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사회적농장에서는 농사일 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노인들의 일상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 이로써 노인과 함께 하는 사회적농장은 마을 노인들의 일, 놀이, 쉼을 위한 공간이 된다.

- 농장 활동가는 참여노인들이 수입을 위한 활동 외에도 무엇을 하고 싶고, 되고 싶은지를 알고 있는가? 혹은 참여노인들은 그것을 농장 활동가에게 말할 수 있는가?
- 농장 활동가는 참여노인이 원하는 여가와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제공하는가?
- 농장은 여가와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과 시설을 가지고 있는가?

노인의 건강을 관리한다

노인기는 생애 동안 가장 움직임이 줄어드는 시기다. 대부분의 농촌 노인들은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온몸이 오그라 붙는다'고 말한다.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지만 그래도 움직여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멍하게 집에 있기보다는 밭에 나가 풀이라도 뽑으려 한다. (손)자녀가 함께 살지 않고, 그런 이웃이 있지도 않은 농촌에서 곡식이 자라거나 가축이 새끼를 낳는 것을 보면서 '새생명'을 느낄 수 있다. 그러므로 농촌 노인들에게 농사는 신체 건강과 정서 안정을 위한 방편이 된다. 물론 하절기의 강한 햇볕 아래서 혹은 통기가 잘 안되는 비닐하우스 안에서 온종일 일하는 것은 노인들의 건강에 치명적이다. 활동가들은 농사를 지을 여력이 있

는 노인들과 함께 일하면서 노인들의 노동강도를 조절하고, 노동환경을 좋게 만든다. 또한 매일 노인들을 만나기 때문에 그들의 건강을 살펴 예방이든 대책이든 의료 연계를 할 수 있다. 손주에게 용돈을 주고 싶어 자기가 버틸 수 있는 힘을 넘어서 과하게 일하지 않아도, 농산물을 시장에 가져가 온종일 쪼그려 앉아 팔지 않아도 사회적농장에서 받은 노동의 댓가로 일상에서 쓰고 싶은 돈을 마련할 수 있으니 신체는 건강을 해지지 않을 만큼만 적당히 움직임으로써 건강이 유지될 수 있다.

- 농장 활동가는 참여노인들 개인의 건강상태를 알고 있는가?
- 농장 활동가는 참여노인들 개인에 맞는 적당량의 농업 활동을 분배하는가?
- 농장 활동가는 작업 전과 작업 후의 몸풀고 정리하는 활동을 포함하는가?
- 농장 활동가는 참여노인과 의료기관을 연계하는가?

사회적으로 통합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

농업은 일터와 생활공간을 분리하지 않으며, 농촌 거주환경은 이웃에게 개방적이다. 노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마을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 살아와서 자기가 속한 커뮤니티의 문화를 잘 알고 있다. 이러한 삶의 토대로 인해 세대 간에 통합적이고 열린 인간관계가 형성되기 쉽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노인들은 그저 '돌봄'의 대상이 되어 도움이 필요하고, 특히 정부가 도움을 주어야 하는 서비스 수혜자로 여겨져서 점점 자기 마을에서조차도 분리된다. 대부분의 노인들은 "젊은것들이 늙은이 말을 받아주기나 하나요?"라며 자조적으로 말한다. 하지만 노인과 함께 하는 사회적농장에서는 노인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존중할 수 있다. 노인에게 새로운 기술과 방식을 전달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노인의 농사에 대한 기술과 지식을 존중해서 배우기도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젊은 농장활동가와 노인 참여자들 사이에서는 사회적 관계가 형성되고, 이런 경험은 마을의 다른 젊은이들(예를 들어, 손자녀, 청년 귀농자 등)과의 관계맺기에도 적용될 수 있다. 이로써 사회적으로 배제되었던 노인들은 사회 안으로 들어오고, 나아가 배제된 다른 사람들을 사회 안으로 들여오는 '선배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기를 수 있다.

- 농장은 참여노인들이 의견을 모을 수 있는 제도(예를 들어 월례회의)나 방법을 가지고 있는가?
- 농장 활동가는 농장을 지역사회에 개방하고 주민과의 교류 기회를 만드는가?
- 농장 활동가는 참여노인들이 마을과 사회에서 '선배시민'이 되도록 할 수 있는가?

일제강점기라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에 태어나서 평생 정치경제적으로 불리한 여건에 처해있었고, 나이가 들어서는 No人으로 간주되어 쓸모없는 인간으로 사회로부터 배제당한 노인들과 함께하는 사회적농업은 노인을 수동적 존재로 여기고 대상화하여 '연대'가 아닌 '연민'으로 노인 개인의 욕구와 안위에 반응해 왔던 기존의 노인복지와는 다르다. 노인과 함께하는 사회적농업은 저소득 노인의 생계비 마련(생산적 노화?)이나 노인의 최소한 바깥 활동 독려(활동적 노화?)를 위한 정부의 노인 일자리사업에서의 노동과도 차이가 있다. 노인과

함께하는 사회적농업은 평생 농업에 종사했던 노인들을 Know人으로 존중하면서 그들의 노동 능력을 고려하고, 그들의 의견을 반영하며, 그들이 살고 있는 마을 안에서 일상생활에 관여할 뿐 아니라 참여노인들 사이, 참여노인과 지역사회 사이에서 협력과 연대로 관계맺게 함으로써 노인이 사회적 관계 속에서 '한 명'의 사람으로서 제 몫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돕는 활동이다. 그래서 사회적농업은 'No人'이 '선배시민'으로 사회에 통합되는 것을, 그리고 선배 시민으로서 사회를 통합하는데까지 주체적으로 참여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정부는 사회적농장의 중요성을 지금보다 더 강하게 인식하고 농장의 시장 경제력보다는 사회적농업의 취지를 살리고 활동가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운영시스템으로 재정비되어야 한다. 또한 사회적농장의 운영자와 활동가들은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의 '본질'을 알아차리고 사명과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지속가능한 농업은 모든 국민이 건강하게 사는 미래이고, 강화된 사회적농업은 우리 사회가 행복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다.

참고한 자료들

김정섭 외, 2017, 사회적 농업의 실태와 중장기 정책 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배지영 외, 2020, 지역사회 통합돌봄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기반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보건복지부, 2019, OECD 통계로 보는 한국의 보건의료, 보도자료, 2019.7.19.

여민동락 사회적농장, 2020, 여민동락 사회적 농장 사회적 농업 활동 매뉴얼 -어르신편-.

유범상, 유해숙, 2022,『선배시민: 시민으로 당당하게 늙어가기』, 인천: 마북.

이상이, 2020, 노인연령 상향 조정이 필요한 이유, 복지동향, https://www.peoplepower21.org/Welfare/1750333?msclkid=e6db4300c3ce11ec93deaa2f3537383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6, KREI 현장토론회, 마을에서 행복한 노인의 삶.

사회적농업의 이해

__돌봄과 사회적농업 [여민동락사회적농장 사례중심]

노인

문제..빈곤, 질병, 무위, 고독

욕구..

1. 생계의 욕구(의식주해결)
2. 안정,안전의 욕구(고정,불변)
3. 애정의 욕구(공동체,소속감)
4. 자아존중(일의성공,인정,명예)
5. 자아실현(능력활용)

(묘량면) 노인의 시간

- 농사일의 축소_ 소득의 감소, 관계의축소, 여가시간의 증가
- 1인가구

' 내가 벌어서 손주 용돈이라도 주고 싶다'

- 노인일자리, 노인대학, 노인바우처사업
- 보건소 건강관리프로그램
- 경로당 운영비지원(공동식사제공)
- 치매안심센터 치매예방프로그램
- 사회적농업

'내집에서 살다가 내집에서 죽고싶다'

- 노인맞춤형돌봄 이용
- 노인주간보호센터, 방문요양_장기요양서비스 이용
- 노인요양원, 공동생활시설_장기요양서비스

여민동락 사회적농업

[면단위 지역사회돌봄 사회적농업]

01 고령자 일자리 제공 및 사회활동 지원

02 농촌학교 마을교육 지원

03 노인복지센터 연계활동

04 노인 스스로 돌봄활동 지원

고령자 농작업 일자리
요행면 거주 고령자
연중 수시활동
노인사회활동 지원프로그램
돌보는 농부학교
요행중앙초등학교 4학년
3월~12월
월2회 프로그램, 일상적 텃밭 활동
치매동행 프로젝트
주간보호센터 이용 중고도치매어르신
1월~12월
월1회 프로그램, 일상적 동행활동
지역연계돌봄활동
요행면 고령자 중 사회활동 단절 어르신
14개읍면 50명 참여
3월~12월, 월1회 self-care프로그램

01
고령자 농작업 일자리 활동
요행면 거주 60세 이상 고령자 대상
- 65세~87세(평균 77세) 24명 참여
- 독거(95.5%), 부부(4.0%), 경제력이 없는 자녀동거(0.5%)
- 수술 및 병증 이력관리
활동내용
- 농작업 소득활동 (월20만원~30만원) : 월3회~6회/1인기준
- 교육활동(직무, 소양, 생활기술 및 공예, 건강):연간 10시간
- 문화여가활동(운동회, 복달임, 나들이)
- 자치활동(푸른마음협동조합) 운영회의/격월, 총회/연2회

일일 활동 일정표

노인활동 전담운영자 : 송영, 간식준비, 체조진행, 활동일지 작성
농장운영자 : 농작업설계, 작업지도, 작업준비물 점검, 참여자 작업수행 관리
농장활동보조 : 농기계 및 농작업 지원

- 송영담당자 참여자 출근차량 운행 발역지점수행
- 6시~7시 농장도착 일정안내 및 작업지도
- 7시~8시 휴식 간단체조
- 8시~9시 휴식 간식(식음료)
- 9시~10시 휴식 간단체조
- 10시~11시 휴식 간식(음료)
- 11시~12시 휴식 간단체조
- 송영담당자 참여자 퇴근차량 운행 참여자 고충확인
- 오후 활동후 정리 활동일지 작성 익일 활동준비

02 돌보는 농부학교

- 묘량중앙초등학교 4학년
  - 학생 15명 (특수교육반 2명포함)

- 활동내용
  - 학교텃밭(희망농장) 조성활동 : 지속가능한 농업생태교육 환경조성
  - 농사문화재 마을교사와 연중 농사짓기
  - 농사를 통해 마을을 알고 친숙해 지기
  - 생산부터 판매까지 : 수확한 농산물을 공동체만에서 나누고 판매하는 공동체 경제활동 경험
  - 생태시민으로 성장 : 기후위기 시대, 생태감수성을 키우기

어린이 농부학교 활동소개

사회적농장 활동가 : 농작업실제, 활동지도
마을교사 : 농작업활동지도(2명 상시활동), 마을교육 등
농장활동보조 : 답임교사, 특수교사, 학부모활동가

주요내용 : 학교텃밭, 농업생태교육장 조성
무인형태 운영
수확농산물 판매 및 나눔활동

1차시_3월 11일 : 희망농장 오리엔테이션

2차시_3월25일 : 농사와 협동 (모둠별 활동, 해설나무 가꾸기 등)

3차시_4월15일 : 텃밭작물심기 (미종 모종 심기)

4차시_4월29일 : 아쿠아포닉스

5차시_5월13일 : 옥수수 심기, 텃밭 잡초 제거

6차시_5월27일 : 아쿠아포닉스 작물 수확 및 텃밭 잡초 제거

7차시_6월10일 : 잔돌 모내기 (4,5학년 합동수업)

8차시_6월24일 : 채소파종

9차시_7월15일 : 농장 정리 및 방학 계획 세우기

03 치매동행 프로젝트

- 노인주간보호센터 이용 어르신
  - 중고도치매 17명
- 활동내용
  - 사회적농장 운영자&주간보호운영자 치매학습
  - 주간보호센터 마당에 텃밭 조성 : 상시활동 환경조성
  - 매월 인지력 향상 및 잔존능력 활용 원예활동 운영
- 프로젝트 수행과정

  참여자 인지활동 단계 파악을 위한 정보수집 및 프로그램 난이도 설정

  각 회차별 구체적인 프로그램 계획

  프로그램 수행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치매어르신 돌봄 활동 소개

사회적농장 활동가 : 상시활동 모종생산 및 공급, 프로그램 계획 및 지도
주간보호 요양자 :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총6명

치매돌봄 프로그램 운영 원칙

참여자 인권보호
참여자의 욕구를 파악하고 욕구에 근거한다
참여자의 감정을 배려한다
참여자의 자유와 안정의 보장
참여자의 프라이버시 존중
적절하고도 개별적인 돌봄의 제공
동료간의 교제를 촉진한다
쾌적한 환경 조성
참여자의 자립을 위한 지원
가족과의 신뢰관계 구축 및 가족의 지지

04 지역돌봄프로그램

- 노인회 등 사회활동 중단 지역어르신
  - 마을별 10~15명, 4개그룹 운영
- 사회적농장 역할
  - 참여자 발굴, 사전인터뷰, 필요정보 수집
  - 프로그램 설계(기본프로그램+주제프로그램)
  - 운영, 사후관리

치매어르신 돌봄 활동 소개

사회적농장 활동가 : 송영 및 기본프로그램 운영
전문강사 : 주제 프로그램 운영

노인 self-care 프로그램

기본프로그램
- 출석확인 : 덕호 및 이름 불러드리기
- 한주간 일상 및 마음소식 서로 나누기
- 건강체조
- 한글쓰기, 색칠하기

주제 프로그램
- 점심특별농가 (음식조리활동)
- 기억력 검사 및 치매예방 교육(치매안심센터)
- 원예활동(화분심기, 생활장예)
- 실버레크레이션(웃음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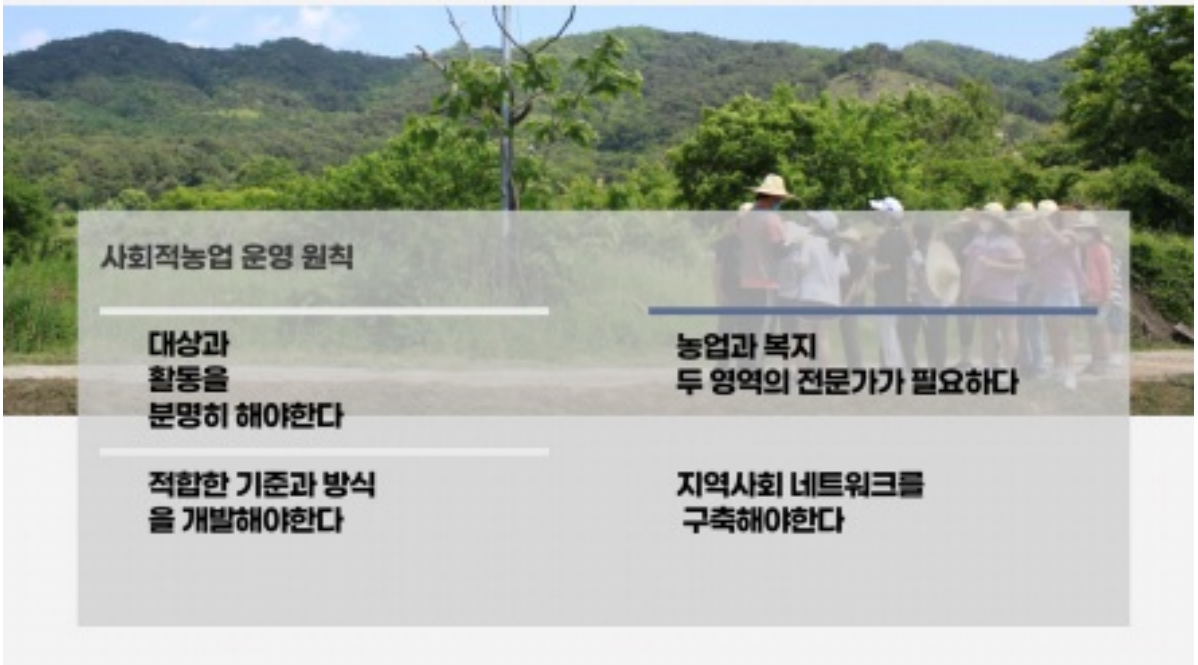
협력적 사회적농업 거버넌스

사)여민동락공동체
묘량면 지역사회(이장, 부녀회장)
여민동락노인복지센터
묘량중앙초등학교
영광군치매안심센터

사회적농업 운영 매뉴얼

사회적농업 운영 원칙

사회적농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특성


사회적농업 운영 원칙
대상과
활동을
분명히 해야한다
농업과 복지
두 영역의 전문가가 필요하다
적합한 기준과 방식
을 개발해야한다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축해야한다

사회적농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모습
사회적농장에서는 농업전문가인 농촌노인이 주체적 활동을 할 수 있다
사회적농장에서 노인들은 높은 속도에 맞는 일을 할 수 있다
사회적농장에서 노인들은 외로움과 집념을 덜어낼 수 있다
사회적농장에서 노인들은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다
사회적농장에서 노인들은 건강을 관리할 수 있다
사회적농장에서 노인들은 사회적으로 통합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예민동락영농조합법인

호남권역 사회적농업 거점농장
전남 영광군 묘량면 동삼로1길 95-61
faymdr2018@hanmail.net

이은정 010-9443-50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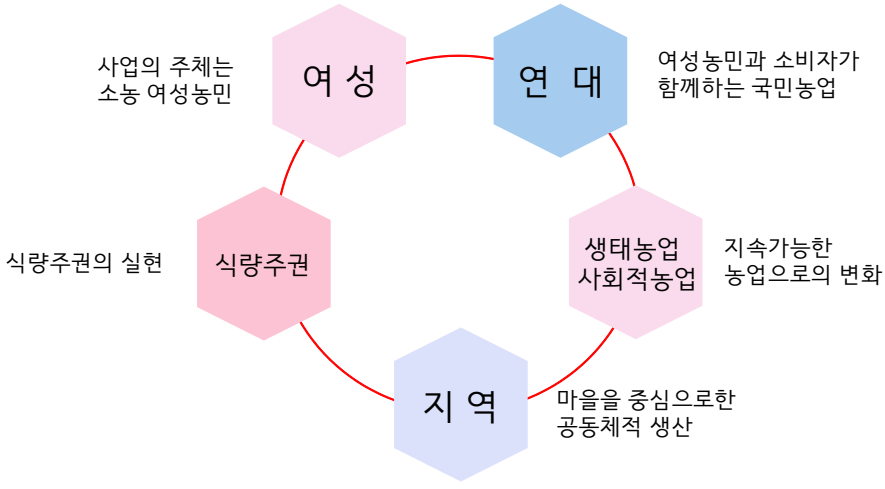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우리 모두를 위한 농업

사회적 농장 횡성언니네텃밭

횡성언니네 텃밭 사업 진행 과정

2009	- 4월 텃밭영농조합법인 '우리텃밭' 시작 - 강원 횡성공동체 첫 꾸러미 배송, 인큐역할
2010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식량주권사업단 '언니네텃밭' 이름 변경
2011	- 공근면 오산리 '횡성오산공동체' 시작
2012	- 공근면 도곡리 '횡성도새울공동체' 시작 - 10월 세계식량주권상 대상 수상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 횡성공동체 횡성읍 추동리로 작업장 이전
2014	- 횡성언니네텃밭 영농조합법인 설립 - 산채 가공장 및 작업장 신축
2016~18	- 온라인 판매 장터 공동체 시작 - 오산공동체 작업장 신축 - 공근면 도곡리 '도새울공동체' 중단
2019	- 농림축산식품부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시작
2020	- 농산물 즉석 제조가공장, 판매장 마련
2022	- 농림축산식품부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거점농장' 선정

횡성언니네 텃밭 특징



ⓒSaebyeol Yu. Saebyeol's PowerPoint

횡성언니네 텃밭 생산 원칙

제 철
- 제철 농사로 환경과 사람을 살리는 먹을거리

친환경
- 친환경적 농법으로 생산한 먹을거리

지 역
- 지역에서 생산한 지역 먹을거리

전 통
- 전통적인 먹을거리 문화 계승

토 종
- 토종씨앗으로 생산한 먹을거리

ⓒSaebyeol Yu. Saebyeol's PowerPoint

횡성언니네 텃밭 주요사업

제철꾸러미

- 소비자 회원이 월 회비를 내어 여성 농민 생산자 공동체를 지원하면 생산자는 제철에 텃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매주 보내드립니다.
- 얼굴있는 여성농민의 이름으로 판매합니다.

사회적 농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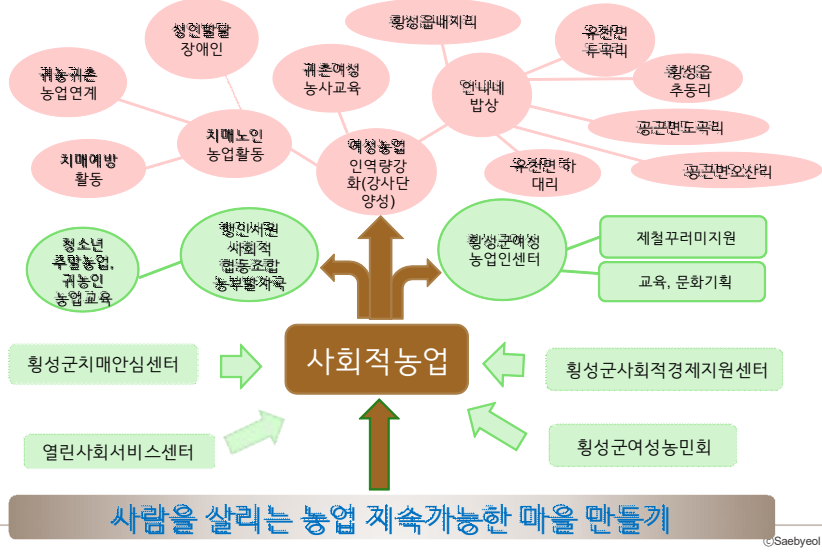
- 농업 활동을 통해 돌봄, 교육, 고용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 농촌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 지역 네트워크 구축

소비자 연대 공동체 활동

- 생산자 공동체와 소비자가 교류하여 함께 하는 농업을 만들어 갑니다.
- 또한 생산자들의 공동체 활동을 통하여 농민이 주체가 되는 농업을 실현합니다.

©Saebyeol Yu. Saebyeol's PowerPoint

사회적 농업 활동 횡성언니네텃밭 운영체계



©Saebyeol Yu. Saebyeol's PowerPoint

누가 언제 어떻게 할것인가? 하는가? 어디서 무엇을

ⓒSaebyeol Yu. Saebyeol's PowerPoint

사회적 농업 활동

1	귀촌여성에서 농업인으로의 정착지원 ”함께 하는 텃밭”
2	고령여성 농업인과 함께하는 “언니네 밥상“
3	치매안심센터연계 ”자아 찾아 떠나는 여행“
4	제철농산물 즉석가공 “언니네 두레반”
5	귀농 귀촌 연계 농업 활동
6	성인발달장애인 대상연계 농업활동 및 꾸러미활동

ⓒSaebyeol Yu. Saebyeol's PowerPoint

횡성언니네텃밭
사회적농업
1

귀촌 여성에서 농업인으로의 정착지원 ”함께하는 텃밭“

ⓒSaebyeol Yu. Saebyeol's PowerPoint

횡성언니네텃밭
사회적농업
1

귀촌여성에서 농업인으로의 정착지원 ”함께하는 텃밭“

공근면 오산리 사회적 농장

ⓒSaebyeol Yu. Saebyeol's PowerPoint

횡성언니네텃밭
사회적농업

1

귀촌여성에서 농업인으로의 정착지원 ”함께하는 텃밭“

우천면 하대리 사회적 농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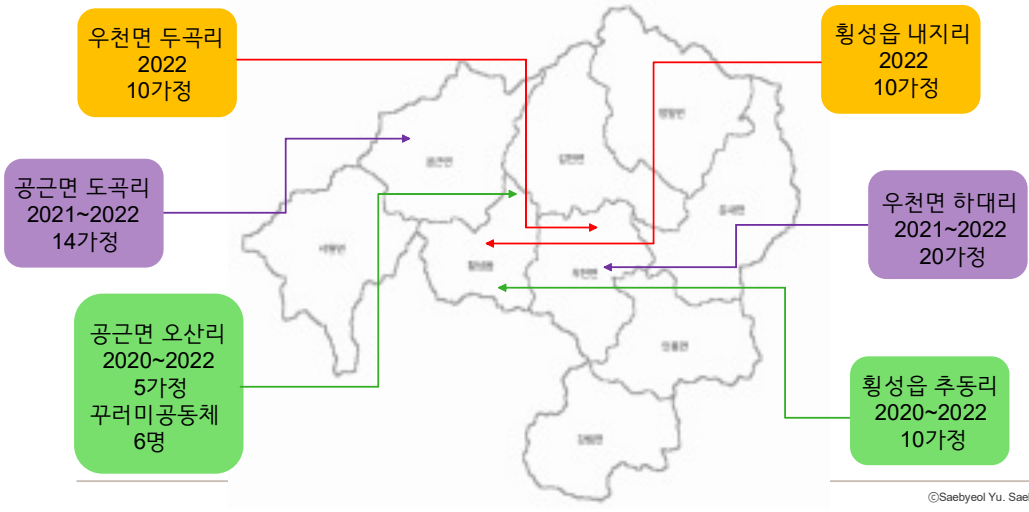
©Saebyeol Yu. Saebyeol's PowerPoint

횡성언니네텃밭
사회적농업

2

고령여성 농업인과 함께하는 ”언니네 밥상”

횡성군 6개 마을 고령어르신 반찬 나눔



©Saebyeol Yu. Saebyeol's PowerPoint

횡성언니네텃밭
사회적농업

2

고령여성 농업인과 함께하는 ”언니네 밥상” 준비

> >

> >

> >

ⓒSaebyeol Yu. Saebyeol's PowerPoint

횡성언니네텃밭
사회적농업

2

고령여성 농업인과 함께하는 ”언니네 밥상” 구성

요 리	• 짜장, 카레, 삼계탕, 코다리찜, 돼지고기 두루치기, 순살닭볶음탕 등
반찬류	• 열무김치, 콩자반, 오이무침, 오이지무침, 무생채등 1~2가지
간 식	• 제철과일 또는 유산균 음료
별 식	• 호박죽, 도토리묵, 옥수수범벅등

ⓒSaebyeol Yu. Saebyeol's PowerPoint

횡성언니네텃밭
사회적농업

1 고령여성 농업인과 함께하는 ”언니네 밥상”전달

ⓒSaebyeol Yu. Saebyeol's PowerPoint

횡성언니네텃밭
사회적농업

1 고령여성 농업인과 함께하는 ”언니네 밥상”전달

ⓒSaebyeol Yu. Saebyeol's PowerPoint

횡성언니네텃밭
사회적농업
3

치매안심센터기관연계 ”자아를 찾아서 떠나는 여행”

ⓒSaebyeol Yu. Saebyeol's PowerPoint

횡성언니네텃밭
사회적농업
4

전통음식 전수 ”언니네 두레반” 역량강화

ⓒSaebyeol Yu. Saebyeol's PowerPoint

횡성언니네텃밭
사회적농업
5

귀농 귀촌 연계 농업 활동

ⓒSaebyeol Yu. Saebyeol's PowerPoint

횡성언니네텃밭
사회적농업
6

성인발달장애인 대상연계 농업활동 및 꾸러미활동

ⓒSaebyeol Yu. Saebyeol's PowerPo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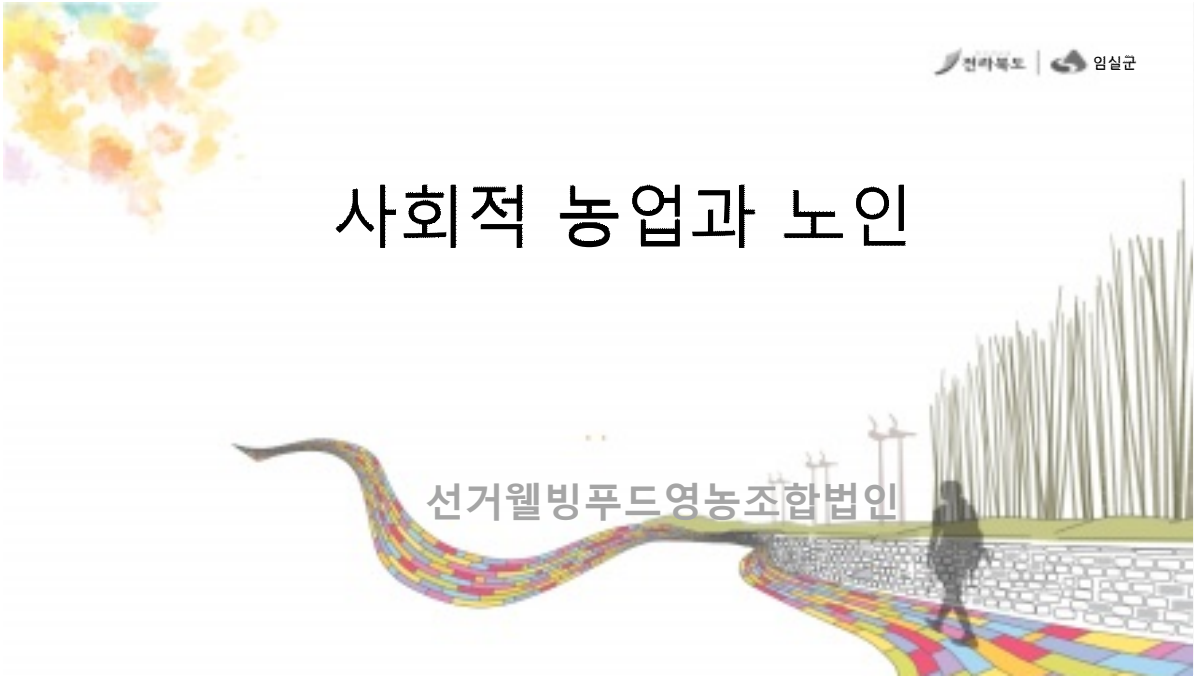
네트워크 활동

ⓒSaebyeol Yu. Saebyeol's PowerPoint

감사합니다

횡성 언니네텃밭
영농조합법인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추동로 108-26
연락처 : 033-345-2470
이메일 : hsgys@naver.com



Contents

01 선거웰빙푸드 현황 및 소개

02 사회적 농업 현황

03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소개

01 선거웰빙푸드 현황

02 선거마을 현황

선거마을 三樂滿開

선거웰빙푸드 사회적농업으로 三樂을 꽃피우다

과거 선거마을

62세대
남자45명
여자65명
평균연령 75세

고령화

농업 ▸ 집 ▸ 병원

선거마을 공동체 현황

선거웰빙푸드 영농조합법인 (2013년 설립)

선거마을 주민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이 제값을 받지못하는 현실을 보고 설립

+

한국원예 복지협동조합 (2017년 설립)

선거마을 자연을 활용한 제품을 생산 주민 자격증반을 만들어 일자리창출에 기여

"선거마을 주민총회를 통해 결성된 협동조합 법인"

"체험사업, 일자리 창출사업 위탁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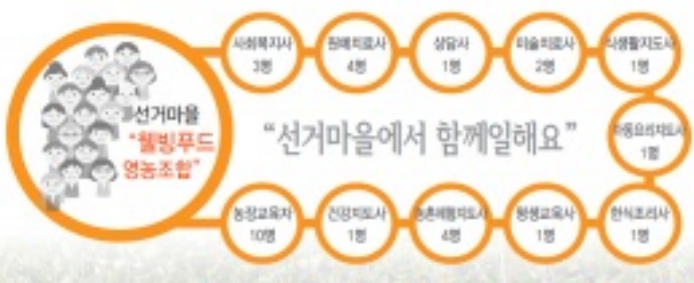
"마을주민도 힐링 하는 행복한 마을 " "선거마을 농산품 + 체험, 홍보, 판매 역할 수행"

선거웰빙푸드 사회적 농업

Key Word

선거마을 주민공동체 조직, 선거웰빙푸드 영농조합법인

- 업체명 : 선거웰빙푸드 영농조합법인(대표자 박 미)
- 설립일자 : 2013년 7월 15일
- 구성원 : 총 8명 (여성인력 6명 / 남성인력 2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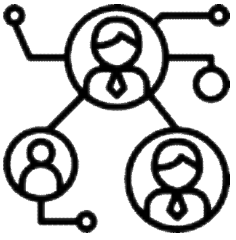
선거웰빙푸드 사회적농업 추진과정

선거웰빙푸드 사회적농업 시설현황

시 설 명	시설규모	수용인원	프로그램
교육체험관 (식당포함)	2층 70평	최대 90명	교육 학습 프로그램 진행
야외체험장	90평	최대 200명	야외학습 프로그램
농장1 (아로니아, 부추)	700평/400평	최대 20명	꽃차, 잼, 케익, 부추수확
농장2 (배농장)	3,000평	최대 30명	꽃차, 달팽이, 수확
텃밭농장	460평	최적50~100명	4~11월 연중가능 (직접농업체험)
구사동 (자생 아생화단지)	2만평	무제한	섬진강, 기암절벽, 4계절 경관 연출 YMCA야구단, 역리, 영상 영화촬영지
숙박시설	마을회관, 민박10개소 노인정, 장수마을체험관	최적100~200명	1박 이상 체류형 체험객 유치
산책길코스	30~60분 코스	최적 20명	숲놀이체험, 숲길트레킹, 보물찾기
동물치유농장	300	최적 20명 이내	정목형 먹이주기, 병아리키우기

02

사회적농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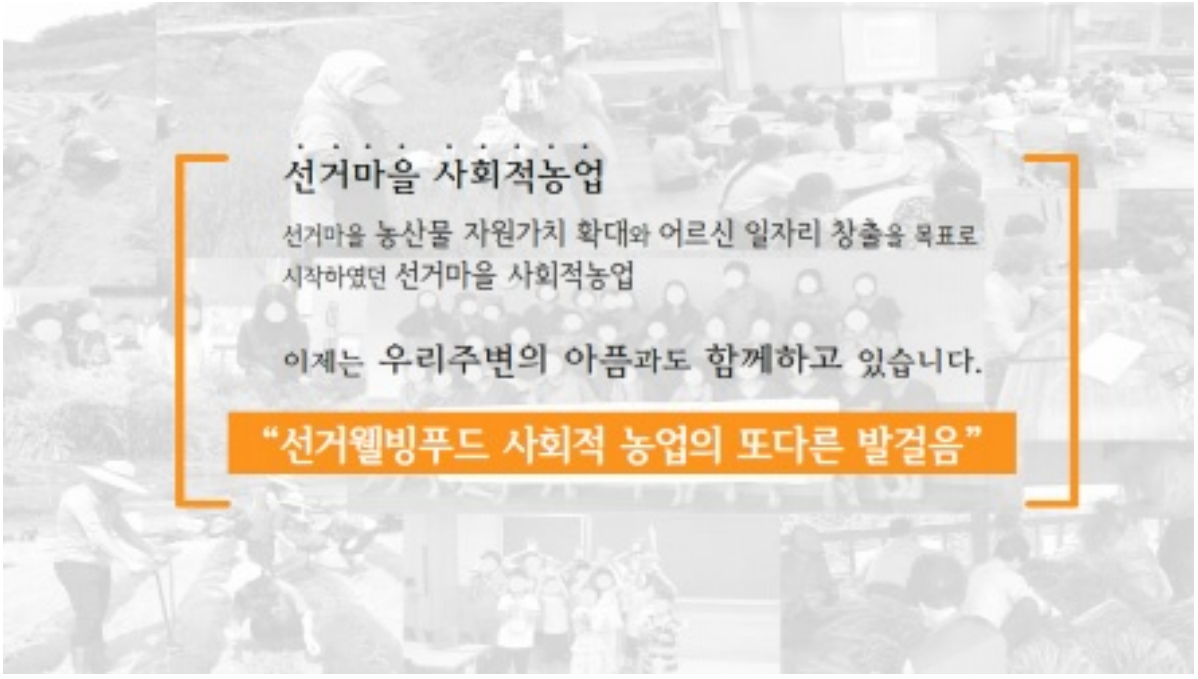


사회적 농업 (치유농업)?

- 문재인 정부 100대 공약 사항 중 농업분야에 사회적 농업 시범사업 실시 및 관련 법적 근거마련 추진
-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기반을 둔 다양한 사회적 서비스를 취약계층에 제공하는 농업
- 농장에서 자연을 매개로 제공되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통해 취약 계층에게 필요한 치유, 사회적 재활, 교육, 고용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사회적 농업의
핵심 요소 3가지
자연 환경
심리적 회복
스트레스 감소
주의집중력 향상
자연 신체 활동
사회적 연결
집단의 일원 되기
사회적 접촉
통합(포용)
소속감
의미 있는 활동
새로운 실용 기술
성취감
책임감
자신감

선거웰빙푸드 사회적농업은?
비젼
취약계층의 정신적 신체적 장애를 치유하고 삶의 질 향상
미션
원예복지를 활용한 치유, 교육, 문화를 통한 사회성 회복
원예치료 교육
직업 교육
농업교육
보존화 원예치료 자격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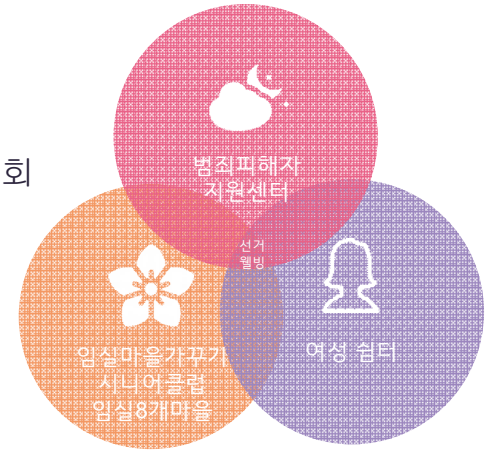

선거마을 사회적농업
선거마을 농산물 자원가치 확대와 어르신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시작하였던 선거마을 사회적농업
이제는 우리주변의 아픔과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선거웰빙푸드 사회적 농업의 또다른 발걸음"

세상에서 받은 상처...
성폭행
피해여성
폭력
독거노인
트라우마
살인사건
방화
소외
피해아동
구타
납치
외면
강간
우울증

네트워크 구축 현황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여성 쉼터	아동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여성쉼터	노인 임실마을가꾸기 협의회 임실 시니어클럽
살인 유족, 살인미수 사건 피해자와 가족, 학교폭력사건, 성폭력, 가정폭력, 방화, 납치 유인, 강도강간상해, 중상해 피해자 15명	도저히 집에 갈 수 없을정도로 폭력에 시달려 온 여성을 보호하는 기관 피해자 여성 15명 (심리지원 및 **자격증**까지 추진)	**20명 프로그램 진행** 사전 프로그램 진행 등 논의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닌 **자신을 개발하는** **프로그램(자존감 향상)진행**	**15명 일자리 창출 진행(선거)** 강아지풀 프리저브드플라워 제조 교육 후 판매 진행 **15명 프로그램 운영 (행복마을, 창현마을)** 원예치료, 프리저브드플라워 제조교육

대상자 선정 및 네트워크 협의회



선거웰빙푸드 사회적농업 추진목표
365일
366day
36.5℃
36.5
온정가득한 치유의 동행 선거마을
사람과 마을과 농업이 하나되어...
치유, 회복으로 함께 일어서는... 상생 사회적 농업
꽃이 피어나는 선거마을에서... 웃음이 다시피는 치유거점 만들기

03

프로그램 소개

선거웰빙푸드 사회적농업 프로그램(피해여성)

Key Word

- ▢ 가정, 성폭력 및 범죄피해자 사각지대 여성들을 심리적 안정 및 우울감, 불안감 등의 부정적 양상을 감소
- ▢ 삶의 행복지수를 찾고 사회적응력을 회복
- ▢ 숨어 지내는 것이 아니라 소통하며 일자리를 창출하여 자립의 준비시간 마련

프 로 그 램	상 세 내 용
원예치료 교육	원예치료 교육을 통한 자격증 취득, 일자리 연계
숲 체험 / 텃밭 운영	숲 체험과 텃밭 운영을 통한 심신 안정, 농작물 판매 수익 창출
일자리(자립) 상담	직업종류를 알아보고 적성검사를 통해서 직업을 찾는 교육시간 마련 일자리 창출 유도
맞춤형 농장교육	농장교육을 통한 개인 맞춤 컨설팅 프로그램을 제공 수확 작물을 활용하여 다양한 가공농산품 개발 및 판매 교육

대상자가 활동가로..

대상자가 활동가로...

선거웰빙푸드 사회적농업 프로그램(독거노인)

Key Word

- 농촌 홀로계신 노인들은 빈곤한 삶을 살면서 여가활동 부족으로 인한 무력감과 함께 외로움과 고독감 호소
- 집단활동을 통해 여가를 즐김으로써 외로움 감소 및 사회성을 향상
- 노년에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함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 통한 안정적 경제활동 제공

프로그램	상세내용
원예치료 교육	원예치료를 통한 감정을 반영하는 기법을 통해 소통하고 내면의 자신을 발견하는 과정도입 실물을 활용한 회상기법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스토리텔링 진행
프리저브드 플라워/ 야생꽃차 교육	시들지 않는 꽃 제조 교육을 통하여 어르신 일자리 창출 야생꽃차 만들기 교육을 통해 자신의 이름으로 만든 수제 차 제조

우리는 들풀로
돈을 벌고 있다 !

들풀이
돈이 된다 ?

선거초등학교 졸업식
(공부!! 70세부터 시작 했다.)

꽃이 피어나는 선거마을에서 ... 웃음이

한글교육

미술교육

수학교육 및 주산교육

영어교육

음악교육

졸업장 수여식

꽃이 피어나는 선거마을에서 ... 웃음이

선풍기전달

명절음식전달

공동 농작업

피해자

독거
노인

의지.소통.협동.경계
고독감해소
전문성.자립.역량강화

반갑고 고맙고 기쁘다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네가 시방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너의 앉은 자리가
바로 꽃자리니라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구상, 꽃자리 中-

끝

감사합니다

사) 한국사회적농업협회

Part 1

(사)한국사회적농업협회 조직도

Part 1

(사)한국사회적농업협회 현황

구분	직책	회원명		인원
의결권자 (총 32명)	임원	회장	청송해뜨는농장 윤수경	9명
		부회장	야호해남 전병오	
		부회장	횡성언니네텃밭 이숙자	
		총무이사	화탑영농조합 박수진	
		이사	전여울영농조합 임의수	
		이사	㈜청년마을 한석주	
		이사	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이근석	
		이사	여민동락 이은경	
		이사	성원 김진영	
	감사	감사	㈜콩세알 서정훈	2명
		감사	행복농장 최정선	
	회원	정기총회 자료집 참고		21명

- 임원 : 9명
- 감사 : 2명

Part 1

2022년 사업계획

사업계획 순서

1. 행복농장 - 뉴스레터 "사이통신"
2. 청년마을 – 기초공통교육 커리큘럼
3. 여민동락-전문가집담회 "콜로키움"
4. 청송해뜨는농장-22년 사회적경제 통합 박람회
5. 팜플렛 제작
6. 간판 제작
7. 홈페이지 제작
8. 밴드 활성화

Part 1

2022년 사업계획

행복농장 – 뉴스레터 " 사이통신"

1. 뉴스레터 발행형식 공유·논의 및 확정

1	발 행 형 식	웹진
2	발행처	사)한국사회적농업협회, 협동조합 행복농장
3	편집위원	- 거점농장 협의회 - 젊은협업농장 정민철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정섭 - 협동조합 행복농장 최정선, 이이수
4	편집과 디자인	시골문화사 박영선, 김세빈

Part 1

제3호안 : 2022년 사업계획

2. 뉴스레터 '사이통신' 내용구성안 공유·논의 및 확정

제목	주제/내용	분량 (200자 원고지)
다양한 시선	(1) 사회적농업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사회적농업을 다양한 시선으로 담아봅니다.	20-30매 이내, 사진 5매 이내
	(2) 연결가능성 높은 사업 및 활동 -사회적농업과 연결가능성이 높은 국내외 사업 및 활동을 소개합니다.	20-30매 이내, 사진 5매 이내
가꾸는 실천	(3)농장 및 활동소개_ 거점농장 -지역별 거점농장의 활동과 실천사례를 소개합니다.	20매 이내, 활동사진
	농장 및 활동소개_ 활성화농장 -활성화농장의 활동과 실천사례를 소개합니다.	20매 이내, 활동사진
	농장 및 활동소개_지역서비스공동체 -지역서비스공동체의 활동과 실천사례를 소개합니다.	20매 이내, 활동사진
나누는 공부	(4) 사회적농업 편 (외국자료번역) -사회적농업과 관련한 전문외국자료를 번역하여 공유합니다.	25-30매 이내
	(5) 생태치료 편 (외국자료번역) -생태치료와 관련한 전문외국자료를 번역하여 공유합니다.	25-30매 이내
전하는 소식	(6) 사회적농업 소식 -전국 사회적농업과 관련한 교육, 세미나, 간담회 일정을 안내하고, 다양한 활동 소식을 공유합니다.	2매 이내, 활동사진

2022년 사업계획

3. 2022년도 뉴스레터 각 호의 제작일정 및 구성내용별 집필자

내용	3월	5월	7월	9월	12월
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정섭	목포대학교 김영란	미정	협동조합 행복농장 안병은	농림부 농촌사회복지과장 박은엽
2	충남사회적농업 김기흥	미정	미정	미정	미정
3	홍성 협동조합행복농장	영광 여민동락	완주 사회적경제NW	청송 해뜨는 농장	강화 콩세알
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정섭/ 사회적농업 국.내외학술자료				
5	소리와건강 초록문연구소 / 자연기반치료 (Nature-Based Therapy: A Practitioner's Guide to Working Outdoors with Children, Youth, and Families)				
6	거점농장 (거점농장을 포함하여 소속된 농장의 중요활동이나 교육 일정을 안내)				

Part 1

2022년 사업계획

청년마을 – 기초공통교육 커리큘럼

Ⅰ목적

2022년 (83곳의 사회적 농장과 지역서비스 공동체 22곳) 총 105곳의 사회적 농장이 사회적농업을 실천하게 됨에 따라 공통의 인식과 정체성 확립의 필요에 따라 통합적 공통 기본교육이 필요성이 증대 됨

1) 2020년 이후 사회적농업 농장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체 공동학습의 기회가 제공 되지 않으므로 해서 사회적 농업에 대한 공통 인식 필요성과

2)사회적농업 농장 전체 역량강화를 통한 사회적농업의 정체성 확립 ,

3)거점농장 협의회의 사회적농업 공동 사업을 통한 사)사회적농업 협회의 역량강화

2022년 사업계획

전체 공동 교육					
주관		주관: 청년마을 주최: 사단법인 한국사회적농업협회			
장소		오송 CV 센터 등			
대상		2020년 이후 선정된농장 대표와 실무자 우선, 희망농민			
인원 회당		40명, 각 거점농장에 신청 (4월9일까지)			
교육 실제	날짜	주제	전체공통	주제공통	주제의 실제 워크숍
			10시~12시	13시~15시	15시 ~ 17시
	4.21	정신장애와사회적농업	안병은 (행복농장이사장)	김정섭박사 (농촌경제연구원)	행복농장 좌장
	4.28	발달장애와사회적농업	김정섭박사	이재경	콩세알 좌장
	5.12	노인문제와 사회적농업	김정섭박사	김영란 (목포대교수)	여민동락 좌장
	5.19	청년문제와사회적농업	김정섭박사	정민철박사 (협업농장)	청년마을 좌장
	5.26	아동문제와사회적농업	김정섭박사	조미형박사 (함께하는 연구협동조합)	여민동락 좌장
강의 내용		*전체 공통 : 사회적농업,역사, 개념 , 전망, 강사- 김정섭박사 *주제 공통 : 각 주제를 사회적농업으로 실천할 때 고민해야할 문제들 *주제의 실제 : 각 주제를 실천한 선진 농장 대표들과의 대화중심 워크숍 주제공통 강의자+좌장농장에서 섭외한 전문가와 참가자 질의 응답방식			
참가비		무료(참가자 명단은 각 거점농장 수합하여 4월9일까지 청년마을로)			
기타		모든 농장은 1회이상 참가 필수 , 중복 참가가능			

Part 1

2022년 사업계획

여민동락-전문가집담회 “콜로키움”

분야		내용	비고
개념		사회적농업이란 무엇인가?	
방향성		농업·농촌 관점에서의 사회적 농업	
		보건·복지 관점에서의 사회적 농업	
실천	정신·발달 장애	사회적농업의 유익과 실천 경험- 분야별 사회적 농업 실천에 대한 연구 – 외부 전문가의 학술적 연구 및 효과성 입증	
	노인		
	청년		
	아동·청소년		
학술·연구		사회적 농업 학술·연구분야의 확장(전문가 확보)	별도 논의
평가		사회적 농장 실천에 대한 정성적 평가 기준 마련	별도 논의

Part 1

2022년 사업계획

Part 1

: 2022년 사업계획

청송해뜨는농장 - 22년 사회적경제 통합 박람회

❖ 박람회 부스 운영을 통한 사회적농업 홍보
❖ 사회적농업 포럼 개최로 홍보 및 정보 전달
❖ (사)한국사회적농업협회 워크샵 개최로 회원 교류 및 협회 활성화

2022년 사업계획

개 요	
일 시	2022. 7. 8(금)~ 7.10(일)
장 소	경주 화백컨벤션센터 일원
주최/주관	(사)한국사회적농업협회
참 석	협회 회원 및 기관 단체 관련 담당자
주요내용	- 2022 사회적경제통합박람회 부스 운영 - 사회적농업 콜로키움 - (사)한국사회적농업협회 워크샵

Part 1

2022년 사업계획

세부내용	
사회적경제박람회 부스 운영	각 거점농장 별 부스 운영으로 사회적농업 홍보 및 사회적농장 간의 정보 교류
사회적농업 포럼 운영	- 6월까지의 콜로키움 운영 내용을 바탕으로 사회적농업 기본에 관한 발표와 토론 - 전문가, 사회적농장 및 지역서비스공동체형 농장, 희망농장, 일반 대중 등 참석 확대 - 포럼 참가자들에게 박람회 참관을 유도
(사)한국사회적농업협회 워크샵 운영	- 협회 회원 전체가 참가하는 워크샵으로 회원간의 정보교류, 협회 활성화를 위한 토론 등 사회적농업 발전을 위한 워크샵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2022년 사업계획

팜플렛 제작	협회 구성 및 사업계획을 홍보팜플렛으로 제작 – 해뜨는 농장
간판제작	회원에게 10만원 상당 협회제작 간판 제작 – 야호 해남
홈페이지 제작	사) 한국사회적농업 협회 홍보 및 활성화
밴드 활성화	사회적농업지원사업협의체 밴드운영 활성화

감사합니다

사단법인 한국사회적농업협회 회원가입 신청서

기 업 명		전 화	
		팩 스	
		이 메 일	
대표자 성명		휴대전화	
		이 메 일	
담당자 성명		휴대전화	
		이 메 일	
주 소			
홈 페 이 지			
업태 / 종목		사업자 등록번호	
제 출 서 류	①회원가입 신청서, ②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각 1부.		

*입회비:100,000원 *연회비:100,000원 *총:200,000

은행 : 농협) 301-0289-2204-81 (사)한국사회적농업협회

회원가입 신청서 보내실 곳 : werwer0174@naver.com

위와 같이 사단법인 한국사회적농업협회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사단법인 한국사회적농업협회 귀중

개인(기업) 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관련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 15조>

사단법인 한국사회적농업협회는 회원가입에 필요한 개인과 기업 정보 수집 및 이용, 제3자 제공 등 사항을 안내드리고 이에 대한 동의를 받기 위해 작성합니다.

1. 개인(기업)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 정보 수집·이용목적 : 사단법인 **한국사회적농업협**회 회원가입 및 회원사 관리, 조직사업 등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 및 활용을 위함.

■ 정보 수집항목

(필수항목)

- 개인 : 대표자성명/휴대전화/이메일, 담당자성명/휴대전화/이메일
- 기업 : 기업명, 전화, 팩스, 이메일, 주소, 홈페이지, 업태/종목, 사업자등록번호

■ 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본 동의서 작성일로부터 신청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까지(5년) (단, 다른 법령에 의해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함)

■ 동의거부 권리 및 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 :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사) 한국사회적농업협회 회원가입 및 회원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사) 한국사회적농업협회가 개인정보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작성종료)

귀하는 (사) 한국사회적농업협회가 소식지 등 안내를 위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거부 시 온·오프라인 소식지 발송 등의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작성종료)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 및 제공정보·목적

정보를 제공받는자	제공목적	제공정보항목	보유 및 이용 기간
사단법인 한국사회적농업협회	회원가입 및 회원사 관리, 조직사업(유통사업, 공공기관 안내 등) 등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 및 활용을 위함.	(필수항목) - 개인 : 대표자성명/휴대전화/이메일, 담당자성명/휴대전화/이메일 - 기업 : 기업명, 전화, 팩스, 이메일, 주소, 홈페이지, 업태/종목, 사업자등록번호	본 동의서 작성일로부터 신청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까지(5년) (단, 다른 법령에 의해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함)

■ 동의거부 권리 및 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 :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사) 한국사회적농업협회 회원가입 및 회원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작성종료)

년 월 일

신청인 (인)

사단법인 한국사회적농업협회 귀중

MEMO

MEMO

MEMO

MEMO